

WWW.UMNLOAN.COM 소중한 주택 융자, 신뢰와 전문성을 갖춘 회사 유나이티드 몰게지 내이션과 함께 하십시오! NMLS# 2425871 1-833-846-4004





대표전화: (703)281-9660 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제 691410호 COPY RIGHT 2024

Thursday, October 23 2025 A

# 무차별 계좌 압류에 한인업체 문 닫을 뻔

#### 모르는 채무 불구 차압 당해 잔고 13만불 순식간 사라져

본인도 모르는 압류 조치로 인해 사업 체 은행 계좌에 있던 자금이 갑자기 사 라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렌지카운티에서 운송업체를 운영 하는 이모씨는 지난 8월 은행 앱을 확 인하다 깜짝 놀랐다. 30년 가까이 거래 해 온 뱅크오브아메리카계좌 잔고가 순식간에 '0'이 돼 있었기 때문이다. 불 과 한 시간 전만 해도 13만 달러가 남아 있던 비즈니스 계좌의 돈이 모두 사라 졌다.

이씨는 처음에는 신종 스캠이나 해 킹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은행과 통화한 결과, 뉴욕 연방법원이 이씨 회사 계좌의 압류 영장을 발부했 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법원 영장에는 버지니아주에 본사를 둔 중국계 S업체 가 약 46만 달러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 아 관련 기업과 개인 계좌를 추적해 잔 고를 압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조치는 뉴욕의 한 채권추심 전문 로펌이 대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 나 이씨는 S사와 그 계열사, 관련 인물 들과 전혀 관계가 없었다. A 변호사는 법원 명령을 근거로 S사와 아무 관련 이 없는 이씨의 회사 계좌에서 13만 달 러를 압류해 간 것이다.

이씨는 "이미 동부지역은 업무가 끝 난 시간이라 대응도 어려웠다"며 "밤 새 협력 업체들의 거래 내역을 모두 확 인했지만, 관련 채무는 없었다"고 당시 를 회상했다.

이에 이씨는 은행에도 문의했지만, 뱅크오브아메리카 측은 "압류 조치를 요구한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하라"는 답변만 내놨다고 한다. 결국 그는 새벽 에 변호사인 지인을 통해 A 변호사에 게 "S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이메 일을 보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A 변 호사는 "해당 케이스와 무관하다면 압 류를 취소하겠지만, 이를 증명해야 한 다"고 요구했다.

이후 이씨 회사는 S사와 아무 관련

H-1B 수수료 10만불 대상 대폭 줄어

이 없는 업체라는 사실이 인정되면서 잔고 압류는 해제됐다. 압류됐던 13만 달러도 이틀 만에 반환됐지만, 이미 여 러 장의 체크가 잔고 부족으로 부도 처 리됐고, 협력업체들에는 사정을 해명 하느라 진땀을 빼야 했다.

전문가들은 근거 없는 압류로 피해 를 보는 업체가 늘고 있다며 제도 개선 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앨버트 장 변 호사는 "채무 추적을 위한 법원 명령이 무고한 업체를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 며 "비슷한 이름이나 인종적 특징만으 로 무차별 압류를 하는 사례가 적지 않 아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충분한 검증 없이 영장을 받아 낸 추심 변호사, 이를 그대로 집행한 법 원과 무관심으로 일관한 대형 은행 탓 에 선량한 스몰비즈니스가 피해를 떠 안은셈이다.

이씨는 "이민 생활하면서 많은 일을 겪었지만, 이번만큼 억울한 일은 처음" 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최인성 기자

### 김용범 "한미 협상 마지막 와있다"

#### 한두 쟁점 입장차 커

한·미 무역 협상 후속 합의를 위해 22일 미국을 방문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 장은 "협상이 마지막까지 와 있다"고 말

김 실장은 이날 워싱턴 DC 인근 덜레 스 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양국 이 지난 몇 주간 매우 건설적이고 생산 적인 자세로 쟁점들에 대한 진지한 이 야기를 했기 때문에 많은 주제들은 의 견 접근이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두 가지 주제에 대해 입장차가 크다"며 "지난번(협상)엔 (미국 측과) 저녁도 같이 했고 4시간 이상 이야기 한 셈인데 미국 측에서 좀 완강한 부분 에 대해 본국에 가서 보고하고 다른 부 처와도 이야기하고 다시 오겠다는 것을 우리가 시사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협상이라는 것이 중요 쟁 점에 대해 각자 입장을 펴다 보면 잠정 적으로 어느 정도 (합의)했던 부분까지 후퇴할 수도 있고 해서 조심스럽다"고

그러면서도 "많은 쟁점들에 대해 어 느 정도 조율돼 있고 우리가 이번에 온 추가적인 주제에 대해 미국이 좀 더 진 지하게 이해해 준다면 좋은 결과가 있 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이 미국을 다시 찾은 것은 사 흘 만이며, 함께 입국한 김정관 산업통 상자원부 장관은 이틀 만이다.

김 실장은 3500억 달러에 달하는 한 국의 대미(對美)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 투자 이행을 트럼프 대통령 잔여 임기 인 3년 6개월 이상으로 분할하자는 것 "개별 주제, 아이템에 대해 저희가 어 떤 말도 한 적이 없다"면서 "우리가 반 복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한국이 감내 할 수 있는 범위 내, 이게 기준이고 다 연계된 문제라는 것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왼쪽)과 김정관 산업통 상자원부 장관이 22일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 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줄 충격이 커서는 안된다는 것 등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다 서로 연관된 문제"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한국은행이 달러를 투자 하더라도 한국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 지 않는 최저선이 150억~200억 달러라 고 한 데 대해선 "그런 것들은 우리 내 부에서 실무적으로 나간 이야기들"이 라며 "한국은행 분석도 있고, 기획재 정부 분석도 있고, 미국도 나름대로 국 제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도와 분석이 있어서 각자 분석들을 갖고 이야기하 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제는 관 세 협상도 중요하고, 한 · 미 간 투자도 중요한데 대한민국 경제에 충격이 있 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그래야 합의가 돼서 이행도 되는 것이다. 미국 도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것"이라 고했다.

김 실장은 이날 김 장관과 함께 하워 드러트닉미 상무장관을 만난 뒤 애틀 랜타로 이동해 곧바로 귀국길에 오른 다. 무박으로 미국과 막바지 협상을 벌 인다는 의미다. 그는 백악관에 들어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날 가 능성이 있느냐는 물음에 "아니다. 오늘 은 러트닉장관하고만 만난다"고 했다.

>> 관계기사 12면

김형구 기자

#### 에 미국과 교감을 이뤘느냐는 질문에 체류자의 H-1B 신청은 수수료 인상 대 수수료는 연방정부 결제사이트

한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 수수 료 인상은 '해외 거주 신규 신청자'에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발표

이민서비스국(USCIS)은 20일 세 부지침을 통해 "9월 21일 이후 접수된 H-1B 신청 가운데, 신청자가 미국 밖 에 거주하고 유효한 H-1B 비자를 소지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10만 달러의 수

수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국 내 체류자나 신분 변경자는 제외된다" 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유학생 등 합법 상에서 제외된다. 신분 변경이나 체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OPT(졸업 후 현 장실습) 중 H-1B로 전화하는 경우에도 인상된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기존 1000

달러였던 H-1B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 러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하지만 적용 대상이 불분명해 혼선이

(pay.gov)를 통해 선납하고, 영수증을 함께 첨부해야 한다. 납부 영수증이나 수수료 면제 승인 서류가 없으면 자동 으로 거부된다. 강한길 기자

571.623.0255

Annandale

보석 사공,시계 수리 703.988.0033 MENN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410-988-5523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 마우리 왓츠 & 단 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Watts & Park

# "교통사고는 왓츠 & 박"

### 40여년의 법정 변호사 경력 / 3대째 변호사 집안

한국어 상담 만 윤희 (Yoon Hee Ahn)

히스패닉 상담 Consultas en Español 하이디 살게로 (Haidee)



변호사 Maury B. Watts, III Of Counsel / Retired 마우리 왓츠



변호사 Dan D. Park 단박



변호사 Roopal Gupta 루팔 굽다



사무장 YoonHee Ahn 안윤희





▷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트럭사고, 자전거 사고 등 모든 교통사고 처리

▷ 사고로 인한 의료비 및 임금청구와 고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 해결 ▷ 차수리, 렌트카, 병원 등 모든 일체를 도와드림.

> 저녁 & 주말 전화상담 가능! Cell: 571-564-3282





703.256.8797 / 301.495.5619 / 410.783.1220 7010 Little River Tnpk., Suite 200, Annandale, VA 22003

# 북, 5개월여만에 탄도미사일 발사

북한이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 고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약 5개월 만 에 재개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2일 "우리 군은 오 늘 오전 8시 10분께 북한 황해북도 중 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 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며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 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 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 해 감시해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 적했다"며 "미국·일본 측과도 관련 정 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 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 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

워싱턴 지역 전체적으로 교사 부족현

교사 노조인 메릴랜드교육연합회

(MSEA)의 폴렘르 회장은 "메릴랜

드의 모든 카운티 교육청이 수백명에

서 수천명의 교사 채용공고를 냈다"

면서 "지원자가 적은 것은 아니었지

만 채용 자격 조건을 충족시키는 젊은

교사 지원자가 부족한 것이 문제"라

상이 나타나고 있다.

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사한 미사일은 동해상이 아 닌 함경북도 일대에 떨어진 것으로 전 해졌다.

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해 9월 18일 발사했던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화성 포-11다-4.5'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세부 재원을 분석 중이다.

화성포-11다-4.5는 '북한판 이스칸 데르'라 불리는 KN-23의 탄두를 키워 4.5t짜리 고중량으로 개량한 미사일이 다. 단거리 미사일이라는 점에서 대남 공격용으로, 이날 시험발사는 남측을 향한 무력시위 성격도 있는 것으로 풀 이된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출범이후처음으로,지난5월8일 화성-11형 등 여러 종류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섞어서 발사한 이후 167일 만

워싱턴지역 교사 부족현상 심각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교육청은 최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 등은 교

사 자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초임 연

봉 6만 달러를 제시하고 있지만, 채용

성공률을 높이는데는 여의치 않았다.

버지니아 스태포드 카운티 교육청

근 3200명 이상의 지원자가 몰린 대규

모채용행사를 개최했다.

올해 들어선 5번째 탄도미사일 발사 다. 특히 이번 미사일 발사는 도널드 트 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등의 내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 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방한

APEC을 계기로 열리는 한미·한중 정상회담 등에서 북한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 다. 북한이 5개월여만에 탄도미사일 발 사를 재개하면서 향후 미국 등으로부 터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도 발의 수위를 높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 도나온다.

이와 관련, 북한은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을 처 음 공개했는데 조만간 시험발사에 나 설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은 약 100여명의 교사와 20명의 전문

이 지역의 교사 초임 연봉은 약 5만

워싱턴DC 교육청은 비교적 높은 임

금으로 교사 유지율이 전국적으로 가

장 높지만, 여전히 전체 교사 정원의

13%가 채워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직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달러가 넘는다.

# 을 앞두고 이뤄져 주목된다.

#### VA주정부. 난방장비 관련비용 지원

겨울을 앞두고 난방장비가 고장난 가정에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 니다.

....

그런데 버지니아 주정부가 이렇 게 안전하지 않은 난방 장비나 작동 불가능한 난방 관련 긴급 상황에 직 면한 가구를 위해, 버지니아 사회 복지부(VDSS)와 버지니아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EAP)을 통해 지원 (Crisis Assistance)을 받을 수 있 다. 장비 관련 지원 및 보증금 신청

은 2025년 11월 1일부터 2026년 3월 15일까지 접수해야 하며, 난방 연료 및 공공 서비스 요금 청구서는 1월 첫 번째 영업일부터 3월 15일까지 접 수를 받는다

워싱턴 지역 단신

이러한 지원에는 난방 장비 수리 또는 교체, 보조 장비(예: 연료 탱 크), 보증금, 난방 연료 또는 공공 서 비스 요금 지불 등이 포함된다.

자세한 내용은 dss.virginia.gov/ benefit/ea를 방문하면 된다.

#### VA. 난방비도 함께 지원

기온이 떨어지면 난방비 부담은 배 가 된다. 그래서, 버지니아 사회복 지부(VDSS)는 버지니아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EAP)을 통해 자격 을 갖춘 가구에 연료 지원을 제공 하고 있다.

버지니아 주는 오는 11월 14일(금)

까지 신청을 접수를 받는다.

한편, 난방비 지원에는 나무, 석 유, 등유, 석탄, 프로판, 또는 난방에 사용되는 전기의 구매 또는 지불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dss.virginia.gov/ benefit/ea에서 확인할 수 있다.

#### VA주정부 결식아동 지원 프로그램

버지니아 'SUN Bucks'는 학령기 자녀의 식비 부담을 덜어주는 식료 품지워 프로그램이다.

버지니아 'SUN Bucks'의 지원 대상 아동은 대부분 신청서 작성 없

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지만, 일부 가정은 신청이 필요하다.

VirginiaSunBucks.com을 방문 하면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 용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다.

#### 연회장 위해 백악관 이스트윙 일부 철거

백악관이 20일, 연방 정부 기관의 건 설 승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널 드 트럼프 대통령의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연회장을 짓기 위해 대통령 부인의 전통적인 운영 기지인이스 트윙 빌딩의 일부를 철거하기 시작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 게 시물을 통해 공사 시작을 알렸다. 그 는 "현재 많은 공사가 진행 중이며, 주기적으로 소식을 들으실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10월 19일) 막 공사 가시작됐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백악관은 워싱턴 지역 정부 건물의 건설 작업과 대규모 리노베 이션을 승인하는 국가수도계획위 원회의 승인을 아직 받지 못했음에 도 불구하고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홍알벗 기자

### 월마트, 추수감사절 만찬 세트 출시…저렴 가격

10인용 40달러 이하

월마트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온 가 족이 함께 즐길수 있는 만찬 세트를 출 시했다. 10인용을 40달러 미만에 제공 해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세트 메뉴에는 버터볼 칠면조 를 비롯해 감자, 옥수수, 그린빈, 크랜 베리, 파이 재료 등이 포함됐다.

추수감사절 만찬 세트는 22일부터 크리스마스 당일까지 전국 월마트 매

위싱턴 날씨 (°F)

10월 23일(목)63-40



객은 온라인 주문 후 매장 픽업 또는 자택 배달을 선택할 수 있으며, 첫 주 문 고객은 1시간 내 무료 익스프레스 배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만찬 세트에 포함되는 물품은 버터 볼 터키 13.5파운드, 킨더스 프라이드 어니언 4.5온스, 캠벨 버섯 크림 수프 장과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는 데, 고 10.5온스, 스토브 탑 칠면조 스터핑, 트

27일(월) 55-44

29일(월) 58-43 🗭

28일(일) 54-46

윈 팩 2x6온스, 디너 롤 12캐럿, 적갈 색 감자 5파운드, 크랜베리 12온스, 아 기 당근 2파운드, 녹두 14.5온스, 마카 로니&치즈 12온스, 브라운 그레이비 믹스 0.87온스, 파이 크러스트, 증발 우 유,호박15온스등이다.

월마트 존 퍼너 CEO는 21일 "모든 가정이 품질과 전통을 포기하지 않고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가격 의 추수감사절 만찬 세트를 마련했다" 며 소비자들의 성원을 당부했다.

① 위싱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김윤미 기자



중앙일보 광고 및 구독 신청 문의 Tel. 703-281-9660

부동산 703-489-6926 SALE (독점) RENT FE



교통 좋은 알렉산드리아 3층 타운 홈 \$749,900 차고 2, 방 3, 화 3½

기차역 가까운 매나세스 3층 End 타운 홈 차고 2, 방 3, 화 2.2

## WWW.UMNLOAN.COM

# 신뢰받는 파트너 United Mortgage Nation과 함께 하세요!

"15개 주 Lender License를 보유하고 뉴저지와 조지아에 Local Office가 있어 다른 주에 투자 또는 이주시에도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의 꿈을 이루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24일(금) 61-39 🤲

25일(토) 60-39 🚓

26일(일) 59-43 🤲









Lender Licensed States (VA, MD, DC, NJ, GA, PA, TN, NC, AL, MI, FL, DE, WV, SC, CA)



대표전화:

703-204-0022 | 703-268-3954

**VA** Fairfax Office 3923 Blenheim Blvd., Unit 62A&B Fairfax, VA 22030

NJ Cherry Hill 1415 Route 70 E, Suite 502 Cherry Hill, NJ 08034

NJ Fort Lee Office 222 Bruce Reynolds Blvd., STE 590 Fort Lee, NJ 07024

**GA** Duluth Office 3483 Satellite Blvd, STE 208S **Duluth, GA 20096** 

NMLS#: 2425871 (회사)

# 신선한 농산물 직거래 장터 열려

#### 25일 워싱턴 밀알선교단

산지에서 직송한 신선한 농산물을 구입 하고 흥겨운 공연도 볼 수 있는 장터가 열린다.

장애인 후원 비영리단체인 워싱턴 밀 알선교단(단장 정진정 목사)은 오는 10 월 25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 지 메릴랜드 소재 선교단 사무실(13925 Travilah Rd., Rockville, MD 20850) 에서 농산물 직거래 장터(Big Farmers 밀알 Market)를 연다고 밝혔다.

정진정 단장은 "밀알선교단은 장애 인을 대상으로 한 선교단체"라며 "이 날 판매되는 농산물은 스마일 어니언 세븐(Smile Onion 7 Inc., 대표 제임스 리)사와 롯데플라자 이상자 씨의 후원 으로 공급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 단장은 "이날 판매수익은 모두 장 애인 선교 후원자금으로 쓰이게 될 것"

이라며 워싱턴지역 한인사회의 많은 관 식을 부탁했다.

행사장에서는 사과와 귤, 오렌지, 바 나나, 배, 포도 등 과일을 비롯해 고구 마, 감자, 호박, 배추, 무, 파와 같은 채소 등 40여가지가 판매된다.

그리고 장터국수와 김밥, 떡볶이, 김 치전, 삭힌고추무침, 무말랭이를 맛볼 수 있는 먹거리 부스와 함께 흥겨운 풍 악 공연도 곁들여집니다. **홍알벗기자** 

#### 워싱턴메트로 지역 인구가 최근 11년새 전

위싱턴메트로 지역 인구가 최근 11년새 9만명 증가해 전국 5위를 기록했다.

연방센서스 국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워싱턴메트로 지역은 2023년 7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모두 9만608명이증가해 뉴욕(21만3404명), 휴스턴(19만8171명), 달라스(17만7922명), 마이애미(12만3471명) 다음 순위에 올랐다.

위싱턴메트로 지역은 팬데믹 기간인 2020년 7월부터 2021년 7월 사이에도 인구가 소폭 증가했었다.

전국 387개 메트로 지역 인구는 1년 새 320만명(1.1%) 증가해 같은 기간 미 국 전체 인구 증가율 1.0%를 앞섰다. 전국적으로 메트로 지역 거주 인구 는 전체 인구의 86%인 2억9400만명이 어다

었다.
전체 인구 3100만명의 텍사스 메트로 지역 인구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플로리다의 메트로 지역 세곳은 4% 가 넘는 증가세를 보였다.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머틀비치 지역 은 3.8%, 노스캐롤라이나 월밍턴 지역 과 랄리 지역도 2.6% 증가했다.

노스캐롤라이나 샬롯 지역은 6만1천 명이 증가해 절대인구 증가 순위 11위 를 기록했다.

김윤미기자

### 메릴랜드 수족구병 확산에 공립학교 '비상'

#### 워싱턴카운티 일원 보건당국, 주의 당부

메릴랜드주 워싱턴 카운티에 수족구 균(HFMD)이 발생.확산하면서 공립학 교와 어린이집에 비상이 걸렸다.

메릴랜드 보건부가 21일 워싱턴 카운 티에 발병 사실을 알린 후, 보건당국이 발빠른 대처 움직임에 나섰다.

수족구병 증상은 발열, 구내염, 피부 발진 등인 데,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이 바이러스가 학교와 어린 이집에서 급속도로 확산된다고 밝혔다. 워싱턴 카운티 공립학교 측의 한 관

워싱턴 카운티 공립학교 측의 한 관계자는 "비슷한 집단 내에서 일주일 동안 3건 이상의 사례가 발생하면 발병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다"면서, 현재공립학교는 보건부와 협력 아래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 카운티 보건부는 "이 병은 특별한 치료법이 없다"며, 가을에 유행하는 다른 바이러스들처럼 아픈 아이가 있으면 집에 머물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엔테로바이러스에 의해 발병하는 수족구병은 주 감염대상이 면역

력이 약한 영유아와 어린 학생들로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등 집단시설에서 전파돼 집단 발병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수족구병의 원인이 되는 바이 러스의 경우 기온에 따라 활동성이 다 르기 때문에 가을철에 손발구균이 더 욱확산될 우려가 높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수족구병은 아직 특별한 예방백신이 없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손씻기 등 예방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 다. 김성한기자

### 백악관 보안게이트 돌진 남성 체포

워싱턴메트로 지역 1년새 9만명 증가

워싱턴DC 법 집행 당국은 21일 백악관 바깥 보안 장벽을 자동차로 들이박은 한 남성을 체포구금했다.

연방비밀경호국에 따르면, 이 남성은 이날 밤 10시37분경 백악관 입구 보안 게이트로 돌진했는 데, 즉시 출동한 경 호국 요원들에 의해 곧바로 체포됐다. 돌진 차량의 앞 범퍼가 떨어져 나간 상황이었지만, 이로 인해 사망자나 부 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를 수사 중인 사법 당국은 운전 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은 채 불법 침 입 및 정부 재산 파괴 혐으로 기소를 진 행하고 있다. 김성한기자



"깊어가는 가을 만끽했어요" 워싱턴청소년재단(이사장 김범수 목사)은 지난 20일 메릴랜드 풀 스빌 사과농장을 방문해 학부모와 함께 가을 현장학습을 진행했다. 김 이사장은 "단풍과 익은 사과를 보며 학생들은 자신의 색과 미래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재단은 방과후 수업과 멘토링 등 청소년 리더십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김윤미 기자

### 버지니아 SNAP 수혜자 82만5000명 '발동동'

#### 내달부터 혜택 중단

연방 정부 셧다운이 계속될 경우, 버지 니아주 식품 지원 수혜자들이 다음 달 푸드스템프(SNAP) 지원금을 받지 못 할 수 있다고 연방 노동부가 21일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SUP)의 일 환으로 SNAP 혜택을 받는 버지니아 주민은 82만5000명에 달하는 데, 이 중 에는 한인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SNAP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이 농산물, 육류, 유제품 및 기타 필수 가정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인 데, 수혜자는 평균적으로 187달러 (하루 약 6달러)의 선불 EBT 카드를 통해 물품 구입이 가능하다. SNAP는 연방 프로그램이지만, 수혜자에게 혜 택을 제공하는 일은 주정부 책임이다.

연방 노동부에 의하면 SNAP 지원 금은 이 달까지는 지급이 예정대로 이 뤄지고 연방 정부 폐쇄가 지속되면 11 월 지원금에 차질이 일어난다.

지난 1일 시작된 연방 정부 셧다운은 현재 4주 째로 역사상 두 번째로 긴 폐 쇄로 끝이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연방 의회 의원들은 이번 셧다운 이 역대 최장 기간이 될 가능성도 있다 고 예측하고 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연방의회예산국(CBO)는 연방 정부가 문을 닫은 기간 동안 약 75만 명의 연방 직원이 휴직할 수 있다고 내다봤는데, 이 중 14만7000명은 버지니아에 거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지니아 사회복지부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고, 연방 정부 폐쇄 기간 동안 식량을 구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주민은 '211 Virginia' 또는 'Virginia Food Bank Locator'를 이용하면 정보를 얻을 수있다 김성한기자



1-866-915-6664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쾼티**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 버지니아 열린 홈 헬스케어



# 센터빌 중심부에 열린 시니어 데이케어를 오픈합니다.

FDIC FDIC

5649 Mount Gilead Rd, Centreville, VA 20120

모든 것을 한 곳에서 케어 받을 수 있습니다

홈 케어

데이 케어

양로 호텔

가정 돌봄 센터



버지니아 열린 홈 헬스케어 / 대표 : 김 종 훈

Mobile (703)268-0107 / Office (703)280-0910 / Fax (571)487-8751 email: info@VAOHCARE.COM / General Inquiries: info@vaohc.com

# 기강 해이·민원처리 지연 문제 집중 따진다

오늘 LA총영사관 국감 재외국민보호 개선 필요 공관 사칭 사기 대책도

LA와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을 대상 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미주반의 합동 국정감사가 22일 LA총영사관에 서 진행된다.

이번 감사에는 김영배·김상욱·이재 정·강선우·홍기원 의원(이상 더불어민 주당)과 김태호 의원(국민의힘) 등 6명 의 감사위원이 참여해 김영완 LA총영 사, 임정택 SF총영사 등 캘리포니아주 주재 정부기관장을 상대로 업무 실태 를 점검한다. 국정감사에서는 총영사

관 비위 의혹, 민원 인력 부족, 공관 재 건축 예산, 재외국민 보호 및 공관 사 칭사기 대응 등 주요 현안이 다뤄질 전 망이다.

#### ▶성희롱·횡령 사건 '쉬쉬'

야당소속김태호의원은LA총영사 관 내 비위 의혹을 집중 질의할 예정이 다. 김 의원은 외교부 자료를 통해 LA 총영사관에서 발생한 '업무상 횡령, 직 장 내 괴롭힘·성희롱, 업무 불이행' 사 건을 확인했다.

총영사관은 기강 해이 지적에도 불 구하고 성희롱 내용, 피해자, 횡령액 등 구체적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김의 원은 "세계 최대 한인 사회를 관할하는 공관에서 공직 기강이 무너진 것은 심 각한 문제"라며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민원 급증·인력 부족

LA총영사관의 올해 상반기 민원 처 리 건수는 4만3651건으로, 지난해 8만 7419건의 절반 수준이다.(본지 7월 31일 자 A-4면)현재 영사 약 21명, 행정직원 30여 명이 민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인 력 부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한인 사회는 외교부가 인력 충원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팬데믹 당시 도입된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 예 약제를 유지해, 하루 처리량을 제한한 다는 불만도 제기된다. 공관 재건축 예 산 삭감도 과제로 꼽힌다. LA총영사 관은 유선엔지니어링을 시공사로 선정

해 설계 중이지만, 한인건축가협회와 건설협회는 "한인 전문가와의 소통부 족"을 지적하며, 삭감된 예산 한화 703 억원(약4910만달러)으로는지하1층. 지상 8층(7만7000스퀘어피트) 규모신 축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 ≫재외국민 보호

트럼프 행정부 이후 국토안보부 (DHS)의 단속 강화로 남가주 전역이 표적 단속 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로 인 해 LA총영사관 관할 내 체류 신분이 없는 한국 국적자 5명 이상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총영사관은 이민세관단속국(ICE) 의 단속 사실을 공지하고 영사 조력을 제공 중이지만, 체포자의 동의가 필요

해 적극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 온다. 전문가들은 "사후 대응보다 예방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재외공관 사칭 사기 급증

외교부에 따르면 재외공관 사칭 보 이스피싱은 올해 1~9월 23건으로 급 증했으며, 이 중 16건이 미주 지역에서 발생했다. 사기범들은 주미한국대사 관·LA총영사관의 대표번호를 도용하 거나, 실제 공관 직원·한국 경찰·검찰 을사칭하고 있다.

주미대사관과 LA총영사관은 주의 를 당부했지만, 피해 한인 일부는 "신 고후 공관의 대응이 미흡하다"며 체계 적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

### 캘프레시 11월부터 중단 위기

#### 연방정부 셧다운 여파

11월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영 양보충지원 프로그램(SNAP)'이 일시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캘프레시 (CalFresh·구푸드스탬프)'로 불리는 이 프로그램이 중단될 경우, 청소년과 시니어 등 약 550만 명의 가입자가 식 료품 구입에 즉각적인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0 일 "트럼프 행정부와 연방 의회가 오는 23일까지 예산안 합의에 실패해 연방

정부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이 지속 시'프로그램을통해 집행하고 있다. 될 경우, SNAP 예산 지원이 재개되지 않아 수백만 명이 생계에 필수적인 식 료품을 지원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지사실은 이날 "연방 정부 가 이미 11월분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금의 전산 처리를 보류하라고 지시했 다"고밝혔다.

현재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50개 주 는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예산을 전액 연방 정부에 의존하고 있다. 연방 농무 부(USDA)는 매년 약 1000억 달러 규 모의 SNAP 예산을 주별로 배분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는 이를 '캘프레

주지사실에 따르면 연방 정부 셧다 운 여파로 예산 지원이 확정되지 않자. 캘리포니아 사회복지국은 각 카운티 정부에 11월부터 캘프레시 지원금 지 급이 지연될 가능성을 통보했다. 이 경 우 가입자에게 발급된 식료품 전용 구 매카드(EBT)에 지원금이 자동 충전되 지않을 수있다.

뉴섬 주지사는 "생활에 꼭 필요한 식료품 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연방 정부는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공화당과 트럼프 행정부에 예 산안 합의를 촉구했다. 김형재 기자



저소득층 영양지원 프로그램인 캘프레시가 중단 위기에 놓였다. 21일 한 가족이 캘프레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인타운의 한 식료품점에 들어가고 있다. 김상진 기자

### 산불 피해자들, 보험·생계·퍼밋 막혀 삼중고

#### 10명 중 7명 임시 거처 거주 소득 10만불 이하 절반 식비↓ 더딘 건축 허가에 ADU 대안

지난 1월 발생한 이튼(Eaton)과 팰리 세이즈(Palisades) 산불이 발생한지 9 개월이 지났지만 피해 지역의 주민 다 수는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주거 불안과 주택보험 분쟁에 시달리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재건축 퍼밋 진행도 느려 서 건축 절차가 상대적으로 빠른 별채 (ADU)를 먼저 짓고 이를 임시 거처로

산불 피해 지원 비영리단체인 디파 트먼트 오브 에인절스가 피해 지역 주

민약 2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튼 산불 피해 지역인 알타데나 주민 의 80%, 팰리세이즈의 90%가 아직 집 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더욱이 알타데나 피해자의 67%와 팰리세이즈의 75%가 임시 거처에 머 물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몇 달 내 다시 이사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 험사의 임시 주거비 보상도 한계에 다 다르고 있다. 알타데나의 경우 보상금 을 못 받게 된 주민이 6월 9%에서 최근 12%로 증가했으며, 팰리세이즈는 13% 에서 20%로 급증했다.

보험사별 불만도 뚜렷했다. 캘리 사용하려는 주택 소유주가 늘어나기 포니아 페어플랜과 스테이트팜에 대 해 '매우 불만족' 응답이 가장 많았고, USAA와 파머스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주민들은 복잡한 손실 목록 제 출, 과소 견적, 담당자 교체, 소통 부재 등을 주요 문제로 꼽았다. 특히 주택이 완전히 소실되지 않은 경우, 부분 피해 감정에서 불만이 더 컸다.

정신적 후유증도 여전하다. 응답자

다수가 화재 이후 정신 건강이 악화 됐다고 답했으며, 14%는 우울증, 10% 는 불안, 5%는 약물 또는 알코올 사 용 증가, 4%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PTSD), 1%는 자살 충동을 호소한 것 으로 조사됐다.

미겔 산타나 디파트먼트 오브 에인 젤스 공동창립자는 "특히 연소득 10만 달러 이하 가정과 노년층의 피해가 심 각하다"며 산불 피해자들의 주거 및 재정 불안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실제 다. 로 연소득 10만 달러 미만 가구의 5가 구중1가구가식비를줄였고약6가구 중 1가구는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했다.

피해 지역의 복구 역시 더디다. 이 튼과 팰리세이즈 산불 이후 재건축 허 가를 받은 주택 수는 전체 피해 주택

한국 기업 미국 진출시,

미국 시장 진출전 지역 정하시기 전에 상담하셔야 합니다

• 한국 기업 전문 •

승경호 (K Soung)

한국어, 영어

주거용 부동산 경험 • 구매자 · 판매자 · 투자자 대상 전략 제공

(AKBFF) - 이사

부동산 에이전트 / 부동산 컨설턴트

버지니아 주, 워싱턴 D.C. 메릴랜드 메트로 지역

미국 Realty One Group Captal 미전국 8위 기업

**상업용 부동산 경험** ■ 멀티레스토랑 운영 관리 확보 물류 유통 칭고 임대 및 계약 진행

• 한국 스타트업 및 Ⅱ, 바이오 기업 미국 진출 지원 ■ SBA, NNN, TI 등 상업용 부동산 금융 · 계약 컨설팅 Innovation Highways: Strategies for Successful

Korea-US Entrepreneurship' 패널

■ 상업용 및 주거용 부동산 거래 경험 풍부

■ 워싱턴 DC 메트로 네트워크 활용 가능

American Korean Business Friendship Forum

■ 한국기업/개인대상미국사업확장및부동산전략자문가능

■ 상업용 부동산: 시무실, 리테일, 창고/공장 임대·매매

■ 주거용 부동산 타운하우스, 단독주택, 콘도 매매 · 임대

•국제투자자자원한국기업/개인미국진출부동산컨설팅

■ M&A (Wharton School) ■ 시업 확장 관련 부동산 자문

이름 / 영문 이름

거주/활동 지역

브로커리지

전문 분야

국제/투자 경험

활용 포인트

직업

언어

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난 9일 캐런 배스 LA시장실에 따르면 팰리세 이즈 지역에서 소실된 약 6000채 가운 데 재건설 중인 주택은 230채(3.8%)에 불과하다. 이에 일부 피해 주민들은 별 채(ADU)를 대안으로 선택하고 있다. ADU는 침실, 욕실, 주방, 거실, 세탁실 까지모두갖출수있으며건축승인후 공사 완료까지 평균 5~6개월이 소요돼 본체보다 빠르게 지을 수 있기 때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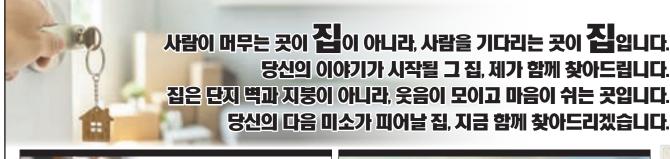
지난 19일 부동산 매체 리얼터닷컴 보도에 따르면 1월 화재 이후 본채보다 앞서 대체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 하는 새 규정이 시행됐다. 이에 별채 전 문기업 사마라(Samara)는 LA에서만 5000건이 넘는 ADU 건축 허가를 받 았다. 송영채 기자

기업 컨설팅

미국 전역 주재원, 사무실, 창고, 공장 전문

뉴욕, 텍사스, 테네시, 조지아,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메릴랜드, 워싱턴 디씨

용도부터 시설 설비, 기업 컨설팅 모두 도와드립니다



#### 커피 & 샌드위치샵

- 위치: 알링턴 지역 영업일: 주 7일
- 주매출: 약 \$20,000
- 렌트: \$11,000/월
- 안정적인 고객층을 가진 소형
- 규모: 120에이커 (약 48만m²) 시설: 테이스팅룸, 코티지, 창고, 와인 공장, 연못, 넓은 주차장 (104대 수용) 매매가: \$180,000 현황: 현재 영업 중인 유명 와이너리 매매가: \$7.500.000 커피·샌드위치 전문점, 빠른 인수 가능! 자연 경관이 뛰어난 프리미엄 와이너리. 관광·이벤트 운영 병행 가능.

#### 투자용 상가 건물

- · 매매가: \$8,000,000
- · 연 순수익: \$520,000 (Cap Rate 약 6.5%)
- · 임차인: 총 7개, 모두 5년 이상 장기 계약 중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춘 우량 상가. 투자자 강력 추첸

#### 냉동·냉장 창고 매물

· 위치: 메릴랜드 볼티모어

건축면허 소지 VA Class A Contractor

Tech Pulse Korea 대표

Cloud Papyrus 대표

· 면적: 16,000 SF · 설비: 냉동·냉장고 완비 · 매매가: \$1,500,000

버지니아 와이너리 사업 및 토지 매물

유통업, 식품물류, 온라인 배송업체에 적합한 최적 창고!

- - 리얼티원그룹 슈나이더팀 대표 "내집장만" 부동산 소식지 발행인 | 건축면허 소지 JK Schumann Inc 국제기업컨설팅 대표

### 703.928.5990





주택 매매 · 상업 투자 건물

사업체 매매·사업체 임대 계약

7925 Jones Branch Dr. #3100 Mclean, VA 22102 703,928,5990 □♠

Realty One Group은 미 전국에 15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일하는 미국 부동산 회사 입니다 워싱턴 최초 부동산 전문신문 "내집장만" 발행인





만나서 민소량상담하실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는

# 가주 청년 94%…정신건강 '심각'

블루쉴드, 14-25세 실태 조사 생활비 부담, 이민자 차별 등

가주 청소년과 청년층 10명 중 9명이 불안과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당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데 부담을 느끼거나, 지원 경로를 몰라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주 블루쉴드와 비영리단체 칠드 런나우(Children Now)는 지난 4월부 터 6월까지 14세에서 25세 사이 청소년 및 청년 750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실 태 조사를 실시했다. 최근 발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4%가 불안 과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었으며, 이 중 98%는 유색인종, 25%는 성소수자로 확인됐다.

가주 청년층이 호소한 주요 스트레 스 요인으로는 생활비 부담(주거·식료 품 등), 일자리 부족, 총기 폭력, 기후변 화, 인종차별 등이 꼽혔다. 특히 LA 지 역 청소년 및 청년층은 주거비 상승, 기 후변화, 이민자 차별을 가장 큰 스트레 스 원인으로 지적했다.

응답자의 3분의 1이상은 '부끄럽다' 는 이유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았 으며, 5분의 1 이상은 치료비 부담이나 지원 경로를 몰라 치료를 받지 못한 것 으로 드러났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9월 보고서에서 "청소년기는 신체적·정서 적·사회적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정 신건강을 취약하게 만드는 시기"라며 "우울증, 불안장애, 행동장애는 청소년 의 질병과 장애의 주요 원인으로, 방치 될 경우 성인기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 칠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한인 청소년과 청 년층의 경우 학업 부담, 사회적 압박, 가정 내 갈등, 따돌림 등이 정신건강 악 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신과 전문의 수잔 정 박사는 "청 소년기와 청년기는 감정을 조절하는 전두엽이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않아 불안과 스트레스에 취약하다"며 "특히 한인 청년들은 학업 경쟁과 조기 독립 에 대한 사회적 압박으로 인한 스트레 스가 가장 크다"고 말했다.

한인정신과의사협회 조만철 회장은 "학교 내 따돌림과 가정 내 갈등이 청 소년 우울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다"며 "이 같은 문제는 주변의 도움을 받기 어려워 증상이 더 악화되는 경향 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청소년 및 청년층의 주요 사망 원인은 질환, 사 고사, 그리고 자살"이라며 정신건강 문 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한인타운청소년회관(KYCC)의 그레이스 박 임상관리자는 "한 달에 약30건의 상담 요청이 접수되며, 대부분은 부모나 학교를 통해 의뢰된다"며 "정신건강 문제를 부끄럽게 여겨 직접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문제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윤서 기자

### 민족학교 사무실 BB탄 총격 피해

피격 당시 사무실엔 6명 3년 전에 유사 공격 받아

한인 비영리단체 민족학교(사무국 장 김진우)의 크렌셔 사무실(900 Crenshaw Blvd)이 최근 외부 공격을 받아 정문 유리창이 파손됐다. 인명 피 해는 없었으며, 범행 도구는 BB탄 총 으로 추정된다.

민족학교 측은 21일 "사건은 지난 20일 오전 11시30분쯤 발생했다"며 "사무실 앞 크렌셔 불러바드에 정차해 있던 차량에서 BB탄 총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무실과 도로 사이인도 폭이 약 20~30피트로, 근거리에서 공격이 이뤄진 셈이다.

사건 당시 사무실에는 직원과 자원 봉사자 등 6명이 근무 중이었다. 현장 에 있던 재클린 정 하우징 서비스 매니



김진우 민족학교 사무국장이 21일 민족학교 크렌 셔 사무실의 깨진 유리창을 살펴보고 있다.

김상진 기자

저는 "로비에서 '퍽' 하는 소리가 나 유리를 확인하니 금이 가 있었다"며 "자원봉사자가 차량을 확인하려 했지만이미 떠난 뒤였다"고 전했다.

보안카메라에는 현대 엘란트라로 추정되는 차량이 오전 11시30분부터

32분까지 사무실 앞에 정차한 장면이 포착됐다. 차량과 사무실 사이에는 행 인이 없었고, 총탄은 한 발로 추정된 다. 정 매니저는 "이중 유리 중 바깥쪽 만 깨졌지만 시간이 지나며 금이 퍼졌 다"고 말했다.

김진우 사무국장은 "BB탄 총이 범행 도구로 보인다"며 "경찰 수사 후 파편 분석으로 정확한 원인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정 단체나 개인과의 갈등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공격이 벌어진 것은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민족학교는 21일 LA경찰국(LAPD)에 신고했다. 베서니 레알 민족학교 부국장은 "온라인으로 반달리즘 사건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무실은 3년 전에도 BB탄 총격 피해를 입은 바 있다.

김경준 기지

### 미국방부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추가적 불법행위 자제하길"

국방부(전쟁부)는 22일 북한의 이날 탄 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히고 "더 이상의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만드 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 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 당국자는 연합뉴스의 질 의에 대해 보내온 서면 답변에서 "북한 의 복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인지하 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우리는 한국, 일본과 지역의 다른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긴 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이번 일이 미 국의 개개인, 영토, 동맹국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지만 상 황을계속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국자는 이어 "한국과 일본을 방어 하기 위한 미국의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한국시간 22 일 오전 8시 10분께 북한 황해북도 중 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 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여러 발 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지난 5월 8일 화성-11형 등 여러 종류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섞어서 발사한 이후 167일 만 이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도널드 트럼 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 석 등의 내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 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방한을 앞두고 이뤄져, 한미·한중 정상회담 등 을 앞두고 북한이 존재감을 보여주려 는 의도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 LAPD, 취재 기자에 무력 사용 못한다

시위 현장에서 기자들에 대한 LA경찰 국(LAPD)의 무력 사용을 금지한 법 원명령이 유지된다.

LA시의회는 지난 17일 긴급회의를 열고 LA시 검찰의 '무력 사용 제한 해 제 요청'을 즉각 철회하도록 하는 안을 가결했다. 이번 결정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만장일치 로 이뤄졌다.

이로써 LAPD는 기자를 상대로 한

고무탄, 최루가스 등 비살상무기 사용 이 금지된다.

이번 안을 발의한 유니세스 에르난 데스 시의원(1지구)은 "언론 자유는 민 주주의의 핵심"이라며 "LA는 결코 언 론의 권리를 억압하는 쪽에 서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9월 헤르난 D. 베라 연방판사가 내린 'LAPD 비살상무기 사용 금지 명령'에 대한 시 검찰의 반발에서 비롯됐다.

LA시 검찰은 "현장에서 기자를 식별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경찰의 판단이 제한 될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시의회는 "시장과 의회의 승 인 없이 시 검찰이 단독으로 소송을 진행했다"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고, 의원들은 "시 검찰이 시정부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 판했다.

강한길 기자

















### 머스크·NASA '달' 전쟁

달 탐사 '아르테미스 계획' 공방 머스크 '스타십' 계속 실패하자 NASA 수장 "타사 로켓도 가능" 머스크 "그는 IQ 두자릿수" 발끈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외풍에 흔들리고 있다. NASA 국장 대행을 겸 인 중인 '반(反)머스크파'인 숀 더피 교통장관과 달 착륙선 개발을 도맡은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 (CEO)가 공방을 벌이면서다.

더피 장관은 지난 21일 CNBC 인터 뷰에서 "스페이스X가 (우주개발) 일 정을 미루고 있다"며 "중국과의 경쟁 에서 뒤처질 수 없다. (스페이스X 말고 도) 다른 기업들에 (우주 개발의) 문을 열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 '아 르테미스 계획'에 시동을 걸어 중국과 '제2의 우주경쟁'을 벌이고 있다. 2027 년 이전에 달에 인간을 보낸다는 게 목 표다. 이 계획에서 스페이스X는 달 착 륙 시스템 구축을 맡고 있지만, 스페이 스X의 '스타십' 우주선 발사가 여러 차 례 실패하며 계획이 지연되고 있다. 반 면에 중국은 이미 달 뒷면 탐사선 '창어

(嫦娥) 6호'를 성공시킨 후 달 탐사용 로봇 개의 시제품 테스트에 벌써 착수 한 상태다.

더피 장관은 "우리는 기업 하나에 목맬 필요가 없다. (또 다른 우주개발 기업인) 블루오리진이 더 빨리 할 수 있다면 좋다. 우리는 중국보다 먼저 달에 캠프와 기지를 세울 것"이라고 폭 스뉴스에 말했다. NASA는 스페이스 X와 블루오리진 양사에 이달 29일까 지 개발 가속화 방안을 제출하라고 통 보했다고 한다.

머스크는 22일 X(옛 트위터)를 통 해 "스페이스X는 다른 어떤 기업보다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인다. 우리 없이 는 달에 갈 수 없다"고 발끈했다. 그러 면서 "(더피 장관은) IQ가 두 자릿수" 라고 거침없이 비난했다. 또 "NASA를 교통부 산하에 넣겠다는 발상 자체가 미친 짓"이라고도 지적했다. 더피 장관 은 NASA를 교통부 산하에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두 사람의 설전은 우주 개발을 둘러 싼 선의의 논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폭스뉴스 출신 진행자 출신인 더피 장 관은 지난 3월에도 항공교통관제사의 감축을 시도한 당시 정부효율부 수장 머스크와 한 차례 파워 게임을 벌였다.

이때는 더피 장관이 인력 감축을 막으 며한 차례 승리했다. 더피 장관은 기세 를 몰아 정식으로 NASA 국장 취임을 노리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핀테크 억만장자이자 스페이 스X 우주비행 임무를 두 차례 수행한 재러드 아이작먼이 유력한 NASA 국 장 후보로 거론되며 더피 장관의 구상 에 먹구름이 끼었다. 아이작먼은 머스 크의 지원사격을 받아 NASA 국장으 로 지명됐지만,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 프 대통령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낙마했다. 이후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 령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다시 유력 후 보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 13일 차기 NASA 국장 면접 자 리에서도 '반머스크' 더피 장관과 '친 머스크' 아이작먼이 설전을 벌인 데 이 어, 서로 백악관 인맥을 동원해 로비전 도 벌였다고 한다. 여론전도 치열하다. 아이작먼이 소셜미디어(SNS) 인플루 언서로 여론몰이를 한다는 비방이 나 돌자 익명의 소식통 발언으로 "대권을 노리는 더피 장관이 대중매체의 스포 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NASA 국장 자리를 노린다"는 음해성 발언이 미 언 론에 실렸다.

한지혜 기자

### 중국 서해 구조물에 잠수부…"군사활용소지"

중국은 "양식 시설" 주장하지만 검은색 고속보트와 인력 5명 확인 산소통 등 양식장선 사용 드물어 '남중국해처럼 서해 내해화 우려"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 (PMZ)에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에 서 잠수부 등이 활동 중인 정황이 우 리 측 해경 카메라에 잡혔다. 국회 농림 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공개한 국 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양경찰 청이 지난 8월 중국 불법 구조물 중 하 나인 '선란 2호'에서 총 5명의 사람이 서 있는 장면을 포착했다.

구조물 상단에 2명, 중앙 좌측에 2 명, 해수면과 맞닿은 계단에 1명이 각 각서 있는 모습이다. 특히 계단 위 사 람은 잠수복을 입고 산소통을 정비하 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바로 옆에는 고무보트 형태의 검은색 배가 떠 있다.

이 의원은 "잠수복과 산소통은 통 상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 고, 소수 인원만 탑승하는 고속정 등도 관측돼 일반적인 양식 조업으로 보이 지 않는다"며 "남중국해 사례와 같이 서해를 내해화하려는 작업이 될 수도 있고, 군사 목적으로 활용될 소지도 있 다"고 지적했다.

PMZ는 서해 중간 한국과 중국의 배 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해역이 다. 어업 활동만 허용되고, 시설물 설치 나 지하자원 개발 등은 할 수 없다. 하 지만 현재 PMZ에는 중국이 2018년과 지난해 각각 설치한 선란 1·2호와, 이를

위한 관리 보조 시설 명목으로 2022년 에 설치한 구조물까지 총 3개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구조물이 들어서 있다. 중국 정부는 줄곧 "연어 양식을 목적 으로 하는 순수 어업 목적의 시설물" 이란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 한 중국의 '알박기 시설'일 개연성에 무 게를 둔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 대학원 교수는 "헬기 착륙장까지 갖춘 PMZ 내 구조물에 사람을 상주시키려 는 중국 측 의도가 명확해졌다"며 "어 업 협정 위반이자 국제법 저촉이라는 점을 중국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도 "올 2월 중국이 우리 해경 조사단의 접 근 시도를 막았던 이유가 이제 밝혀졌 다"며 "엄연한 불법 구조물이기 때문 에 외교적 수단을 넘어 군사적·물리적 강제 철거도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했

여야도 한목소리로 정부 대응을 촉 구하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가 지난 6 월 중국 서해 구조물 규탄 결의안을 의 결했다. 이병진 의원은 "조현 외교부 장 관이 지난달 방중해 중국 왕이 외교부 장과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답을 얻지 못했다"며 "적극적으로 맞대응하지 않 으면 중국은 절대 철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농해수위원인 조 경태 의원도 "비례 대응을 약속한 정 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응 시설 예산 은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사실상 '서해 공정'을 용인하는 행위"라고 비 판했다.

이찬규 기자



중국이 서해에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선란 2호)에서 관리 인원이 포착됐다. 해양경찰이 지난 8 월 촬영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이 22일 국정감사에서 공개했다. 사진에는 일반 양식 장에선 보기 힘든 산소통과 잠수복을 입은 사람(원 안)과 고무보트까지 보인다.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에서는

정확한 진단후,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정성껏 집중 치료합니다."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고정

[사진 이병진 의원실]

### 베트남·일본 '오토바이' 전쟁

'오토바이 천국' 베트남이 내년 중순 부터 수도 하노이 시내에 내연기관 오 토바이 운행을 전면 금지함에 따라 일 본 정부와 오토바이 제조업체가 반발 하고 있다.

판 민 찐 베트남 총리가 "대기오염 수준이 심각하다"며 이같은 행정명령

을 발표한 것은 지난 7월이다. 하노이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전국으로 확대 한다는 방침인데, 자국 전기 오토바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 다. 베트남 시장의 80%를 차지하는 혼 다의 8월 판매량은 전월 대비 22% 감 소했다. 9월에도 전년 대비 두 자릿수

감소세를 이어갔다.

세계 최대 규모인 베트남의 오토바 이 시장은 올해 약 46억 달러(약 6조 5863억원) 규모로, 인구 1억 명 중 80% 가 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대 부분이 혼다를 비롯한 일본산이다.

혼다와 야마하·스즈키 등이 참여하 는 오토바이제조협회(VAMM)는 이 런 베트남 당국의 정책이 달가울리 없

장윤서 기자

Dr. 이형훈

-고려대학교 Biotechnology 졸업 -고려대학교 생명공학 대학원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Certified in Gonstead System

Practitioner (C.C.E.P.)

-Internship for ProteinOne's Lab at

(Mark H. Lee DC, CCEP, FIAMA)

UMCP and MedLink Hospital in Washington D.C.

 Certified in Gonstead Extremity Adjusting Certified Chiropractic Extrem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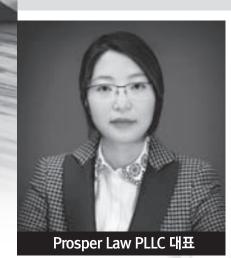
Fellow of International Academy of

-Worked for Gwinnett Medical Back &

-Licensed in Viginia Board of Medicine

Medical Acupuncture (F.I.A.M.A.)

Health Through LoveSpine Chiropractic Extremity Specialist



#### VA·MD·DC 면허

이력

- 대원외고 불어과 졸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타 대법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이혼 후 양육권/양육비/위자료 변경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lawpllc.com/)

####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 이민 (Immigration Law)

-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 전화 TEXT: 703.593.9246 11166 Fairfax Blvd, Ste. 406, Fairfax, VA 22030

MD 전화 TEXT: 443.901.8693 5457 Twin Knolls Rd., Ste. 300, Columbia, MD 21045 mkim@prosperlawpllc.com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oveSpine Chiropractic Clinic 척추사랑

진/료/과/목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운동상해/직장상해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lovespineclinic@yahoo.com

코리안코너에서 3분, 실버스프링 롯데 위튼 한아름(H-mart)에서 10분 거리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교통사고 <sup>필요이인 또는 교시를 교고 1.1</sup> 치료에만 전념하실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 센터빌/챈틀리 클리닉

◆ 발/무릎 통증/자주삐는 발목

◆임산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재활/물리/운동 치료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청소년 성장클리닉

필요하신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도와드려,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lovespineclinic@gmail.com

센터빌 롯데/한아름(H-mart)과 챈틸리 롯데에서 각각 5분거리



-I icensed in Marvland with Physical Therapy Privileges

락빌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OCT. 23<sup>RD</sup> - OCT. 30<sup>TH</sup>, 2025

LIMIT 2

O NONGSHIM
Snack Mix
농심 스낵믹스

17.9 **OZ/BOX** 

\$8.99

LIMIT 2

HELLO!
Laundry
Drying
Rack

헬로! 빨래 건조대

REGULAR 56 X 23 X 37 INCH/EA

*\$24.99* 

LARGE STAINLESS STEEL 61 X 30 X 78 INCH/EA

\$35.99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 MART

VIRGINIA

FAIRFAX

ANNANDALE

GENTREVILLE

FALLS GHURGH

BURKE HERNDON 1120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7885 HERITAGE DRIVE, ANNANDALE, VA 22003 13818 BRADDOCK ROAD, GENTREVILLE, VA 20121 8103 LEE HIGHWAY, FALLS GHURGH, VA 22042 8819 GENTREVILLE ROAD, MANASSAS, VA 20110 9550 BURKE ROAD, BURKE, VA 22015 1228 ELDEN ST., HERNDON, VA 20170

#### MARYLAND

CATONSVILLE
GAITHERSBURG
WHEATON
FREDERICK
ELLICOTT CLIY

800 NORTH ROLLING RD., CATONSVILLE, MD 21228
9639 LOST KNIFERD., GATTHERSBURG, MD 20877
12015 GEORGIA AVE., WHEATON, MD 20902
1063 W. PATRICK ST., FREDERICK, MD 21702
3301 NORTH RIDGE RD., ELLICOTT GUY, MD 21043

# 불법하도급에 무경험자 투입 국정자원 화재는 '인재' 였다

경찰, 업무상 실화 혐의 5명 입건조사 하도급 불가능한 배터리 이설공사 하도급에 재하도급까지 이어져

작업자 배터리 이설경험 전혀 없어 충분히 방전 안하고 공사 진행

국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는 불법 하도급 업체가 공사 를 진행한 데다 배터리 이설 경험이 전 혀 없는 작업자들이 투입된 것으로 드 러났다.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은 22일 브리 핑을 갖고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국 정자원 직원(담당자) 1명과 감리업체 관계자 1명, 공사업체 직원 3명 등 5명 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 이라고 밝혔다. 수사팀은 그동안 국정 자원 국장급 간부를 포함해 29명을 조 사했다.

수사팀은 관련자 진술을 통해 작업 자들이 매뉴얼(안전가이드)을 지키지 않은 데다 부속 전원(랙 차단기)을 차 단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한 사실을 확 인했다. 작업 과정에서 절연제품(부품)



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도 지키지 않

았다.

배터리를 사전에 충분히 방전시키 지 않은 채 작업했다는 진술도 확보했 다. 리튬 배터리를 분리할 때는 충전율 (SOC) 30% 이하 상태에서 작업해야 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재용 원 장은 지난 1일 국회 현안 질의에서 "사 고 배터리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충전 율이 기준인 30%보다 높은 80%인 것 을 작업자를 통해 확인했다"고 말한 바있다.

경찰은 작업자들이 배터리 이설작

업에는 처음으로 투입된 사실을 확인 했다. 작업자 대부분은 배터리 설치 경 험은 많지만, 대규모 배터리를 분리한 뒤 다른 곳으로 이설하는 작업 경험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작업자 대 부분이 전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뒤 동종 업계에서 경력을 쌓은 유경험자 로조사됐다.

배터리 신규 설치의 경우 충전율이 낮은 상태에서 이뤄진다. 반면에 이전 설치는 충전율이 높은 상황에서 이뤄 지다 보니 상대적으로 위험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경찰은 이설 경

험이 없는 작업자들이 소홀하게 작업 을 진행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 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작업자들 이 UPS(무정전·전원장치) 신규 설치 경험은 많지만 이설 경험은 없었다"고

지난달 28일 국정

자원 화재 때 불에

정확한 화재 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 구소 정밀감정 결과가 나오는 다음 달 하순께 밝혀질 것으로 전망된다. 배터 리 안정화 작업과 재충전과 방전, 재현 실험, 정상적인 배터리 여부 확인 등에 만한달가량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경찰은 화재사고 수사 과정에서 배

터리 이설 공사가 불법 하도급을 통해 이뤄진 정황을 확인했다. 전기공사업 법에는 하도급을 통한 사업이 불가능 하다. 하지만 조달청을 통해 국정자원 배터리 이설작업 공사를 공동 수주한 2개 업체는 제3의 업체에 하도급을 준 뒤 공사를 진행했다. 제3의 업체는 공 사를 또 다른 2개 업체에 재하도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를 최초 수주한 2개 업체는 하도 급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재하도급 한 업체의 직원이 서류상으로 퇴사한 뒤 자신들의 업체에 입사한 것으로 조 작한 사실도 밝혀졌다. 서류상으로는 최초 수주한 2개 업체가 공사하는 것 으로 꾸민 것이다. 이런 이유로 배터리 이설 과정에서 공사를 최초 수주한 2 개 업체 직원은 현장에 없던 것으로 확 인됐다.

경찰은 화재사고와 별도로 공사를 수주한 업체와 하도급 업체를 전기공 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사 과정에 규정을 지 키지 않은 부분과 불법 하도급이 이뤄 진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통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 "한국, 올해 쌀 15만t 지원···비타민·미네랄 넣어 만족도 98%"

"한국이 한세대(30년) 만에 수원국(원 조 받는 나라)에서 공여국(원조 하는 나라)으로 성장한 것은 유엔세계식량 계획(WFP)에 거대한 의미가 있다. 다 른 나라는 물론 여러 국제기구에도 큰 억원) 규모의 유엔 식품조달시장에 영감을 준다."

아니타 허쉬 WFP 아태지역 부본부 장이 1일 오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중 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경록 기

지난 1일 전북 군산항에서 열린 '2025년 식량원조 15만t 출항 및 영양 강화립 첫 수출 기념식'에 참석한 아니 타 허쉬 WFP 아시아태평양 지역 부본 부장이 서울에서 기자와 만나 들려준 소감이다. 그는 한국이 15만t의 쌀을 식량위기국에 원조하는 걸 기념하는 이번 행사에 참석했다. 한국은 1964년 부터 1984년까지 20년간 유엔으로부터 식량을 원조받았다. 2018년부터 WFP 에 원조를 시작한 이후엔 지난해 WFP 의 5대 정부 공여국으로 발돋움했다. 지난해 WFP가 조달한 쌀 30만t 중 3 분의 1(10만t)이 한국쌀이다.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15만t을 지

원할 뿐만 아니라 비타민과 미네랄을 넣어 가공한 영양강화쌀(FRK) 201t 도 처음으로 함께 공급한다. 국내 기업 이 연간 27억 5000만 달러(약 3조 9000 서 진출해 처음으로 입찰을 따낸 결과 다. 허쉬 부본부장은 한국이 WFP에 서 "빛나는사례(shining example)"라 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식량 위기에 직면한 전세계 인구가 3억 명이 넘는다.

"식량 위기 상황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경제 위기와 더불어 폭염, 홍수, 가뭄 등 기후 위기 그리고 분쟁이 동시 에 발생하고 있다. 이런 위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도움과 공여가 절실하다.

#### -아시아 지역에 원조하는 쌀의 80%를 영양강화쌀로 전환하려는 이유는.

"즉각적인 식량 수요에 대응하는 것 은 언제나 최우선 과제다. 동시에 영양 강화쌀은 수혜자들의 영양 문제, 특히 미량의 영양소 결핍 문제를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 유엔 식품조달시장에 한국 기업이 더



우간다에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이 제공한 한국 지원 쌀.

"한국 정부가 국내기업과 협업을 통 해 영양강화쌀을 수출하게 된 것처럼 민·관 협력이 중요하다. 유엔 조달시장 은 품질, 가격 그리고 당시 위기 상황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등이 복합적으 로 고려된다. 한국은 품질 분야에선 전 문성이 매우 높다. 이번을 계기로 한국 기업의 조달시장 진출을 확대할 발판

이 마련됐다고 몬다.

#### -한국쌀에 대한 만족도는

"사실 해외에는 장립종 쌀에 익숙한 수혜자들이 많기 때문에 단립종인 한 국쌀 지원을 시작할 때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품질, 포장, 도정 상태, 맛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한국 쌀은 95~98퍼센트 정도의 만족도를 기 록했다. 한국쌀은 항상 수요가 높다. 일

정한 시기에 공급되기 때문에 예측 가 능성이 높다는 것도 장점이다. 올해 15 만t이 조달되는데 보통 30개국 이상에 서 30만t 이상을 원하는 것으로 나온 다."

프랑스에서 태어난 허쉬는 대학에서 정치학·법학·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 한 뒤 민간 부문에서 경력을 시작했다. 컨설팅 회사 근무 시절, 유엔 외부감 사국으로 지정된 프랑스 정부의 요청 에 따라 감사 업무에 참여한 게 국제기 구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였다. 이후 유 엔난민기구(UNHCR), 유엔개발계획 (UNDP) 등을 거쳐 2014년부터 WFP 에 몸담고 있다. 한국은 첫 방문이지만 미국 뉴욕의 유엔사무소 근무 때 아들 권유로 함께 태권도를 배워 한국말로 숫자를 세는 데 능숙하다.

허쉬는 "유엔 각 기관이 지닌 전문성 은 실제로 취약한 지역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여전히 유엔이 국제사 회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이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그게 지금 까지 제가 유엔에서 근무를 하는 이유" 라고 덧붙였다. 위문희 기자



# 受養をみぬなり 11-0 = क्या के नाम के



410-370-4229 · 301-275-1494

\$649,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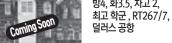
EMET.Inc NMLS #201332



#### \$589,000 방3, 화2.5, 차고1,

Hmart 인근. 29/Braddock/28/66





#### 3. 맥클린 콘도



방2, 화2, 1,050sqft, Mclean High, RT 495/66/267/7, Metro, Tysons Galleria 옆

\$409,000

#### 4. 사우스라이딩 타운

2014년, 방3, 화2.5, 차고2, RT50/606, Dulles Airport, RT28

#### 5. 게인스빌 골프 싱글 SOLD \$1,060,000

방4, 화3.5 차고 2

방3, 화3.5 차고 2

6. 빌더 새집 구매 확실하게 도와드립니다

Pending



1. Bristow 55+ single \$750,000

2. Haymarket 55+ Villa \$670,000

\$645,000



7. 우드브리지 싱글

121 121 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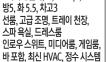
8. 도미니언 밸리 컨트리 클럽, 헤이 마켓 싱글 \$1,699,000

1997년, 방4, 화3.5 차고1,

뒷숲, 최고 학군, 전부 리모델링

포토멕몰/RT95, RT1, Rt234,

#### 1에이커 숲속, 6,700sqft,



#### 야외 리조트 스타일 \$460K 업그레이드

(야외 주방, 벽난로, 연못, 분수, 데크, 음향 시스템 등) 골프장, 클럽하우스, 수영장, 테니스, 산책로, 최고 학군

### 황계실 571-239-6054

####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건물·오피스·창고·상기

부동산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 B





13880 Braddock Road #103, Centreville, VA H마트 주차장 건너편 **703.543.2322 \* 855.870.1235** 

7023 Little River Tpke, #208, Annandale, VA 703.256.0606 • 800.551.9373

엘리콧시티 뜨레쥬르 제과점 옆 410.480.0100 \* 800.564.4429



서비스도 TOP 고객만족도 TOP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toptravelusa.com 인터넷보다 저렴한

채용 미동부 투어가이드 공고 사무직원(센터빌지점)

최우수한국항공권 소배, 도배 직판점 S KOREAN AIR

📐 D E L T A

한국 방문시 로밍 걱정 끝! 데이터, 전화, 문자 무제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무의: 703 543 2322

여러분을 **[H형버스**로 모십니다

3박 4일 | \$1090 (모두포함) | 1<mark>0월 28일</mark>회

·제출 할 곳:info@toptravelusa.com





나이아가라/토론토/몬트리올 퀘백/플래츠버그/뉴욕 나이아가라 폭포 옆 Hotel 숙박 5박6일 \$1350

나이아가라 폭포 옆 Hotel 숙박 스카이론타워 스페셜 특식(옵션)

2박 3일 \$650



3박4일 \$899 탑여행사 당일관광

1박 2일 \$399

워싱턴디씨 \$100 루레이동굴 \$125 루레이 티켓만 판매 \$25



탑여행사의자랑!! 서부 주요 도시와 3대 캐년까지 알찬 여행

8박 9일 \$1540+항공

서부 4CH 캐년 5박6일 \$990+항공**원을** 5CH 캐년+세도나 6박7일 \$1300+항공은 요세미타+샌프란시스코 5박6일 \$990+��

캐나다 록키 4박5일 \$1190+형공 알래스카 6박7일 \$1640+항공 (응발)

**옐로人톤** 3박4일 \$950+\*\*\* 🚼 📽 마운트 건**시모어** 3박4일 \$1090+황공 코스타리카연합 5박6일 \$1300+형



**출발:10/30(목),11/1(토)** 

\$199 +아미쉬마켓 당일 10/29,11/13,12/4





10박11일(제주포함) | **\$2990**+항공 8박 9일(내륙관광) | \$2490+항공

32년 전통 탑여행사가 야심차게 준비한 고국투어! 고국 방문의 명가 탑여행사가 모십니디

인천/부여/군산/전주/담양/순천/여수/광양/하동/진주 거제/부산/울산/경주/정동진/강릉/속초/김포/제주

2026년

1차 04/14~04/24 2차 05/11~05/21

3차 06/16~06/26 (영&한)

3박4일 \$1149+항공

5박6일 | \$1899+항공

4차 09/15~09/25

5차 10/13~10/23 6차 10/20~10/30

3박4일 | \$1149+항공

11박12일

11/3~11/14

11/01~11/06

11/08~11/13

7차 **10/27~11/0**6

- •워싱턴 최초 디럭스 28인승 리무진 우등 버스
- •**서울관광포함**(경복궁, 인사동)
- 모든 옵션 포함

여수해상케이블카/외도+해금강유람선 정동진 레일바이크+서귀포 유람선

•최고급호텔숙박, 바닷가호텔 오션뷰확정 콘래드서울/전주한옥마을라한호텔/여수소노캄/거제소노캄 부산 그랜드조선/경주 라한셀렉트/속초 롯데리조트/제주 롯데

●엄선된 호텔과 현지 식당 특식으로 대접합니다

### 을 꼭 비교해 보세요!





라한셀렉트 경주



소노캄 거제

일반뷰와 \$170차이

롯데리조트 속초 일반뷰와 \$180차이



Ѿ 나트랑/달랏 €

3박 5일 | \$450+항공

그랜드 조선 부산

일반뷰와 \$180차이

일반뷰와 \$250차이 ★ 특급호텔의 시설을 즐길 수 있도록 호텔에 일찍 도착하는 일정으로 운영됩니다.



[매주 2인이상 출발보장] | 서울 사무소 직영 운영 |

02/25~03/03

02/26~03/07

**03/16~03/28** 12박 13일

03/16~03/23

03/22~03/28

6박 7일

9박 10일

7박 8일

6박 7일

\* 2인 이상 출발보장

LH록 6박7일

한글 Tour \$1499+항공 영어 Tour \$1699+항공

인사이드 \$2990+항공부터~ /오션뷰-발코니요금문의

**서남관** 3박4일

한글 Tour \$829+항공 영어 Tour \$929+항공

동해안 4박5일

한글 Tour \$989+항공 영어 Tour \$1119+항공 제주도 2박3일 **을** 

한글 Tour \$549+항공 영어 Tour \$749+항공



한글 Tour \$1549+항공 영어 Tour \$1879+항공

전국일주 9박10일

한글 Tour \$2199+항공 영어 Tour \$2599+항공

06/09~06/17



방콕/파타야 3박5일 | \$490+항공

하노이/하롱베이🗟 3박 5일 | \$690+항공 다낭

3박 5일 | \$450+항공

대만 3박 4일 | \$690+항공

싱가폴

3박5일 | \$850+항공

TIME 1 - 13/2/

한양대학교(기본검진) 서울대병원(기본검진) 남/여 \$940 남/여 \$520

서울삼성병원(Primary) 세브란스(미국국적) 남 \$1340/여 \$1660 남 \$720/여 \$770

현대이산병원 경희대병원 가천대길병원

10/28~11/07 고품격 고국일주 6차 <mark>파강양박</mark> 10박 11일 \$2990+항공 튀르키예 일주 11/03~11/11 8박 9일 \$1899+항공, \$949+항공(동반자) **11/21~12/02** 11박 12일 이집트 두바이 \$3899+항공 11/23~11/27 추수감사절 특선 코스타리카 4박 5일 \$1190+항공 12/22~12/30 튀르키예 일주 \$1899+항공, \$949+항공(동반자) 8박 9일 크리스마스 특선 파리 일주 12/23~12/28 5박 6일 \$2490+항공 크리스마스 특선 이태리 일주 12/23~12/30 \$2490+항공 7박 8일

#### 2026

**01/21~02/02 신비의인도** 12박 13일 \$3790+항공 01/27~02/11 16박 17일 02/01~02/11 10박 11일 02/02~02/06 4박 5일 02/07~02/15 02/19~03/06

15박 16일

\$3790+항공

\$12500+항공

페루&우유니사막&파타고니아 \$9990+항공 호주&뉴질랜드 \$3190+항공

코스타리카 \$1990(항공포함) 바하마 크루즈(뉴저지 출발) \$1599(인사이드),\$1899(가려진 발코니) 아프리카&두바이

10박 11일 13박 14일 7박 8일 7박 8일 10박 11일

**04/14~04/24** 10박 11일 04/22~05/02 04/29~05/12 04/29~05/06 05/05~05/12 05/05~05/15 **05/11~05/21** 10박 11일 05/12~05/22 10박 11일 **05/19~05/29** 10박 11일 05/22~05/25

\$1290+항공

**2026**년 **अंग** पारा अध्कास 8박 9일 페루 일주 \$2990+항공 이집트 나일강 크루즈 \$3590+항공 남미 일주(브라질/아르헨티나/페루) \$5490+항공 브라질&아르헨티나 \$3190+항공 페루 일주 \$2990+항공 고품격 고국일주 1차 \$2990+항공 정통 서유럽 \$3590+항공 동유럽&발칸 크로아티아 \$4590+항공 정통 동유럽 \$2990+항공 발칸 크로아티아 \$2990+항공 그리스&튀르키예 \$3190+항공 고품격 고국일주 2차 \$2990+항공 스페인&포르투갈 \$3390+항공 서유럽 3개국 \$3590+항공 메모리얼 특선 옐로스톤

06/10~06/20 10박 11일 06/16~06/26 10박 11일 06/17~06/28 11박 12일 **06/20~07/03** 13박 14일 06/23~07/03 10박 11일 06/30~07/05 5박 6일 07/01~07/04 3박 4일 07/07~07/17 10박 11일 **07/14~07/22** 8박 9일 08/01~08/14 13박 14일 08/04~08/14 10박 11일 08/07~08/12 5박6일 08/13~08/19 6박 7일 09/04~09/07 3박 4일 09/08~09/18 10박 11일

스위스 알프스 일주 09/15~09/25 \$4590+항공 10박 11일 정통 서유럽 09/23~10/03 \$3590+항공 10박 11일 고품격 고국일주 3차(영&한) 09/29~10/12 \$2990+항공 13박 14일 영국일주 09/29~10/06 7박 8일 \$5890+항공 10/01~10/14 북유럽 4개국+발틱 3개국 13박 14일 \$5990+항공 북유럽 4개국 10/05~10/12 7박8일 \$4990+항공 **10/06~10/16** 10박 11일 독립기념일 특선 캐나다 록키 \$1690+항공 독립기념일 특선 옐로스톤 10/08~10/18 \$1290+항공 10박 11일 여름방학 특선 서유럽 10/13~10/23 10박 11일 \$3590+항공 **10/15~10/28** 13박 14일 아이슬란드 일주 \$6890+항공 북유럽 4개국+발틱 3국 10/20~10/30 10박 11일 \$5990+항공 북유럽 4개국 10/20~10/29 8박 9일 \$4990+항공 여름방학특선 캐나다 록키 10/27~11/06 10박 11일 \$1690+항공 알래스카 일주 10/27~11/06 \$2990(항공포함) 10박 11일 **10/27~11/06** 10박 11일 노동절 특선 옐로스톤 \$1290+항공 정통 서유럽 11/10~11/23 13박 14일 \$3590+항공

고품격 고국일주 4차 \$2990+항공 그리스&튀르키예 \$3190+항공 동유럽&발칸 크로아티아 \$4590+항공 정통 동유럽 \$2990+항공 독일 일주 \$5690+항공 발칸 크로아티아 \$2990+항공 스페인&포르투갈 \$3390+항공 정통 서유럽 \$3590+항공 고품격 고국일주 5차 \$2990+항공 프랑스 일주 \$5690+항공 고품격 고국일주 6차 \$2990+항공 튀르키예 성지순례(소아시아 7교회) \$2290+항공 서유럽 3개국 \$3590+항공 고품격 고국일주 7차 \$2990+항공 산티아고 순례길 \$3590+항공 이집트&이스라엘&요르단(시내산) \$3980+항공

해외여행은 출발 2개월전, 국내여행은 출발 3주전 결제하는 워싱턴 출발 요금이며, 모든 패키지 요금은 2인 1실 기준입니다. 상기 모든 내용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에 의한 일정 변경이나 취소는 책임이 없으며, 상품은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 집 안팔려 전세끼고 집 샀다는 이상경, 예금 29억 있었다

가용 예금으로 집 매입 가능한데 이 "갭투자와는 성격 달라" 해명

당시 매매 24건, 거래 활발했는데 이 "살던 집 잘 안팔렸다" 주장도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갭투자 (전세 낀 매매) 의혹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비판이 커지면서 10·15 부동 산 대책이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 려도 나온다.

이 차관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 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아파트(117 ㎡) 매입과 관련해 갭투자가 아니라고 항변하지만 정황은 뚜렷하다.

이 차관은 지난 6월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배우자 명의의 예금 24억 8038만원, 본인 명의 3억5254만원 등예금만 28억9177만원을 신고했다.

이 차관의 부인 한모씨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메타센테라퓨틱스 등 2억 3480만원어치의 주식도 신고했다.

이 차관 측은 지난해 7월 전세보증 금(14억8000만원)에 18억7000만원을 합쳐 33억5000만원에 달하는 이 아파 트를 매입했다.

국토부는 "이 차관이 원래 살던 아파 트가 잘 팔리지 않아 부득이 전세 계약 을 체결했다"고 설명했지만, 가용 예금 이 충분했던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 다는 지적이 많다.

이 차관은 또 해명 과정에서 "과도 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갭투자와 성 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대출 없이 현금 부자만 갭투 자 하라는 얘기나'는 비판 여론이 이어 진다.

원래 살던 아파트가 잘 팔리지 않았다는 해명도 석연치 않다. 22 일 중앙일보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 차관 소유의 성남시 수 정구 고등동 판교밸리호 이상경 반써밋 전용 84㎡는 지난해 7월에만 13 건의 거래가 이뤄지는 등 매매가 활발 했다. 그가 백현동 아파트를 매입했던 때다.

이어 백현동 아파트 잔금을 치렀던 지난해 12월까지 총 24건이 손바뀜됐 다. 고등동 아파트 호가가 오른 올해 6 월부터 10월 22일까지의 매매 건수(18 건)보다 많다.

이 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사는 "7년 차 준신축 아파트로 판교·분당, 서울 양재와도 가깝다"며 "한 달에 10건가 량 나가면 상당히 매매가 잘된 때로 본 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 아파트를 입각 직전인 올해 6월 7일 매도했다. 11억4500만원 에 팔았는데, 지난해 7~12월에도 비슷 한 가격대로 손바뀜됐다. 다른 중개사 는 "아파트가 전 고점 가격을 회복 못 해 팔기 아까웠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의 전 고점은 2021년 8월 14 억3800만원이었다. 이 아파트를 갭투 자자에게 판 것을 두고도 여론이 차갑 다. 이 중개사는 "집주인이 집을 팔면 서 전세로 들어가는 '주인 전세'는 일 반적인 매매 형태는 아니다"며 "갭투 자를 희망하는 매수자에게 급매할 때 주로 하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주 인 전세'는 10·15 부동산 대책 이후론 할 수 없는 매매 기법이다.

이 차관은 여론의 뭇매를 의식한 듯 이날 예정된 현장 방문을 취소했다. 오 후 2시 서울 미아동에서 열린 도심 공 공주택 복합사업 현장에 참석하기로 돼 있었지만 국토부는 전날 이 차관 대 신 공공주택추진단장으로 변경했다.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석좌교 수는 "주무 부처 당사자가 전세 낀 거래를 해 놓고, 다른 사람

낀 거래를 해 놓고, 다른 사람에게는 하지 말라고 하니 반발할 수밖에 없다"며 "정책 신뢰성이 땅에 떨어진 것"이라고말했다.

백민정·정은혜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왼쪽 사진). 같은 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 지도부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집값 발언'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임현동 기자

### 여당 "이상경 발언 부적절, 국민께 죄송" 첫 공개사과

당지도부 "이, 상임위서 혼날 것" 야당은 "내로남불 위선이자 오만"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발언으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민심이 크게 악화하자 22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 사과에 나섰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내 로남불의 위선이자 오만"이라며 맹공 했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이상경 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 려를 끼쳐드린 점, 당의 최고위원이자 (국회) 국토위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브리 핑에서 "본인은 수십억원짜리 집이 있 으면서 그렇게 말하면 집 없는 사람들 은 열받지 않겠느냐"며 "(이 차관이) 상임위에서 혼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수석은 이날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몰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차관은 지난 19일 한 유튜브 채널 에서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 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이 차 관 부부가 최근 전세를 낀 매매(갭투 자) 방식으로 분당의 33억원대 아파트 를 매입한 사실이 밝혀지고, 6억여원의 시세차익을 봤다는 의혹도 제기되면서 뭇매를 맞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자신 이 직접 위원장을 맡은 '부동산정책 정 상화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며 "586정권 위선자들이 자행한 잘못된 사회주의 경제 실험이 중산층과 서민,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를 번번이 걷어 찼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당 원내대 표부터 국토부 차관까지 자신들은 갭 투자의 사다리를 밟아 주요 지역의 부 동산을 가지고 있다"며 "(10·15대책은) 국민에게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며 윽박지르는 것"이라고 했다. 김효은 대 변인은 전날 "이 차관을 보면 굶주리던 프랑스 민중에게 '빵 대신 케이크를 먹 으라'고 했던 마리 앙투아네트가 떠오 른다"고 맹폭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이날 공동성 명서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포괄적 규 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 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했다. 중 앙정부 정책에 반발해 자치구가 단체 행동에 나선 건 이례적이다.

이날 성명엔 국민의힘 소속 15명만 참여했고, 민주당 소속은 전원 불참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소속 기초의원 들도 이날 규탄대회를 열고 "10·15 부 동산계엄은 즉각 전면 해제하라"고 요 구했다.

양수민·이찬규 기자

### 해킹 정황시 기업 신고 없어도 조사…"위기 준하는 비상사태"

정부가 급증하는 사이버 침해 사고를 위기에 준하는 비상 사태로 규정하고, 해킹 정황이 있을 때 기업 신고 없이도 조사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과징금을 올리고 이행 강제금과 징벌 적 과징금 도입 등 제재를 강화하는 한 편 1천600여개 정보기술(IT) 시스템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에 착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범부처 정 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민간과 공공 분야를 막론하고 반복되는 최근의 해킹 사고를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해킹 등사이버침해 사고가 있어도 은폐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해킹 정황이 확보된 경우에는 기업 신고 없이도 정부가 현장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제도를 개선한다.

해킹 지연 신고, 재발 방지 대책 미이 행, 개인·신용 정보 반복 유출 등 보안 의무 위반한 주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과징금 상향, 이행강제금 및 징벌적 과 징금 도입 등 제재를 강화한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에서 매출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데, 10%를 매기는 영국 등의 사례를 참 고해 제재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 토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과징금 수입은 피해자 지원 등 개인정보 보호

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 신설을 검토 한다.

정부는 공공·금융·통신 등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1천600여개 IT 시스템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에 착수하며특히 최근 해킹 사고가 잇따른 바 있고정보 유출시 2차 피해가 큰 통신사에대해서는 실제 해킹 방식의 강도 높은불시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2026 川口케어 플랜 기원 및 변경

www.UNIhealthplan.com

### ONE STOP FINANCIAL SERVICES

## UNI와 함께 하세요!!

최적의 메디케어 플랜을 찾는 데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메디케어 플랜 가입 및 변경, 전문가의 도움으로 더 쉽게! 상담에서 신청까지 무료! 라이센스 에이전트가 도와드립니다.



문로리 703-895-7648



이린다 443-515-8522



<del>안은신</del> 804-464-3662



이은경 571-303-9060



장미원 703-486-6082



**오경자** 443-690-4290



02 생명보험 03 메디케어

04 어뉴이티

05 롱텀케어

올바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선 올바른 교육이 필요합니다. UNI가 원스탑 재정 서비스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VA 페어팩스

11/1 (토요일@10am) 11/13 (목요일@7pm)

#### MD 엘리콧시티

10/8, 11/5, 12/10 (수요일@10am) 10/18, 11/22 (토요일@10am)



#### VA (Fairfax)

#### 703-865-8788 8949 Pender Dr. Suite 2

3949 Pender Dr, Suite 250 Fairfax, VA 22030

#### MD (Ellicott City)

### 410-995-8074

3277 Pine Orchard Ln Suite 3 Ellicott City, MD 21042

#### VA (Richmond)

#### 804-464-3662

14321 Winter Breeze Dr. Suite15 Midlothian, VA 23113

# "한국의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할 필요성" 미국과 공감대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 체(APEC) 정상회의에서 한·미 정상 이 대면할 예정인 가운데 양측이 관세 협상에서 이견을 좁히기 위한 막바지 협의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관세·안보 패키지 딜' 과정에서 안보 분야는 이미 사실상 합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는 데, 원자력 분야에서 "한국의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확대할 필요성"을 양국 정상이 확인할 전망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 다시 미국으 로 떠났다. 김 실장은 사흘 만, 김 장관 은이틀만이다.

김 실장은 "아직 양국 입장이 한두 가지 팽팽하게 대립하는 분야가 있다" 고 출국 배경을 설명했다. "쟁점이 남 아 있는 상태에서 특정 시점까지만 합 의된 내용을 가지고 양해각서(MOU) 를 맺는 것은 정부가 고려하지 않고 있 다"면서다. 대미 투자 펀드 3500억 달 러의 집행 방식과 시기 등 갈등 현안까 지 해결돼야 결과물을 낼 수 있다는 뜻 으로, APEC이라는 시점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취지다.

안보 분야의 합의 결과물 역시 관세 합의와 함께 발표될 것이라는 설명이 다. 한국의 국방비 증액, 한국의 농축· 재처리 권한 확대가 핵심이라고 한다. 김용범·김정관 재방미

김용범"일부만합의 MOU 고려 안해"

안보분야 합의 내용도 발표할 듯 원자력 협정 조기 개정 가능성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오른쪽)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 를 위해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 워싱 턴DC로 출국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유효기간이 10년가량 남은 원자력협정 을 조기 개정하는 방향성이 명시될 가 능성도 제기된다.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와 관련해 위 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꾸준히 언급해 온 '일본식 모델'의 핵심은 '포괄적 사 전 동의' 방식이다. 일본은 원자력 시설 의 운용 범위와 절차를 사전에 미국과 협의해 정해 두고,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건건이 승인받지 않고도 독자 적으로 농축과 재처리를 수행할 수 있

반면에 한 미 협정 제11조에는 "한 미 고위급위원회 협의에 따라 양측이 서면 약정을 체결하면 한국이 20% 미 만의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사안별 미국의 개별 허가가 전제 다.

이에 정부는 한국이 농축 혹은 재처 리의 주도권을 갖도록 협정을 개정하 는 '정공법'을 추진하고 있다. 외교 소 식통은 "현행 협정상으로도 미국의 승 인을 받으면 20% 미만의 농축은 가능 하지만, 지난 10년간 한국이 한 차례도 이를 요청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보여 주듯 실질적 자율권은 없다"고 말했다.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

수는 "차세대 원전으로 불리는 소형모 듈원자로(SMR)는 순도 19% 수준의 우라늄을 원료로 사용하다"며 "SMR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평화적 이 용범위내에서 농축권하이 필요하다" 고말했다.

다만 한국의 원자력 권한 확대가 글 로벌 '핵 도미노'를 자극하거나 국내 핵 무장론에 불을 지필 수 있다고 미국 측 이 우려할 가능성이 있다.

재처리의 문턱은 훨씬 높다.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과정에서 추출 되는 플루토늄은 핵무기 연료로 곧바 로 전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국내의 저장시설이 포화 상태라는 점 을 재처리 권한 확보의 주요 근거로 제 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진전된 반응은 "한국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수준이었다고 이 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외교부 보고를 근거로 중앙일보에 밝혔다.

결국 협정 개정의 큰 틀에 공감하더 라도 실질적 성과는 후속 협의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이를 위해 2018년 이후 중단됐던 한. 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HLBC)도 재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윤성민·박현주·김원 기자

### WSJ "대미투자액 3500억달러, 한국 3년간 GDP의 6.5%씩 내야"

"약속한 금액 너무 커, 비현실적" 미국내에서도트럼프협상비판

한 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 핵심 쟁점인 대미 투자 펀드를 두고 미국 내부에서 도 "비현실적"이란 비판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현지 시간) 사설에서 "투자 규모가 너무 커 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고, 미국의 통

치 구조와 재정 능력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며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 는 관세협상을 통해 한국에는 3500억 달러(약 500조원), 일본에는 5500억 달 러(약 78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타 결했다.

WSJ은 미 파이퍼샌들러 은행의 보 고서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간 한국은 매년 국내총생산

(GDP, 2024년 기준 1조7500억 달러)의 6.5%를, 일본은 4.4%를 쓰는 셈"이라 고 했다. 그러면서 "투자 약속 규모가 너무크다"고했다.

WSJ은 "일본은 매년 GDP의 1.8% 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한국은 2.3%를 국방비로 지출한다"며 "두 나라는 대 미 투자로 국방비 예산의 2~3배에 달 하는 금액을 약속했는데 이를 어디서

마련할 수 있나"며 의구심을 보였다. 이어 "지출에 앞서 일본과 한국 정부는 유권자와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여소야대 상태인 일본 정부가 이런 조 건으로 외국 정부에 수표를 건네리라 믿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WSJ은 "수천억 달러의 돈을 미국 대 통령이 마음대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전례는 과거에도 없었다"며 "민주당이

이같이 했다면 공화당은 반발하며 청 문회를 열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어 "머지않아 트럼프 대통령의 투자 펀 드도조사받을 것"이라고 했다.

WSJ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정치적으로 가까운 인사의 기업에 투 자하라는 정치적 압박을 피하기 어려 울것"이라며 부패 가능성도 시사했다.

전민구 기자

###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범죄수익만 93억원

'200명 규모' 직책·팀 나눠 중국인 1명, 한국인 2명 총책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들이 조직원으 로 있던 범죄조직이 중국인과 한국인 총책 아래 팀을 나눠 전기통신금융사 기(보이스피싱)·로맨스스캠·코인투자 리딩·공무원 사칭 납품 사기 등 각종 사기 범죄를 조직적으로 저지른 것으

22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충남 경찰청이 수사 중인 피의자들이 몸담 았던 범죄조직은 총 200명 규모로 중 국인 1명, 한국인 2명이 총책을 맡아 조 직을 이끌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인 조직원은 약 90명, 나머지는 중국인 등 외국인 약 100명으로 구성 됐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DB) 및 입

출금을 관리하는 CS팀·로맨스스캠팀· 검찰 사칭 전기통신금융사기팀·코인투 자리딩 사기팀·공무원 사칭 납품 사기 팀 등으로 나눠 범행에 가담했다. 총책 과 인력모집책, 일명 에이전시들은 인 터넷이나 텔레그램에 '고수익 알바' 등 의 홍보 글을 올리거나 개인적인 인간 관계를 이용해 "돈을 많이 벌수 있다" 고 접근하며 신규 조직원들 모은 것으

로조사됐다.

이를 수락하면 캄보디아로 출국하 는 항공권을 마련해 주고 공항으로 마 중나가 숙소로 데려온 뉘 여권을 회수 해 이탈을 막았다. 총책, 팀장 등 직책 에 따라 조직 내 위계가 정해지고 나름 의 통솔 체계도 엄격했던 것으로 전해 진다. 지각, 근무 태만 등 행위에 벌금 이 부과되고 외출 시 사진을 찍어 팀장 에게 수시로 보고해야 했다.

모든 소통은 텔레그램을 활용했는 데, 실적을 매일 보고하며 실적이 나쁘

면 조직원을 질책하고 이 과정에서 폭 행과 전기고문도 이뤄졌다.

피해금은 제3자 명의의 대포계좌를 사용했으며, 수익은 기본급 2천달러에 인센티브는 범죄수익의 8%를 기준으 로 각종 벌금을 공제하고 매달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에서 탈퇴할 경우에는 호텔·인 터넷 사용료 등 명목 금액의 2배를 내 게 했고, 휴대전화를 초기화시켜 조직 원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했

# 가정의학 / 노인의학 클리

• 처방전 관리(당뇨, 고혈압, 고지혈, 갑상선, 위장약, 기억력/치매, Pain Patches(Lidoderm, ZTlido, Flector, Pennsaid)

• 심전도 검사

◈ 종합 피 / 소변 검사

Xray / CT / MRI 리퍼럴

#### 24/7 전화 진료

전문 노인의학 / 일반 진료

건강백세+건강 지킴이 주사 (수액/정맥주사)

통증치료(체외충격파 / 치료 초음파)

치매(기억력) / 우울증 검사

°기력회복

®항산화

◦면역력 강화

◦상·하 기도 감염, 요로 감염



최지호, MD

-2006년 플로리다 대학교 가정의학 전문의 수료 -2013년 조지워싱턴 대학교 노인학 펠로우 수료

전화/문자/사진/비디오 0-232-5989 Fax: 703-662-6165

frontdesk@immediatehousecalls.com

가정의학/노인의학 전문의 -1995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immediatehousecalls.com

Annandale, VA 22003-3256

진료시간 월 ~ 수, 9am ~ 3pm

◦머리카락 & 피부 건강 ◦신경 안정

한방 치료 / 치료 마사지 (MD만 가능)

• 한방 치료

Ace Acupuncture 571-438-4644

Gaithersburg, MD 20877-1320

• 치료 마사지

MD

Healing Hands Massage

703-314-9461

메디케어 파트 B 받습니다. (ANTHEM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심혈관

뇌 건강(기억력, 집중력)

• 관절통 완화 & 염증 개선

4216 Evergreen Lane, ste 125

진료시간 목~금, 9am~3pm,

\*메릴랜드에서만 치료 마사지와 한방 치료가 가능합니다.

16051 Comprint Circle,



올 연말 사랑하는 분들께 **우메켄**을 선물하세요

우메켄 효소환 모델 강석우/나연신 부부

# 10%할인+무료선물

**\$98이상** 제품 구입시 **할인+선물** 



100억 유산균 **\$39** 





리포포-C **\$68** 

\$165이상 제품구입시 **할인+선물** 



발효 미네랄 L칼슘 \$69





건강다시 타쿠미 2박스 **\$56** 

할인혜택과 함께 **무료 선물**도 받으세요

# SALE +선물증정

베타글루칸 세트



\$539 \\$485

리포포세트



\$439 \\$395

효소환세트



\$439 \$395

L&B화장품세트



\$399 \\$359

<sup>L칼슘(\$69)</sup> 무료증정



타쿠미2박스(\$56) 무료증정





무엇을 선물할지 고민되시나요? **우메켄 기프트카드**로 건강을 선물하세요! 사랑하는 이들이 원하는 건강을 직접 선택할 수 있어 특별한 날, 진심을 담은 선물로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실속있는 연말선물 - **우메켄 기프트 카드** 

888 · 941 · 3311 umeken.com

\* These statements have not been evaluated b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to diagnose, treat, cure or prevent any disease.



# 건진, 김건희 목걸이·샤넬백 제출 …특검 "사용감 확실"

특검 '통일교 청탁 의혹' 물증확보 건진 "잃어버렸다" 던 입장 바꿔

문체위 국감선 '경복궁 어좌' 의혹 "김건희, 어좌에 1~2분 정도 앉아"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 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 물증인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확보했다고 22 일 밝혔다.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브리 핑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변호인 을 통해 6200만원 상당의 목걸이와 샤 넬백 3점, 구두 1켤레를 임의 제출받았 다"고설명했다.

전씨는 그간 검찰 및 특검팀 조사에 서 청탁용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 을 숨긴 채 "그라프 목걸이는 받자마 자 잃어버렸고, 샤넬백 2개는 샤넬 매 장에서 교환했으나 분실했다"고 주장 했다. 박 특검보는 "일련번호 등이 수 사과정에서 확인한 것과 일치했다"며 "(압수한 물건들이) 파손돼있지는 않 지만 사용감은 확실히 있다"고 설명했 다.

해당 목걸이 샤넬백 등은 통일교 측 이 한학자 총재의 승인을 받아 교단 현 안과 사업을 위해 김 여사에게 전달한 청탁용 물품이라고 특검팀은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씨는 지난 14일 첫 공판에서 "2022년 4월과 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 가 방과 천수삼농축차, 그라프 목걸이를 제공받아 김 여사 측 유경옥 당시 대통 령실 비서관(행정관)에게 전달했다"고 인정했다. 전씨 측은 유전 행정관을 통 해 목걸이와 샤넬백을 이후 돌려받았 다는 입장이다. 전씨는 수사 초기 혐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며 목걸이 등의 행방에 대해 "분실했다"는 주장으로 일관했었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특검이 확보했

다는 물건들은 김 여사가 수령한 사실 이 확인되지 않은 것"이라며 "수집, 제 출과정에서의 위법 또는 중간 회유·유 도가능성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고 반박했다.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 정감사에서는 김 여사가 평소 내부 출 입이 제한되는 경복궁 근정전 안에 들 어가 임금이 앉는 의자인 어좌(御座)에 앉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국 가유산청은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2023 년 9월 12일 김건희씨가 경복궁 근정전 에 방문했을 당시 어좌(재현품)에 앉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 시 김 여사는 광화문 월대 복원과 아랍 에미리트(UAE) 국빈맞이 행사 점검 차원에서 방문했지만 예정에 없던 경 회루·근정전 등을 내부 관람하며 최응 천 당시 국가유산청장과 이배용 전 국 가교육위원장 등을 대통했다.

당시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으로 김 여사를 수행했던 정용석 국립박물 관문화재단 사장은 이날 양문석 민주 당 의원의 관련 추궁에 처음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다가 결국 "(여사) 본인이 가서 앉으셨지 않았을까 싶다. 오래(는 아니고)…, 1~2분 정도"라고 답 했다. 이후 문체위에 제출한 답변서에 서 "김 여사가 어좌에 앉은 경위는 정 확하지 않으나 이 전 위원장의 권유로 앉은 것으로 기억된다"고 밝혔다.

한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은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이 있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에게 출석을 요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르면 다음주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 다. 특검팀은 추전 원내대표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국회 등을 압수 수색하기도 했다.

강혜란·정진우·김성진 기자



3600t급 디젤 잠수함 '장영실함' 22일 경남 거제 한화오션에서 열린 장영실함(SS-087) 진수식에서 해군 취타대 대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 기술로 독자 설계·건조된 3600t급 잠수함인 장영실함은 세계 최고 수준의 디젤 잠수함으로 수중작전 지속 일수가 향상됐다. [사진 해군]

### '시흥교량붕괴' SK에코플랜트·계룡건설 6개월 영업정지

작년서해안로건설현장서1명사망 건설사 "가처분 신청 등 법적대응"

국토교통부가 SK에코플랜트와 계룡 건설에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22일 국토부는 장관 직권으로 경기 시흥 월곶동 교량 붕괴 사고의 책임을 물어 두 회사에 이런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12월 1일 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다.

사고는 지난해 4월 30일 시흥 월곶 동 서해안로 우회도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설치 중이던 교량의 '거 더'(교량 상판을 얹기 위해 놓는 가로 보의 일종)가 무너지며 50대 근로자 1

명이 숨지고, 다른 근로자 5명과 시민 1명이 다쳤다. 영업정지는 면허취소 다음으로 강한 수위의 제재다. 영업 정지 기간엔 공공・민간 건설 사업 수주 가 모두 막힌다. 다만 처분 전에 체결된 계약이나 착공한 공사는 계속할 수 있 다.

이날 계룡건설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가처분 신 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공 시했다. SK에코플랜트는 "시공 품질 에 문제가 없었던 것이 (국토부 조사에 서) 확인됐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안

전관리 의무도 충분히 이행했음을 소 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건설사들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더라 도 수년간 소송을 거치며 유야무야 되 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은형 대한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새 정부 들어서 산재 사망사고 책임을 강화한 다는 기조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과거 와 달리 전반적인 처벌 수위가 강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는 산재 사망 관련 영업정지 요건을 완 화하고,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 사고 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정은혜 기자

### 다카이치 총리 취임날 위성락 방일 … '킹메이커' 아소 만니

아소, 다카이치 선출에 결정적 역할 위 '이대통령한·일협력의지' 전달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 취 임을 계기로 일본을 방문한 위성락(사 진) 국가안보실장이 현지에서 아소 다 로 전 총리를 만난 것으로 22일 확인됐 다. 아소 전 총리는 다카이치 총리가 선 출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킹 메이 커'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위 실장은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Vienna, VA 22182 dceye

지난 21일 일본으로 출국해 22일 아소 수 있는 인물이다. 위 실장은 아소 전 전 총리를 만났다. 외교 소식통은 "방 일 전부터 아소 전 총리의 면담을 추진 했다"고 말했다. 아소 전 총리는 자

민당 내 유일 계파인 '아소파' 가지난 4일 신임 총재 선거에 서 다카이치 총리에게 표를 더지도록 이끌었다.

그만큼 아소 전 총리 는 다카이치 총리에게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 의 한·일 협력 의지 등을 전하며 다카 이치 내각에 협력을 요청해 줄 것을 당

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한 협력위 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아소 전 총리는 다음 달 11일 제주에서 열리 는 한・일 협력위원회의 합동 총회 에도 참석한다. 아소 전 총 리의 방한은 2년 반 만이

이번 방일에서 위 실장은 일본 국가 안전보장국(NSS)의 전현직 국장인 이 치카와 게이이치 현 국장과 오카노 마 사타카 전 국장도 만났다.

위 실장은 이치카와 국장을 만나 새 내각하에서도 한・일 관계의 안정적 발 전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또 양국 정부 간뿐 아니라 국회, 민간 등 다양한 채널에서 소통과 협력을 이어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한다. 이시바 시게루(石破

茂) 전 총리 시절 국가안보국장인 오카 노전 국장은 위 실장과 가까운 사이다. 이시바 내각 당시 한 일 관계 복원을 위 해둘은자주소통해왔다.

대통령실 고위급 인사가 일본 총리 취임에 맞춰 일본을 방문하는 것은 이 례적인 일이다. 주로 일본 총리 취임 땐 외교부 인사나 주일 한국대사가 축하 의사를 전달하는 게 일반적이다. 대통 령실 관계자는 위 실장의 방일에 대해 "그만큼 이재명 정부가 한·일 관계가 내각이 바뀌어도 계속 발전해야 한다 는강한의지를갖고있는것"이라고설 명했다. 윤성민 기자





Pittsburgh, PA 15203

대한민국 △1万 중앙일보 2025년 10월 23일 목요일

# 캄보디아 대사관, 제 발로 온 '120억 스캠 총책' 그냥 보냈다

스캠 총책, 여권 연장하려 찾아와 대사관 "적색수배라 안돼" 알려줘 국감서 "도주 도운 것 아니냐" 맹공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이 제 발로 찾 아온 '적색 수배자'를 풀어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수배자는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로맨스 스캠(연 애 빙자 사기) 조직을 운영해 약 120억 원을 가로챈 조직의 총책인 강모(31)씨 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만 약 100명이 다. 당시 대사관은 현지 경찰에 신고하 지 않고 강씨를 그대로 돌려보낸 것으 로파악됐다.

22일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서 나온 이야기를 종합하면, 지난해 11 월 강씨는 여권 연장을 위해 주캄보디 아 한국대사관을 방문했다. 당시 강씨 는 인터폴 적색 수배 상태였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강씨는 배우자 안모(29)씨와 함께 로맨스 스캠 조직 을 운영하며 피해자 약 100명을 상대로 1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대사관 소속 경찰 영사는 강 씨에게 적색 수배 사실을 통보한 뒤 별



국감장 나온 동남아 4국 대사·대사대리 22일 캄보디아 프놈펜의 주캄보디아 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박용민 주태국·최 영삼 주베트남 대사, 김현수 주캄보디아 대사대리, 정영수 주라오스 대사(앞줄 왼쪽부터)가 질의를 듣고 있다. 김 대사대리는 이날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납치·감금 신고 550건 중 약 100건은 해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른 조치 없이 귀가시켰다. 당시 강씨 가 여권 발급이 왜 안 되는지 묻자 "수 배 사실이 있다"고 알려줬다. 이에 강씨 는 귀국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자수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대사관 측은 출 국시 밟게 될 절차와 체포가능성을 안 내한 뒤 한국의 담당 수사관과 직접 통 화 연결까지 해주고서 풀어줬다. 당시 울산남부경찰서 김필진 경위는 강씨의 강제 송환 또는 신병 확보 방안을 문의 했다. 하지만 대사관 측은 "수배자라고

해서 (현지) 경찰을 불러 체포하는 것 다가 올해 초에야 현지 경찰에 사건을 은무리다"고답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준형 조국혁신 당의원이 "대사관이 강씨의 도주를 오 히려 도와준 것 아니냐"고 묻자 김현수 주캄보디아 대사대리는 "당시 경찰 영 사의 판단에 인터폴 적색 수배는 즉각 적인 체포영장의 성격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강씨는 대사관을 빠져나간 뒤 자수하지 않고 잠적했다. 대사관은 약 3개월 동안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 통보했다

강씨 부부는 지난 2월 초 현지에서 체포됐다가 6월 초 한 차례 석방됐다. 법무부는 7월 말 수사 인력을 보내 현 지 경찰과 함께 강씨 부부를 체포했다. 현재 이들은 캄보디아에 구금된 상태 다.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캄보디아 측 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지만 무산됐 다. 전날 캄보디아 법무부 차관과의 면 담에서 송환을 재차 요청했다.

한편 이날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 위원회에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고문 을 당해 숨진 한국인 대학생 박모(22) 씨 사건의 주범이 2023년 발생한 '서 울 강남 학원가 마약사건' 총책의 공 범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캄보 디아 스캠 범죄에 가담한 한국인 수를 1000~2000명으로 추산하고, 캄보디아 경찰청이 지난 6~7월 검거한 전체 스캠 범죄 피의자 3075명 중 한국인은 57명 이라고 보고했다.

정보위 간사인 박선원 민주당 의원 은 "스캠 범죄단지는 프놈펜·시아누 크빌을 비롯해 총 50여 곳에 달한다고 (국정원이) 파악했다. 여기에 가담한 범죄 종사자는 약 20만 명으로 추산된 다"고 전했다. 그는 "이 범죄 조직들은 2023년 캄보디아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수준인 125억 달러에 달하는 범 죄 수익을 챙기고 있을 정도로 비중이 크고 범죄가 만연하다고 한다"고 덧붙 였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정보위 간 사)은 "국정원은 송환된 50여 명의 한 국인도 (캄보디아 스캠) 범죄에 가담한 사람이라고 보는 게 객관적일 것 같다 고설명했다"고 전했다.

문상혁·김윤호 기자

### "북한, 미 제재 받은 캄보디아 후이원 통해 해킹자금 세탁"

북, 후이원페이로 8500억원세탁

북한이 정부 사이버 조직과 IT 노동자 를 동원해 탈취한 암호화폐를 현금화 하면서 캄보디아 금융 플랫폼 후이원 (Huione) 페이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 났다. 후이원 페이는 인신매매와 감금 등 의혹이 불거진 프린스그룹의 자금 세탁 통로로 지목돼 미국의 금융 제재

한·미·일 등 11개국이 참여한 '다국 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은 이 같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실태를 담은 보고서를 22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암호화폐 탈취와 자금 세탁의 주축은 북한이 당(군수공 업부)·군(정찰총국)·정(원자력공업성) 산하에 운영하는 사이버 조직이다. 이 들은 먼저 투자자, 사업가, 채용 담당자 로 위장한 뒤 타깃과 접촉해 악성 소프 트웨어를 내려받도록 유도했다. 관련업 계 종사자 등을 상대로 가짜 면접을 진 행하고, 원격 취직한 뒤 이익을 얻었다.

이를 통해 북한이 지난해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탈취한 암호화폐 규모는 28억4000만 달러(약 4조원)에 이른다. 특히 올해에만 16억5000만 달러(2조 3000억원) 규모의 암호화폐를 탈취했



지난 16일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후이원 은행 앞. 최근 미국은 이 은행을 범죄 조직의 자금 세탁 통로로 지목했다.

다. 북한은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활용해 안보리 제재가 금지한 무기 및

관련 물자, 원자재 거래를 하고 있다고 MSMT는 설명했다. 북한은 암호화폐 를 해외 브로커를 통해 현금으로 바꿨 다. 주로 중국 금융시스템 유니언 페이 (Union pay)를 사용했다고 한다.

특히 캄보디아 후이원 페이도 활용 한 것으로 MSMT는 파악했다. 이를 위 해 북한 정찰총국 관계자들은 2022년 부터 후이원 페이 직원들과 밀접한 관 계를 이어왔다. 이는 지난해 5월 일본 DMM 비트코인 등으로부터 탈취한 3760만 달러(약 500억원) 상당의 암호 화폐를 후이워 페이로 세탁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 2022년 3월엔 북한단체

청송연합이 베트남 게임회사인 엑시 인피니티(Axie Infinity)를 해킹해 탈 취한 6억 달러(약 8000억원)를 후이원 페이로세탁하기도 했다.

MSMT 참여국들은 지난해 10월과 12월 후이원 페이가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 단체를 지원하고 있다며 캄보디 아 정부에 우려를 제기했다. 캄보디아 중앙은행이 후이원 페이의 라이선스 를 박탈했지만, 후이원 페이는 여전히 운영 중이라고 한다.

이날 MSMT 11개국은 공동성명을 내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들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보고서 전문은 웹페이지(https://msmt.info) 를 통해 일반에 공개됐다.

#### 이 대통령 "게임산업에 비해 담당부서 너무 작다" 확대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게임업계 와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에 게 임 산업 주무기관 확대·변경 검토를 지 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복수의 게임업계 관계자에 따 르면 이 대통령은 15일 서울 성동구 '펍 지 성수'에서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서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 방준혁 넷마

블이사회 의장,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 표 등 게임사 창업자, 경영진 등으로부 터 업계 고충을 청취했다. 한 참석자는 이 자리에서 구글플레이·애플 앱스토 어 등 글로벌 플랫폼의 수수료 징수가 과도하고, 이들 플랫폼과 업계 간 소통 이 원활하지 않다는 고충을 토로했다 고 한다. 이 대통령은 "지금 이런 문제

에 대해 업계와 소통하고 관리하는 기 관이 어디냐"고 물었고, 최휘영 문화체 육관광부 장관은 "콘텐츠진흥원 내부 에 담당 부서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게임 산업의 크기, 관련 이슈의 중대성에 비해 너무 작은 것 같 다. 주무기관을 확대하거나 변경하는 방안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고 지시했

다. 지난 3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 한 '2024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국내 게임 산업 규모는 약 23조원(2023 년 기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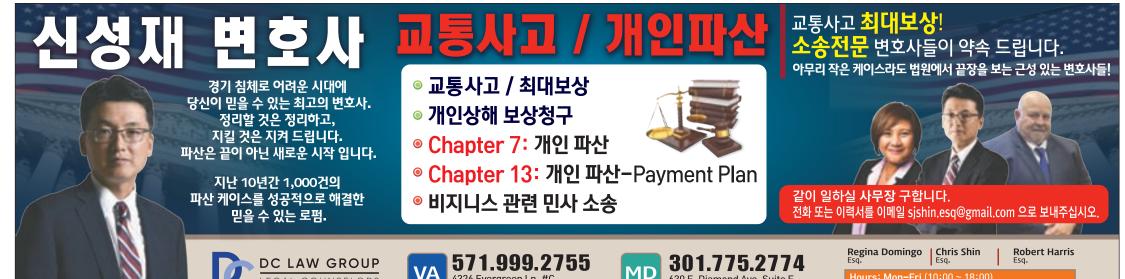
중국 정부의 자국 게임 보호방안 등 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중국 정부 가 외자판호(해외 게임의 중국 내 서비 스 허가권) 등을 활용해 한국 게임사 의 중국 진출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는 반면, 우리 정부는 중국 게임에 대해 법

적인 이용자 보호 조치마저 강제하지 않아 불공평하다는 것이었다. 이 대동 령은 "중국과 한번 대화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김창한 대표는 "허리 역할을 하 는 중소형 게임사들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들의 성장을 돕는 게 임 전용 정책 펀드가 만들어진다면 크 래프톤도 매칭 투자를 고려할 수 있다" 고 발언했다. 정용환 기자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4326 Evergreen Ln. #C

#### 우리말 바루기

#### '여쭙다'와 '여쭈다'

긴 명절 연휴를 맞아 오랜만에 고향을 여 유롭게 방문해 일가친척들의 얼굴을 두루 두루 만나고 왔다는 이가 많다. "연휴가 길 어 고향에서 부모님뿐 아니라 오랫동안 만 나뵙지 못했던 친척 어르신들을 만나 그동 안의 안부를 여쭙고 왔다" "오랜만에 고향 을 방문해 부모님과 함께 친척 어르신 댁을 돌며 인사를 여쭈고 다녔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그런데 웃어른에게 말씀을 올리는 일을 나타낼 때 위에서처럼 '여쭙다'라고 하기도 하고, '여쭈다'라고 하는 이도 있다. 어떻게 써야 바른 표현일까. 둘중 하나는 틀린 표 현 같지만 둘다 바른 표현이므로 고민하지 말고 아무거나 써도 된다.

'여쭙다'와 '여쭈다'는 모두 표준어로 인 정된 복수 표준어로, 이는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 어 규정에 맞으면 그모두를 표준어로 삼는 다는 규정(표준어 사정 원칙 제26항)에 따 른것이다. '여쭙다'와 '여쭈다'는 상대를 높 이는 존댓말이므로 높임법에 주의해 써야 한다. "나는 매일 부모님께 아침 문안을 여 쭙는다"고 쓸 수는 있어도 "부모님께서는 나에게 매일 아침 문안을 여쭙는다"고 쓸 수는 없다. 다시 말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게 사용할 수는 있지만 윗사람이 아랫사람 에게 사용할 수 없는 단어라 할 수 있다.

####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 낀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 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 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 ①중앙일보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홍알벗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재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 디케의 저울

#### 미국에는 왜 왕이 없는가

지난 18일, 미국 50개 주에서 동시에 'No Kings' 시위가 열렸다. 그 범위와 규모는 실로 거대했다. 50개 주 전체에서 2500여 곳에서 약 700만 명이 참여했다. 워싱턴 DC, LA, 뉴욕, 보스턴, 시카고 등 대도시 뿐만 아니라 소도시와 농촌 지역까지 집회가 열렸다. 예를 들어 일리노이주 알튼에서 도수백명이 마을 광장에 모였다.

이처럼 전국 방방곡곡에서 동시에 터져나온 시위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대한 대중적 우 려가 광범위하게 확산됐음을 보여준다.

이들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대통령의 권한 을 넘어 절대 권력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했 다. 특히, LA, 시카고, 포틀랜드 등 주요 도시에 군 병력을 배치한 조치는 미국 역사상 유례없는 반민주적 행위로 여겨졌다.

"미국에 왕은 필요 없다(No Kings)"라는 구호 를 들으면서, 자연스레 한가지 의문이 생긴다. 미 국에는 왜 왕이 없을까?

오늘날 우리에게 '미국에는 왕이 없다'는 사실 은 너무도 당연해 보인다. 하지만 18세기 독립 당 시에는 전혀 새로운 정치적 실험이었다. 세계 어 디에도 '왕 없는 나라'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왕의 부재는 곧 혼란과 무정부를 의미하던 시절 이었다. 그래서 미국의 건국은 단순한 독립전쟁



김한신

이 아니라 왕정에 대한 근본적 저항이자, 인류 정 치사에서 전례 없는 공화정 실험이었다.

독립 직후에도 많은 이들은 여전히 '왕 없는 나 라'에 대한 불안을 지우지 못했다. 실제로 많은 이 들이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이 아닌 '조지 1 세'가 될 것이라 예상했다. 그만큼 사람들은 왕이 없는 국가를 상상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하지만 워싱턴은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았다. 그는 세 번째 임기를 제안받았지만 단호히 거절 하며, "자유국가의 지도자는 종신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남겼다. 그의 자진 퇴임은 미국 정치문화에서 '왕 없는 권력', 즉 제한된 권력의 전통을 확립하는 결정적 순간이었다. 그 후 미국 헌법은 권력 집중을 막기 위해 삼권분립을 명문 화했고, 대통령의 임기도 4년으로 제한했다. 그러 나 프랭클리 루즈벨트 대통령이 4차례 연임에 성

공하자, 1951년 제22차 수정헌법이 통과되어 대통 령은 2번 이상 선출되지 못하도록 제한되었다. 이 조항은 대다수의 헌법학자들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하지만, 여전히 논란의 여지를 남긴다. 예 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연속이 아닌) 한 차례 휴지기를 둔 뒤 다시 출마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둘 러싼 법적 해석 논쟁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번 'No Kings' 시위가 시사하는 것 은 단지 3선 여부의 문제가 아니다. 시위대는 대통 령의 군사적 조치와 권력 집중이 헌법이 보장한 민주주의 원리를 흔들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이를 국가 안보와 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한 조치로 본다. 이처럼 '민 주주의를 지키는 방법'에 대한 시각 차이가 미국 사회를 갈라놓고 있다.

미국에 왕이 없는 이유는 단순히 왕을 몰아냈 기 때문이 아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헌법과 법치, 그리고 균형의 정신이었다. 민주주의는 누 군가의 은혜가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세대를 거듭 하며 시민들의 피와 희생으로 지켜낸 제도다.

오늘의 "No Kings" 함성을 단지 반트럼프 시 위로만 보고 정치적 입장에 따라 지지와 반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미국이 '왕 없는 나라'를 건 국이념으로 삼았던 이유를 다시 생각해볼 때다.

#### 이아침에

### 버닝맨, 자유로운 영혼들의 축제

지인 중에 정말 자유로운 영혼(free spirit)의 소유 자가 있다. 나의 경우는 별명이 '교과서'였고 항상 'teacher's pet(선생님께 잘 보이려는 학생)'으로 살아왔다. 나이가 들면서 내가 알고 있는 세상 밖 에 호기심과 관심이 더 많이 갔고 그 세상은 무한 대임을 배우게 되었다.

그 지인한테서 갑자기 메시지가 날아왔다. "I am going to Burning Man!!! I can't wait. It's going to be a feast of the eyes!(저 버닝맨에 가요. 정말설레요. 눈이 호강하게 될 겁니다!)"

뭐지? 어느 장소인가? 아니면 어떤 행사를 말하 는 건가? 처음 들어보는 단어여서 바로 구글 해보 았다. 와우! Burning Man에 대해 줄줄이 나오는 정보에 계속 놀람의 연속이었다. 내가 어떻게 지금 까지 이런 행사를 모르고 있었지?

'Burning Man Festival'은 1986년 샌프란시스 코에서 시작되었고 매년 8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서 노동절까지 네바다주 'Black Rock Desert'에 서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생활 공동체인 도시를 세 우고 행사가 끝나면 단 한 점의 쓰레기도 남기지 않고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다. 참여자들은 거대한 건축물과 독창적인 조형물을 세우고 예술 작품을 창조하고 개성 있는 운송 수단을 만든다.



행사 마지막 날 전야에는 사람의 형상을 한 조 형물을 태우면서 하늘 높이 치솟은 불길과 함께 분위기는 절정에 이른다. 이 의식은 우리의 삶은 소유가 아닌 경험을 중요시함을 상징한다.

혁신적인 기업문화를 창출한 구글의 두 창업 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페이스북의 마크 저 커버그 등이 좋아하는 축제로 알려져 있는데 이 는 다양성과 창의를 추구하는 실리콘밸리의 정서 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그 외 할리우드 스타 들, 전위 예술가, 음악인, 댄서, 요기들이 자기표현 에 전력투구한다. 여기서는 무엇을 표현하든 자유 를 보장받는다. 참가자들은 수동적이 아닌 적극적 인 행위자가 된다. 해마다 7만 명 이상의 엘리트와 예술인이 허허벌판인 사막에 신기루와 같은 도시 를 건설한다. 주최 측에서는 간이 화장실, 긴급의

료지원, 얼음과 커피를 제공하고 화폐는 통용되지 않는다. 오직 아이디어, 발명품, 창작 활동으로 물 물교환이 가능하고 매일 밤 열리는 파티에서 자유 롭게 교류한다.

어떤 이는 이를 탈 사회 문화예술 축제라고 부 르기도 한다. 자유롭게 작품을 만들어 전시하고 곡을 연주하고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곳곳에 댄스 클럽과 요가 강의도 있다. 참가자는 각자 잠자리 (Motor Home, 혹은 텐트)와 음식을 준비한다. 낮 에는 100도 이상의 폭염과 밤의 냉기에 알맞은 옷 가지들과 모래폭풍을 견디기 위한 고글과 마스크 는필수다

그렇다면 이토록 적대적인 환경과 만만치 않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열광할까. 자유로 운 영혼의 소유자들이 눈과 뇌를 자극하는 예술 작품을 창조할 수 있는 공간과 그들을 편견 없이 보아줄 관객이 있다는 사실에 모두 매혹되고 압도 당하기 때문이다.

사막에 가능성의 문화를 경험하고 꿈꾸는 자 와 행동하는 자에게 힘을 실어준다. 오늘, 이 축 제에서 돌아온 이 지인과 꿈같은 시간을 가지면 서 free spirit의 그녀가 한없이 부럽고 존경스러

### Lee Koo Acupuncture Pain Control Clinic & Herb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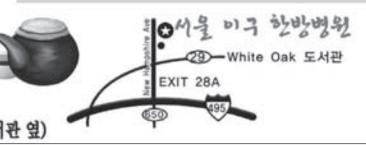
#### 원장 이구 (한의학 박사)

-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86에서 출생 \*전 메릴랜드 한의과대학 교수
- "임상경력 50년
- \*각종 보험 취급 (교통사고 보험 100%) \*VA, MD, DC 면허 소지

#### 저서

- \*신비한 체질의 세계 (사상의학)
- \*만성병의 음식치료와 보양법
- \*정설침구혈위대전
- \*사암침법해설 (사상의학)

703-256-8040 (24시간) **전화예약 바랍니다** 11905 New Hampshire Ave., Silver Spring, MD 20904 (White Oak 도서관 옆)



\*\* 특진 (사암 오행침과 사상체질의학 전문)

모든 알러지, 피부병, 각종 통증, 목디스크, 갱년기 장애, 콧병, 불임증, 여드름, 기침, 정력감퇴,

이갈이, 코골이, 머리흔드는병, 수전증, 미용침, 치질출혈, 장출혈, 코피, 모든 출혈 치료됨.

통풍, 위산과다, 허리통증, 피곤증, 탈모증, 조루증, 이명, 변비, 복부개스, 설염, 부인과 하혈, 중풍,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완벽한 Team-Work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최선을 다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 **Immigration**

- 미국 연방의회 연수 (House of Representative) - United Nations, Research Fellow
- (UNU Headquarters, Tokyo, Japan)
- Kotra 해외진출기업 자문변호사 - ICSC (Int'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Member
- Redcliff Partners 고문변호사 – 이민, 투자, 상법 전문변호사

– 조지타운 법과대학원

- 영주권/시민권
- E2 비자/투자이민
- 취업/가족초청이민 비자변경 및 연장 ● 종교비자/이민
  - 강제추방문제

###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국제합작투자
- 사업체 매매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부동산 투자 개발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혼앞빌딩 3층

# 가난한 농군의 아들, 엘리트 중심주의를 허물다

박정희 정부의 수많은 정책 중 진보 인 사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있 다. 국민학교(현초등학교) 때부터 겪어 야 했던 '입시지옥'에서 어린 학생들을 해방한 교육정책이다.

1960~70년대 초까지 '입시지옥에서 어린이를 구출하자' '공부 노예로부터 해방해 국민학교 어린이에게 웃음을 주자'는 등의 구호와 함께 캠페인이 벌 어지던 시대였다.

이승만 정부 때 의무교육 실시로 50 년대 후반 취학 연령 어린이는 거의 모 두 국민학교에 입학했다. 학생들을 가 르칠 중학교는 턱없이 부족한데 진학 하려는 학생이 급증하다 보니 자연스 레 입시 경쟁이 벌어졌다. 당시 교육열 은 지금 못지않게 대단했고, 사교육 열 풍이 사회문제로 불거지기도 했다.

64년 12월, 서울시 전기(前期) 중학 교 입학시험 땐 이른바 '무즙 파동'이 벌어졌다. 자연(지금의 과학) 18번 문 항이 문제였다. '밥으로 엿을 만들려 고 한다. 만약 엿기름이 없다면 대신에 무엇을 넣으면 될까?' 디아스타제·무 즙·꿀·녹말 중에서 골라야 했다. 발표 된 정답은 '디아스타제'였다. 하지만 일 부에서 "무즙도 정답"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당시 서울시 김원규 교육감은 "만약 무즙으로 엿이 된다면 이 문제 때문에 떨어진 수험생은 구제하겠다" 며 무마하려고 했다.

명문으로 분류되던 경기중·서울중· 경기여중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학생 들과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들은 실제로 무즙을 사용해 솥에 엿 을 만들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 송까지 제기했다. 법원은 전문기관의 판단에 따라 '무즙도 정답'이라는 판결 을 내렸다. 당시 박정희는 사태의 책임 을 물어 문교부 차관, 서울시교육감 등 고위직 5명을 잘랐다.

67년엔 과외 공부에 시달리던 국민 학생 4명이 1주일 넘게 집단 가출한 사 건이 신문의 1면을 장식했다. '이젠 과 외 안시킨다. 빨리 집으로 돌아오라'고 호소하는 부모들의 기사가 실렸다. 당 시 박정희는 "공부는 고등학교에서 더 시키고, 어린 학생들은 과도한 입시경 쟁에서 벗어나 심신을 고루 발달시킬 수있도록하라"고지시했다.

#### '경기고-서울대' 출신 장관이 총대 메

이후에도 입시 과열 분위기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 제도를 바꾸는 것이 빨 랐다. 박정희 정부는 칼을 빼들었다. 69 년 서울을 시작으로 중학교 입학시험 을 없애고 추첨제로 바꿨다. 중학교 입





■1974년 민관식 문교부 장관(오른쪽)이 고교평준화에 따른 학교 배정을 위해 컴퓨터 시험 추첨을 했다. 버튼을 누르면 컴퓨터가 작동해 학생별로 학교 배 정 기호가 나오는 식이다. ❷69년 중학교 시험제가 없어지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추첨제로 바뀌었다. ❸명문학교로 불리던 서울중에서 학부모들이 엿과 떡을 붙이며 고교 합격을 기원하는 60년대 풍경. [중앙포토]

시와 관련된 각종 파동의 진원지였던 경기·서울·경복·이화 등 소위 14개 명 문 중학교를 폐지하는 강수도 뒀다. 지 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조치였 다. 71년 중학교 무시험 입학은 전국으 로 퍼지며 빠르게 정착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교 입시가 문제 였다. 중학교 입시의 경쟁 풍토가 그대 로 옮겨갔다. 고교 진학도 무시험 또는 내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 오기 시작했다. 정부는 74년 '고교평준 화 정책'을 꺼내들었다. 시험을 보고 성 적순으로 학생을 선발하던 방식에서 근거리 배정, 무작위 추첨, 지원 후 추 첨 등을 통해 고교에 가게 됐다.

총대는 아이러니하게도 학벌의 정점 인 'KS(경기고-서울대)' 출신 민관식 문교부 장관이 멨다. 그는 "80~90년대 의 한국 사회는 소수 엘리트 중심의 사 회가 아니라 대중사회가 될 것이다. 사 회발전을 둔화시키는 전통적인 상징을 허물어뜨려야 한다"며 고교평준화 도 입 이유와 방향성을 언급했다. 그는 훗 날 "속칭 KS 마크가 출세의 척도가 된 다는 사회의 그릇된 통념은 국민총화 에 역행하기 때문에 정책을 추진했다"

고술회했다

서울·부산에서 시작된 고교평준화 는 75년 대구·인천·광주, 79년 대전·전 주·마산·청주·수원·춘천·제주 등 전국 으로 확대됐다. 사실 정책적 명분과는 별개로 박정희와 측근들은 학벌 위주 로 형성된 사회 주류 집단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었다. 박정희는 권력 을 잡은 직후부터 학벌, 문벌, 각종 파 당 등을 자주 비판했다. 종친회·문중 회·향우회는 물론 각종 학회와 클럽마 저도 파당을 형성하고 국민을 분열시 킨다고 생각했다. 평상시 그의 이런 생 각은 고교평준화 정책이 나오는 데 영 향을 미쳤다. 혁명가다운 진단이었지 만 박정희도 '박사 위에 육사'라는 새로 운 계급을 만들었다는 비판에서 자유

아무튼 고교평준화는 늘 박정희가 입에 달고 살았던 '가난한 농민의 아들' 다운 정책이자 집권 시기 가장 급진적 인 개혁 정책으로 평가된다. 특히 서슬 퍼런 유신시대였기 때문에 정부 정책 은 일사천리로 시행될 수 있었다. 과도 한 중학교 입시 경쟁으로 인한 사회적 병폐가 워낙 심한 탓에 여론의 광범위

한 지지도 뒷받침됐다.

정부는 고교평준화 정책의 하나로 서울의 기존 명문고를 사대문 밖으로 옮기는 일도 동시에 시작했다. 소위 5대 공립고 중에서 경기고와 서울고, 5대 사립고중에선휘문·배재·양정·보성등 4개교를 이전하도록 했다.

#### "뺑뺑이 세대 후배 아냐" 동문회도 따로

여학교 중에도 경기·창덕·숙명·진명 등의 명문고가 자리를 옮겼다. 이전이 결정된 일부 학교에선 반발도 있었다. 경기고는 원래 학교 부지가 좁아 반대 가 덜했다. 그러나 널찍한 경희궁 터에 자리 잡고 있던 서울고는 사정이 달랐 다. 명문고 지위를 잃은 것도 기분 나쁜 데 좋은 터를 버리고 이사가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해당 학교 학생 들이 반대 시위를 하기도 했다. 명문고 졸업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터져나 왔다. 추첨으로 입학한 소위 '뺑뺑이 세 대'를 후배로 여기지 않는 분위기가 팽 배했다. 일부 학교에선 동문회를 따로 하기도 했다.

뺑뺑이로 학생이 배정되면서 경성・ 대일·서라벌·신일·여의도·우신 등이 신

흥 명문고로 부상했다. 고교평준화 정 책 시행과 함께 강남으로 옮겨간 전통 명문고와 신흥 명문이 경쟁하는 구도 가 만들어졌다. '강남 8학군'의 신화도 이때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고교 입시 경쟁은 자연스럽게 대입 경쟁으로 옮 아갔다. 중학교 무시험은 국민학생을, 고교평준화는 중학생을 입시지옥에서 해방했다. 하지만 고교평준화 이전보 다 몇 배 치열한 대입 경쟁이 시작됐다.

50년 전 시작한 고교평준화 정책은 한국사회에 무엇을 남겼을까. 학교 간 서열을 없애고 학생들 사이의 위화감. 차별을 해소하는 역할을 했다. 입시 부 담 완화로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학 교 시설의 전반적인 개선에도 기여했 다.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 담을 완화하는 효과도 거뒀다. 우려하 던 학력의 하향평준화도 예상보다 크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꽤 성공적인 정책이었음에 틀림없다. 반면에 수준 별·적성별 교육 과정을 편성하는 데 방 해가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인재 발굴 과 양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불리하다 는 주장 역시 꾸준히 제기됐다.

고교평준화를 놓고 존폐 논쟁은 여 전하다. 더 좋은 교육 정책을 위한 활발 한 토론, 문제 제기는 반길 일이다. 하지 만 국민소득 1000달러도 되지 않던 시 절에 시작한 고교평준화 정책을 지금 의 보수·진보라는 어느 한쪽의 이념 잣 대로 재단하고 판별하는 것은 난센스 다. 전국 모든 지역, 특히 인구가 감소 하는 중·소도시 지역까지 고교평준화 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살펴봐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지방에도 서울대 10 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지 방에 좋은 시설의 건물을 세운다고 해 서 우수한 자질의 학생을 해당 지역의 학생으로 충분히 채울 수 있을까. 고교 평준화 정책으로 과거 많았던 지방 중 소 도시의 전통적 명문 고교가 대부분 사라졌다. 지역 명문 고교를 다시 육성 해야 한다. 지금대로라면 '새로운 서울 대'가 지방에 생기더라도 수도권 학생 들이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지역 에도 우수한 학생이 많이 남아 있어야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이 가능하지

이를 위해 일부 비수도권 지역의 고교 평준화 해제 문제를 검토할 필요도 있 다. 인구 감소와 양극화 시대에 교육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이 50년 고교평준화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오 히려 더 잘 계승하는 일이다.

> 박대권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교수

#### 구강교육치과

#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강동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펜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한국, 미국에서의 27년 임상경력

### "염증없는 잇몸, 건생 차이 오래가는 임플란트"

임플란트

잇몸치료 - 치아교정 Periodontal Orthodontics

Surgery Invisalign - 치아성형 신경치료 응급환자 Root Canal Treatment Veneer

Lumineers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natura dent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 보험 에이전트 모십니다!

#### 전미주로 뻗어가는 브리지원 보험과 함께 일하실 분을 모십니다!

- •다양한 보험상품을 배울 수 있는 기회
- 안정된 수입이 가능한 평생 전문직
- 경력자, 보험 배우시고 싶은 분 모두 환영
- •업계 최고의 보험/재정 전문가들의 교육과정 •기초부터 최근 이슈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교육 •브리지원의 각분야 보험 전문가들과 인적 네트워크 •다양한 보험상품을 한곳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





브리지원보험의 🔼 YouTube 채널 SpoonTV Q

>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대표번호: 562-896-3400

#### 시 설

#### APEC 일주일 앞두고 도발 나선 북한 ... 고립만 자초할 뿐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1주일 앞 둔 어제 미사일 도발에 나섰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이 21일 오전 8시10분쯤 황해북도 중화군에서 북동 방 향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로 추정되는 발사체 여러 발을 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들어 북한의 첫 탄도미사일 발사다. 미 사일은 350km가량 떨어진 내륙에 탄착한 것으로 파악 됐다. 신형 또는 개발 단계의 미사일이라면 실패에 대 비해 해상으로 쏘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 내륙으로 발 사했다는 것은 완성형 미사일을 쏘았다는 방증이다. 그만큼 정치·외교적 무력시위의 성격이 짙다고 해석할 수있다.

이번 발사는 오 는 31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 평양경제협력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탄도미사일 발사 몸값 높이기 심산…북·미 '즉흥 거래' 경계를

(APEC) 정상회의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행 사에는 한·미·일을 비롯해 태평양 21개국의 정상급 인 사가 참석하고, 젠슨 황 미국 엔비디아 CEO,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 등 글로벌 기업인들도 대거 방 한한다.

북한으로선 이런 대형 국제행사에 미사일 도발로 '존재감'을 과시하고 싶은 유혹이 있었을 것이다. 과거 에도 북한은 서울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 등을 앞두고 KAL 858기 폭파, 대회 방해 공작 등으로 행사를 흔들 려고 시도했던 전력이 있다.

안보 당국은 앞으로 남은 기간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APEC은 세계 인구의 37%, 상품 교 역량의 50.9%,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의 61.3%(지 난해 기준)를 차지하는 정상 국가들의 협의체다. 섣부 른 도발은 정상 국가를 지향하는 북한에 고립을 자초 하는 역풍만 부를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기간 중 김정은 국무위원장 과의 회동을 추진 중이라는 이야기도 돌고 있다. 김 위 원장과 트럼프는 기회 있을 때마다 "개인적으로 좋은 관계"라고 언급한 만큼 '깜짝 회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몸값을 최대한 높여 미 국의 양보를 유도하려는 계산일 수 있다.

북·미 대화의 물꼬가 트여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

화 프로세스가 가 동된다면 바람직 하다. 그러나 그 과 정에서 한국이 배 제되는 사태는 절

대 피해야 한다. 그런 만큼 철저한 한·미 공조는 필수 다. 북한은 자신들의 핵을 인정해야 미국과 정상회담 을할수 있다는 고집을 굽히지 않고 있다. 트럼프는 취 임 이후 북한을 '핵 국가(Nuclear Power)'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트럼프가 자칫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방향으 로 흐른다면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전역의 핵무장 도 미노가 펼쳐질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한. 미 공조를 강화해 트럼프의 '즉흥적 거래'가 북핵을 인 정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 다. 한반도의 운명과 직결된 문제에서 우리가 구경꾼 이돼선안된다.

#### 미국·일본·호주 희토류 동맹에 한국도 합류해야

미국・일본・호주가 희토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며 중 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지 난 20일(현지시간) 미국·호주가 '핵심 광물·희토류 공 급망 프레임워크'를 출범했고, 일본도 참여를 결정했 다. 세 나라는 희토류를 단순한 자원이 아닌 국가 안보 의 전략자산으로 본다. 반도체·배터리·전기차·첨단무 기 등 핵심 산업 전반에 쓰이는 만큼 중국이 생산과 정 제를 사실상 독점한 현실에서 공급망 다변화는 생존 의 문제다. 제조업 중심의 한국에도 절실한 과제다.

중국이 희토류 통제를 미·중 기술 경쟁의 반격 카 드로 꺼내는 만큼 한국도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 주요 국 간 분쟁이나 기술 경쟁에서 희토류와 같은 전략물 자를 앞세워 상대국을 압박하는 자원의 무기화는 이 미 일상화됐다. 이 위험을 줄이는 길은 수입처 다변화 와 대체물질 개발뿐이다. 일본은 2010년 센카쿠(중국 명 다오위다오) 분쟁 때 중국의 수출 제한을 겪자 즉 시 대체물질 개발과 수입선 다변화에 착수했다. 2019 년 한·일 관계 악화 때는 반도체 핵심 소재 등 '소·부· 장'(소재·부품·장비) 수출 통제를 무기화해 한국을 압 박했다. 일본은 내각에 경제안보상을 두고 전략물자 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할 만큼 자원의 무기화에 철저 히 대비하고 있다.

명박 정부 시절 해외 자원개발에 나섰지만 섣부른 투

자로 실패가 잇따랐고, 정권 교체 후에는 '적폐'로 낙 인 찍혀 헐값 정리로 끝났다. 그러나 자원 확보는 정권 의 성향에 따라 오락가락해서는 안 된다. 지금 세계는 자원과 기술이 결합한 경제안보시대로 접어들었다. 미국은 희토류 정제·가공 기술 복원에 나섰고, 호주는 풍부한 매장 자원을 국제 연대로 연결하며 공급망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21년 중국의 수출 제한으로 촉발된 요소수 사태 는 자원의 무기화를 보여준 사례다. 최근 중국은 '마 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 트'의 주축인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를 제재 명단에 올 려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 와중에 한국의 요소수 대중 의존도는 지난해 27%에서 최근 62%로 되레 높아졌다. 미·중 기술전쟁 이 격화할수록 희토류는 한국 제조업의 아킬레스건이 될수있다.

미·일·호주 희토류 협력은 북·중·러와 한·미·일로 갈 리는 군사안보 문제와는 성격이 다르다. 이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실리의 문제로, 한국 제조업의 실존적 생존과도 직결돼 있다. 한국이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 다면 첨단산업 공급망의 주도권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지금이야말로 국가 차원의 자원안보 전략을 확 이에 비해 한국은 희토류 관리에서 허점이 크다. 이 고히 세우고, 실리와 실용의 관점에서 희토류 공급망 다변화에 나설 때다.

#### 카카오 김범수 1심 무죄가 남긴 것

정효식의 시시각각

時視各角



지난 21일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 니셔티브센터장의 SM엔터테인먼트 시 세조종 혐의 1심 선고는 무죄 결론보다 재판장이 던진 화두에 이목이 집중됐다. 양환승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 부장판 사가 "본건과 별다른 관련성 없는 별건 을 강도 높게 수사해 피의자를 압박하 는 방식으로 진술을 얻어내는 수사 방식 은 진실을 왜곡해 부당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수사 주체가 어디가 되든 이 제는지양됐으면한다"고 당부한대목이 다. 내년 10월부터 검찰이 없어지고 경찰 (국수본 포함)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수 사를, 공소청 검사가 기소를 전담하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와 공소(기관)를 엄 격히 분리하는 상황이라 특히 그렇다.

124쪽 판결문에는 이준호 전 카카오 엔터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한 별건(바람 픽쳐스 고가 인수 의혹)수사로 벌어진 일이 상세히 담겼다. 본건 SM엔터 주가 조작 수사는 2023년 2월 공개매수에 나 섰다가 인수를 포기한 하이브의 금융감 독원 진정에서 시작됐다.

같은 해 11월 15일 금감원 특별사법경 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1주 법 후원금,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 의 일 뒤 돌연 바람픽쳐스를 압수수색한다. 2020년 카카오엔터가 400억원에 인수하 기 전까지 바람픽쳐스 실질 경영자였던 이 전 부문장과 80% 지분을 보유한 부인 인 배우 윤정희씨를 배임 혐의로 입건하 면서다. 그는 두 차례 구속영장 청구와 배우자까지 연루된 별건수사에 극심한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았다. 금감원과 검 찰의 이전 여섯 차례 조사에선 모든 혐 의를 부인하다가 별건 압수수색 이후부 터 "시세조종을 공모했다"고 공소사실 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 이어 자본시 장법에 새로 도입된 자진신고자 감면 제 도(리니언시)를 신청해 주가조작 공범 기소도 면제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에게 수사기관의 의도에 부합 하는 취지의 진술을 함으로써 수사나 재 판의 대상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동기와 이유가 충분했다. 이런 이유로 그의 진 술은 신빙성이 없어 믿지 않는다"고 배 어려운 문제다. 척했다.

이 전 부문장은 바람픽쳐스 수사로는 불구속기소가 됐지만 같은 재판부로부 터 지난달 30일 1심 무죄를 받았다. "바 람픽쳐스는 인지도가 높은 김은희 작가 와 집필 계약을 체결했고, 스튜디오드 래곤과 거액의 드라마 계약까지 체결한 가치 있는 회사"이고 "설령 수치상 가치 와 인수 가격의 차가 크더라도 카카오엔 터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 다"는게이유다.

'털면 다 나온다'는 식의 별건수사 논 란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검찰 77 년의 공과 가운데 최대 성공 사례로 꼽 히는 2003년 불법 대선자금 수사도 대 검찰청 중수부의 기업인들에 대한 비자 금(횡령·배임) 별건 압박이 없었다면 가 능하지 않았을 것이란 평가를 받는다. 2008년 박연차 전 태광산업 회장 탈세 혐의 고발에서 비롯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는 현 여권의 정치보복 수사 란 저항과 함께 검찰개혁론에 불을 지폈 고, 2026년 검찰 폐지 대못의 발단이 됐 다. 대장동 수사에서 시작해 성남FC 불

재판장 "별건수사가 진실왜곡" 검찰 없어지면 별건도 사라질까 구속·유죄 성과주의와 결별해야

혹 등으로 추가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이 "내가 검찰의 최대 피해자"라고 하는 근 거이기도하다.

문제는 검찰만 없어지면 먼지떨이식 별건수사가 사라질까 하는 의문이다. 우 선 별건수사와 여죄수사의 경계가 모호 하다. 문재인 정부 때 아예 별건수사를 금지하려고 "검사는 경찰 송치 사건은 동일한 범죄 사실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냈다가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로 최종 유 턴했다. 나아가 김범수 센터장 1심의 재 판장 당부대로, 경찰과 새로운 중수청이 구속 수사, 유죄 선고 등 성과주의에서 벗어나 불구속 수사와 무죄 추정의 원칙 을 지키는 인권수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별건·강압수사 논란 을 겪는 특검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별 건수사 금지는 수사 기소 분리보다 훨씬

사회부장

#### 중앙일보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한인 어르신분들을 가족같은 분위기로

행복하고 즐거운 노년을 보내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장비를 갖춘 물리치료실(치료사 주2회 방문), 마사지체어실, 탁구대, 당구대, 노래방

즐겁고 활력 넘치는 다양한 액티비티 프로그램

최고 시설 최대 규모

광고 접수 02-751-5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http://jad.joongang.co.kr

기사제보 및 기사 관련 불편·불만 처리센터

**Emmanuel** 

**Adult Medical Day Care Center**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안내전화 02-751-5114, 9114

사장·발행인 **홍정도** 편집인 최훈 신문제작총괄 고현곤 편집국장 김종윤

> 1965년 9월 22일 창간 / 1965년 7월 30일 등록번호 가00195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저작권자(C)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사전재계약제휴사미국THENEWYORKTIMES, THEWALL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영국 FINANCIAL TIMES 일본時事通信。 日本原典新聞 구독료 | 월정 20,000원 / 1부 1,000원

# 의마누엘 홈헬스

임마누엘 간병인들은 치매교육과 노인 질환 및 장애인 수발법등 이론과 실습을 마친 간병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료 간병사혜택

서비스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이드 소지자, 장애인, 퇴역군인(Veterans Affair) 혜택자

전문 간병인이 되고 싶으신 여러분을 위해 임마누엘이 도와드립니다.

임마누엘은 신뢰를 바탕으로 간병사님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며 간병사님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간호학 박사의 명강의로 노인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교육

● 간병인 교육과 심폐소생술(CPR)/ 응급처치(First Aid)를 한주에 수료 가능

• 유급병가(paid sick leave)

• 간병인 영주권 스폰서 가능

간병인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문의 바랍니다.



소셜서비스 / 통근서비스 / 의료동행서비스 (병원 예약및 진료에 동행, 맞춤형 지원) 최고의 맛과 영양을 자랑하는 식사

**443-878-6611** 

전문적인 의료 및 간호서비스

6612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Email: care@emmanuel.care / www.emmanuel.care

8174 Lark Brown Road, Suite 201, Elkridge, MD 21075 1801 Research Blvd, Suite 580, Rockville MD 20850

Main Office



CHRISTIAN MUTUAL MED-AID 와 함께 하는

# 건강한 인생 & 의료비 나눔

# 의료비 걱정 없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의료보험이 아닌 크리스천들을 위한 의료비 나눔 사역 CA, DC, MA, NJ, RI 주: 의료보험 미가입 벌금 면제 혜택 • IN, MO 주: 회비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

#### CMM 회원 혜택



#### 경제적인 월회비

- 월 \$45로도 질병당 입원 및 수술비 최대 \$150,000

30여 년의 신뢰와 경험. CMM과 함께라면 든든합니다

- 25세까지 부양 자녀 1유닛 회비 적용



#### 글로벌 의료 서비스

- 미국, 한국 포함 전 세계 어디서나 이용 가능
- 원하는 의사와 병원을 자유롭게 선택



#### 의료비 나눔

- 질병당 최대 \$150,000
-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1,000,000 추가
- 가입 전 질환에 대한 의료비 나눔 범위 확대



### 100% 한국어 서비스

- 한국어와 영어 서비스 제공 - 간단하고 신속한 가입 절차
- 연중 언제든지 회원 가입 가능

지금 바로 QR 코드를 스캔하여 나에게 맞는 레벨을 확인하세요!



Operated by Logos Missions, In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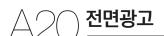


773-777-8889 2315 Sanders Rd. Northbrook, IL 60062



가입문의: 773-777-8889 (Ext.5002) 동부지부 김준범 지부장: 917-535-1144, 917-500-1330

Disclaimer: Logos Missions Christian Mutual Med-Aid (hereinafter "CMM" is a Christian health care sharing ministry, facilitating the sharing of medical expenses of its members. CMM is a not-for-profit organization established in 1996 and federally recognized as a 501(c)(3). CMM is NOT an insurance company. The plan of CMM operation or any other CMM document must not be considered an insurance policy. All assistance from CMM for your medical bills is coming from the totally voluntary participation of CMM members. Membership or being a member of CMM is a missionary concept and signifies participation in and support of a health care sharing ministry. Regardless of medical expenses sharing and operation of CMM, the member is personally liable for payment of their medical bills.





# 일본인기스백토전

TOP PICKS FROM CALBEE, MEIJI & KASUGAI SWEET JAPANESE SNACKS ON SALE AT SWEET PRICES!



헬로우판다(초코/딸기/바닐라/카라멜) Hello Panda (Choco / Strawberry / Vanilla / Caramel)

17.99 8.99 6X2.20Z



6.49,449 60Z



Calbee **타코야까볼** Takoyaki Ball

2.49/

3.17 OZ



Potato Chips (Hot & 6.49/

Calbee

Calbee

(Calbee

(Calb

(매운맛/짭짤한 해초/허니버터) Potato Chips (Hot & Spicy / Seaweed & Salt / Honey Butter)

6.49<sub>7.05 0Z</sub>



2.99, 1.49



5.49 2.99



Shrimp Chip (Garlic / Sriracha / Chili Lime / Roasted Seaweed)

Chilli Lime / Roasted Seaweed) 3,30Z

BUY1
GET1
EREE



3.49 3.59 0Z -3.77 0Z

편의 중 오망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양부 등록은 사전에 따라 조기롭징 또는 수량 #80이 있을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 may contain errors. Quantities and price of sale items are subject to change.

Richmond, VA

Storling, VA Schlappin Hills Towns SUUDISS ntreville, VA COAL SECHELL Chartilly, VA

Anneridale, VA 1004 Partition for Incompact, VA 2015 Ashburn, VA 45500 Formand Hard Philips Ashburn, VA (2014) Herndon, VA

Elicott City, MD

Catonoville, MD COSTANIO PARTICIPATE Catonomica, MOSTASSE Rockville, MD 1102 Vers AN FEI Rockville, MO (1851 Gathersburg, MD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임종범 대표 변호사(VA/MD)

이민법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은 별도 \$750)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1,000

Dental Implant \$1

시민권

NIW

영주권(결혼/취업)

703-333-2005

JOY LAW GROUP

301-230-312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LENNOX) (TRANE Carrier Lennox 전문딜러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www.LBuniversal.com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703-678-1749

①중앙일보 JoongAng Ilbo

# "주택시장, 시니어 소유 많아 정체" 주장

54% 베이비붐 세대 소유 라인오브크레딧 41% 차지 활용 쉬워 계속 보유 경향

베이비붐 세대가 전체 주택의 절반을 갖 고 있는 것을 근거로 주택시장이 앞으 로도 상당 기간 정체 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위기를 정확히 예측해 월가의 오 라클로 불렸던 메러디스 휘트니 아치캐 피탈 수석 부사장은 최근 파이낸셜타임 스 기고에서 베이비붐 세대가 주택시장 의 체스판을 장악하고 있다고 주장했

휘트니 부사장은 "2008년 44%였던 시니어의 주택 보유율이 54%를 넘어섰 다"고 지적했다. 은퇴 세대의 79%가 주 택을 소유하고 있고 이 가운데 4분의 3 은 모기지가 없는 상태여서 보험료 등 유지비 상승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휘트니 부사장은 "시니어들이 주 택 자산을 활용하기 쉬워진 덕분에 집 을 계속 보유하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 로 3~4년간 홈에퀴티 라인오브크레딧 (HELOC)의 확대가 경제의 주요 테마 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주택



Thursday, October 23, 2025 C

은퇴자들이 소유한 주택이 절반을 넘어서면서 주택 시장의 매매가 줄어들어 시장이 정체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반 신용대출은 현재 가장 빠르게 성 장하는 소비자 부채 형태로 이 중 41% 를 시니어들이 차지하고 있다.

휘트니 부사장은 "시니어들은 더 작 은 집으로 이사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 는 데다 재정적 여력까지 갖추고 있어 매물이 늘어나지 않는다"며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가 하락하더라도 기존 주택 판매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 고 진단했다.

이런 상황은 주택 구입에 나선 밀레 니엄 세대와 Z세대에게는 악재다. 매물

부족에 따른 높은 주택 가격과 금리 부 담으로 첫 주택 구매자는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부과와 이민 억제 정책은 주 택 건설업체를 압박하며 신규 주택 공 급을 늦추고 있다. 경기 불안과 높은 집 값도 수요를 위축시키고 있다. 모기지 금리가 낮아져도 주택 소유자들은 오히 려 매물을 거둬들이는 추세다. 지난 2분 기 주택 구매는 전 분기 대비 4.7% 감소 하며 하락 폭을 키웠다.

베이비붐 세대도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다. 휘트니 부사장은 "베이비붐 세대 의 전체 자산은 75조 달러에 달하지만 실제로 요양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고령 층은 10명 중 1명에 불과하다"며 상당 수 시니어가 여전히 한 달 수입으로 한 달 생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유가 있어 이사하지 않기도 하지만 집을 팔 수 없는 이들도 적지 않다. 베이비붐세 대가 어쩔 수 없이 주택시장의 체스판 을 장악하고 있는 면도 있기 때문에 주 택시장이 정상 궤도로 올라서기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주택 구매나 주택 건설의 감소는 경 기침체의 선행지표로 여겨지기 때문에 시장 정체는 경제 전반과도 연결된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마크 잰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최근 주택 판매와 건 설, 가격이 모두 압박을 받고 있다면서 주택시장 상태를 적색 경보 단계로 올렸

특히 주택 건설 허가 건수가 지속적 으로 줄고 있는 점이 "경기침체를 예측 하는 가장 중요한 경제 변수"라고 강조 했다. 무디스는 이를 바탕으로 12개월 안에 경기침체가 올 가능성을 48%로 제 시했다. 안유회 객원기자

### 산불 위험 산정, 공개모델 방식 전환

가주 '공공 모델' 법 시행 보험사 알고리즘 비공개 UC·보험국 새 모델 개발

개빈 뉴섬 주지사가 '공공 산불 재해 모 델' 구축을 의무화하는 법안(SB429)에 이번달 서명하면서 주택 보험료에 영향 을 미치는 산불 위험 산정 방식이 공개 된다. 지금까지 보험회사는 비공개 알고 리즘으로 산불 위험을 측정해 보험료를 인상했는데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소비 자들이 산불 위험 산정 근거를 직접 확

인할 수 있어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데이브 코테세(민주·15지구) 상원의 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 따르면 UC와 가 주보험국이 협력해 새로운 모델을 개발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2025년도 가 주 예산에 포함되어 승인됐다.

소비자단체 컨수머 워치독의 카르멘 발버 대표는 "주택 소유자들은 산불 위 험을 이유로 보험료를 인상하면서도 그 계산 방식을 공개하지 않는 보험사들의 '블랙박스 모델'에 지쳐 있다"고 비판했 다. 그는 "주택 소유자들이 산불로부터 집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도 여전히 과도한 요금 인상이나 보험 해지 위험에 시달렸다"며 "공개형 모델은 소비자가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7535 Little River Tnpk.,#310-B

Annandale, 22003



연말 파티에 200명 초대 합니다. 품짐한 상품 및 1000불 상금, 항공티켓 12월 6일 토요일 6시 Pine Plaza 7 Broad Ave 4<sup>fl</sup> Palisades Park, NJ 07650 상담 및 예약: 917.359.1578





5주 속성반





- 수리 전 가격 : \$650,000
- · 공사비(후불): \$45,000 수리 후 가격: \$750,000
- \* 집 마다 공사비와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mark>"수리하고 파세요. 결과가 다</mark>릅니다"

\$50,000 이상 이익



\$999,000 페어팩스 싱글홈 방 5, 화장실 4+1, 차고 2 넓은 구조와 잘 가꾸어진 집, 벽돌, 마루바닥



\$1,050,000 페어팩스 싱글홈 방 4, 화장실 3+1, 차고 2 우드슨 학군, 편리한 교통, 최근에 업데이트 많이 함



\$850,000

페어팩스 타운홈

방 4, 화장실 3+1, 차고 2

끝집, 아주 밝고 이쁘게 잘 꾸며진 집

비엔나 싱글홈 방 6, 화장실 6, 차고 2 새집같이 아주 멋지고 고급스러운 집, 편리한 교통





\$985,000 → \$1,265,000 28만불 더 받고 팔림





\$349,900 Nottingham 타운홈 방 4, 화장실 3

최근에 전부 다 새로 고친 집, HOA 없음



포토맥 싱글홈 방 4, 화장실 2+1, 차고 2 포토맥에 위치한 잘 꾸며진 집, 좋은 가격





SE 타운 방 5, 화장실 3+1 새 타운 하우스, 모던하게 지은 이쁜 집

# 높은 렌트비 부담에 "가주 세입자 '이사 잦다'

임대시장 92% 재계약률 전국 최저 수준 LA지역 절반 이상 '저렴한 집' 찾아 이동 가성비주거지 찾으면 장기 거주 경향 ↑

캘리포니아 내 아파트 거주자들은 국 내 다른 지역에 비해 이사를 자주 하지 만, 마음에 드는 집을 찾으면 비교적 오 랜 기간 머무르는 '양면적 성향'을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데이터 업체 렌트카페 (RentCafe.com)가 발표한 2025년 2분 기 임대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가주 12 개주요임대시장중 11곳(92%)이 국내 136개 주요 시장 중 '재계약률이 가장 낮은 25곳' 안에 포함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재계약률은 LA 카운티 서부지역이 44%, 샌프란시스 코 노스베이 지역이 49%, 센트럴 코스 트가 43%를 보여 사실상 전체 세입자 의 절반도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 〈표 참조〉

소위 '충성 세입자' 비율이 타 지역

에 비해 적었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

다만 오렌지카운티만 62%로 전국 중간값(64%)에 근접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의 재계약률이 53%(전국 63%)를 보여, 전년 대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평균 임차 기간은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캘리포니아 12개 주요 지역 중 5곳이 '가장 오래 거주하는 시장 상위 25위' 안에 포함됐다.

중가주 해안가인 센트럴 코스트는 40개월(전국 5위), LA카운티 동부는 38개월 (9위), 벤투라카운티는 37개월 (12위), 샌프란시스코 노스베이가 35개 월 (16위), 인랜드 엠파이어가 34개월 (21위)로 나타났다.



LA 한인타운 지역 한 아파트에서 이사업체 직원이 짐을 옮기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2025년 2분기 전체 중 간 임차 기간은 35개월(약 3년)로, 전국 평균인 27개월보다 23%나더 길었다.

전국적으로는 콜로라도 스프링스 (20개월)가 가장 짧았고, 뉴욕 브루클 린(49개월)이 가장 길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과도한 주거비 부담이 세입자들의 행동을 양 극화시킨 것으로 분석한다.

2024년 연방 센서스국 조사 자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임차 가구의 27% 가 소득의 절반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

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즉, 높은 렌트비 때문 에 세입자들은 더 저렴한 집을 찾기 위 해 자주 이사하지만, 일단 '가성비 좋 은' 주거지를 찾으면 쉽게 떠나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렌트카페는 또한 캘리포니아에서 빈 아파트 한 곳을 보기 위해 평균 13명 의 예비 세입자가 몰린다고 밝혔다. 이 는 전국 평균(9.5명)보다 훨씬 높은 수 준이다. 이런 트렌드가 반영돼 아파트 공실률은 낮았다. 캘리포니아 12개 주 요 시장의 평균 점유율은 95%로, 전국 평균(93%)보다 높았다.

LA 한인타운 윌셔가의 한 아파트 매니저로 일하는 제임스 유 씨는 "팬데 믹 이후로도 가격이 오르고 있어 좋은 조건을 찾아 이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본다"며 "다만 이사 비용과 물 가 탓에 상당수 가정은 현재 거주 아파 트에서 더 나은 조건을 찾으려 하는 경 향이 있다"고 현실을 전했다.

최인성 기자

### 한국보유세 낮다? "GDP로 따지면 OECD 36개국 중 12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5 일 "한국의 보유세가 낮은 편은 사실" 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는 절반만 맞 는 얘기다. 자산가치 대비 세 부담을 뜻 하는 '실효세율'은 낮지만, 경제 규모 (GDP) 대비 보유세 등 자산에 대한 세 금 부담은 OECD 평균을 이미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민간 비영리 연구단체인 '토지+ 자유연구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 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 수준이 다. OECD 평균(0.33%)의 절반이 안된 다. 한국보다 실효세율이 낮은 곳은 비 교가능 OECD 회원국 30개국 중독일 (0.09%) 등 9개국뿐이다.

실효세율은 부동산 자산가치 총액 에 부동산 세수 총액을 나눠 구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부동 산 자산 중 주택의 시가총액은 7158조 원 수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배 가 넘는다. 국가마다 토지 포함 여부 등 무농산에 대한 자산가지 종액을 산출 하는 방법이 달라서 실효세율이 부동 산 세 부담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 는 지적도 있다.

그래서 사용되는 지표가 GDP 대 비 세 부담률이다. OECD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부동산에 부과되 는 보유세는 GDP 대비 1%로 집계됐 다. 2023년 기준 통계가 집계된 OECD

#### 3.43 3.02 2.67 한국 2,62 미국 2,58 2.06 이탈리아 2,12 0.67 자료: OECD

OECD 주요국 GDP 대비 부동산세 비중

단위: %, 부동산 보유세+자산거래세. 2023년 기준

36개 회원국(그리스·호주 제외) 평균 (0.91%)보다 오히려 높다. 36개국 중 12 번째로 높다. 전체 세금에서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3.5%로 평균(2.7%)보 다높다. 35개국중아홉번째다.

취득세 같은 자산거래세(transaction taxes)를 포함할 경우 부동산 관련 세 금이 GDP에서 자지하는 비숭은 더 높 아진다. 자산거래세의 경우 주식 같은 금융자산 등도 포함되지만 한국은 부 동산 관련 세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한국의 자산거래세는 2023년 기준 GDP 대비 1.66%로, 관련 통계가 있 는 36개국 중 가장 높다. OECD 평균 (0.35%)의 4.7배 수준이다. 이런 보유세 와 거래세를 합친 부동산 관련 세 부담

#### 보유세 팩트체크

한국부동산 보유세, GDP 대비 1% OECD 평균 0.9% ··· 한국보다 낮아 거래세 포함땐 조세부담 OECD 2배

은 2.6/%로 OECD 평균(1.2/%)의 2배 수준이다. 한국보다 이 비중이 높은 곳 은 영국(3.43%)과 캐나다(3.02%) 정도 다. 주요국보다 높은 상속세나 양도세 등은 포함하지 않은 수치다. 부동산 관 련 세금의 GDP 대비 비중이 급격히 올 라간 건 부동산 세금 규제를 강화한 문 재인 정부 시절부터다.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

동산학과 석좌교수는 "보유세를 높이 더라도 장기적으로 나눠 높이고 보유 세 증가만큼 거래세를 낮춰 거래 증가 와 전반적인 조세 부담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 언급한 '미국처럼 재산세 1%' 주장 노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2023년 기순 미국의 재산세 실효세율은 0.83%. 하 지만 미국의 재산세는 주(State), 카운 티(County)마다 과세 방법과 세율이 천차만별이다. 미국의 '텍스파운데이 션'에 따르면 미국 50개 주 중 재산세 실효세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일리노이 주로 1.83%였다. 하지만 가장 낮은 하 와이는 0.32%에 불과해 격차가 컸다.

한국에서 보유세의 대부분을 차지 하는 재산세율을 1%로 올리면 주택 보 유자의 세 부담은 연간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늘어난다. 현재 재산세 최고 구간(공시가 3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가 내는 세금은 3억원 초과 분의 0.4%에 일괄 세액 57만원을 더한 금액이다. 이에 따라 공시가 10억원짜 리 아파트의 재산세는 연 296만4000원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 시, 도시 지역분·지방교육세 포함)이다.

중앙일보가 김종필 세무사와 시뮬 레이션한 결과 재산세율을 1%로 올리 면 이 아파트의 재산세는 512만4000원 으로 연 216만원 증가한다. 20억원 아 파트의 경우 연 668만4000원에서 1316 만4000원으로 648만원, 50억원 아파 트의 경우 1784만4000원에서 3728만 4000원으로 1944만원 늘어난다. 다만 세 부담 한도 적용에 따라 실제 부담액 은 연간 단위로 점차 증가한다.

보유세 인상이 십값 안성으로 이어 질지는 미지수다. 문재인 정부는 2018 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0.5~2.7%로 인상하고, 2020년에는 공시가격 현실 화율을 69%까지 끌어올려 보유세 부 담을 늘렸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값은 2020년 13%, 2021년에는 16.4% 상승하 며 오히려 더 큰 폭으로 올랐다.

안효성·장원석 기자

#### 센터빌 타운홈 클립턴 싱글홈 **COMING SOON**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센터빌 타운 여전히 매물이 \$700,000 제가 먼저 저렴하게 방3, 화2.2, 차고2 부족합니다. 수리해 드리고 동네 최고가로 팔아 드리겠습니다!! 비엔나 콘도 팔아드리겠습니다. \$1.5M \$2,900 \$3,000 \$325,000 NVAR Top Producer 방1, 화1

FAIRFAY

by Homesnap

Zillow Premier Agent

Top 15% Nationwide Agent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방2/화2.2, 2 Assigned 밝고 <mark>환한집. 업그레이드 많이함, 교통편</mark>리



CORE

방5/화4.5/차고3, 1.05 에이커

새 지붕, 새 HVAC

방3/화2.5/차고1, End Unit

업그레이드 많이 함, 굿로케이션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 통증·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 해 드립니다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봐스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통증치료

텔, 메디케이트, 캐쉬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 ·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 센터빌, 첸틀리 지역 ]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T 703-865-6455 F 703-649-6455 [ 예약환자에 한하여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

# 중산층 재산 고갈 초래할 수 있어 주의

#### 로스(Roth) IRA 변경 절세 전략 유효한가?

최근 몇 년 사이 재정·보험업계에서 가 장 많이 회자된 단어 중 하나가 '로스 IRA 변경(Roth IRA Conversion)'이 다. 전통적 IRA(세금유예 계좌)에 쌓 여 있던 자금을 Roth IRA로 옮기면, 전환 시점에 세금을 한 번 내고 이후의 수익은 모두 비과세로 누릴 수 있다는 논리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하고 매력 적이다. 지금 세금을 내면 앞으로는 세 금 걱정이 없다는 단순한 논리가 컨버 전을 부추겼다. 그러나 이 전략이 모든 사람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다. 특히 중 산층 은퇴자에게는 오히려 자산 고갈 을 앞당길 위험한 선택이 될 수도 있다.

#### ≫세금으로 나갈 돈을 보너스로 메운 다?

이 논의를 더 복잡하게 만든 것은 보험업계에서 등장한 새로운 컨셉트 다. '보너스형 고정 인덱스드 어뉴이티 (FIA)'를 이용해 Roth 전환 시 발생하 는 세금 부담을 '보너스로 보전해준다' 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20% 보너스가 붙는 어뉴이티에 \$350,000을 넣으면 \$70,000이 즉시 계좌에 추가된다.

판매자들은 이 금액이 '세금으로 빠 져나간 돈을 보충해주는 효과'가 있다 고 설명한다. 즉, 전환세금을 내더라도 계좌 내 총액이 유지되니 손해가 아니 라는 논리다. 하지만 문제는 이 구조가 현금흐름의 실제 변화와 복리효과를 완전히 무시한다는데 있다.

#### ▶세금은 '현금 유출', 보너스는 '장부 상의 숫자'

세금은 현실적인 비용이다. Roth로 전환하는 순간, 세금은 바로 빠져나가 이러한 보너스형 상품들이 일반형보



최근 시중에 ROTH IRA 변경이 큰 이익을 주는 것으로 언급되고 있지만 실제로 수혜의 내용와 조건을 꼼꼼히 보지 않으면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와의 시뮬레이션이 절대 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세율 확실시되는 고소득자·상속관련 절세 목적 자산가 후손 위한 비과세 자산 형성・세율 낮아진 상황에서 유효 보너스 어뉴이티는 세무 상쇄 실질 효과 없는 점 알아야 소득 보장형 어뉴이티와 결합은 목적 맞다면 의미 있어

며 그만큼의 원금이 줄어든다. 이 돈은 다시 복리로 불릴 수 없는 자산이 된다.

반면 어뉴이티의 20% 보너스는 즉 시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이 아니다. 대부 분의 상품은 10년 이상의 베스팅(귀속) 기간을 두며, 중도 인출 시 해약 수수료 가 부과된다.

결국 '보너스가 세금을 상쇄한다'는 말은 심리적 위안을 주지만, 실제 결과 와는 거리가 있다. 현금 흐름상으로는 아무런 상쇄 효과가 없다. 더 큰 문제는

다 훨씬 낮은 수익률 구조를 가진다는

현재 시장에서 20% 보너스가 붙은 FIA의 연간 S&P 500 캡은 약 6.25% 수준인데, 보너스가 없는 양질의 상품 은 10% 이상이다.

즉, 보너스 덕에 초기 금액이 커지더 라도 그 이후의 복리 성장률이 2~2.5% 낮게 고정되기 때문에 10년 이상 지나 면 오히려 자산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

원금 35만달러를 어뉴이티에 투자 한다고 가정할 때 보너스 상품과 비보 너스 상품의10년 후 시뮬레이션 결과 는 단순하다.

복리 성장률의 차이 때문에 처음 더 적은 금액으로 투자하게 된 비보너스 상품이 68만8,577달러, 20% 보너스 상 품은 7만달러가 더해진 42만달러로 시 작했음에도 최종 금액은 64만2,025달 러가 된다. 보너스는 단기 착시효과를 줄뿐, 장기적으로는 수익률 손실로 상 쇄되고도 남는 것이다.

#### ▶중산층에게 Roth 컨버전이 불리한 근본 이유

보너스형 어뉴이티 이전에, 사실 Roth 컨버전 자체가 대부분의 중산층 에게 불리한 구조를 갖고 있다. 먼저 세 금 납부 타이밍의 역효과를 생각해봐 야한다.

Roth 컨버전은 '세금을 나중이 아니 라지금 낸다'는 의미다. 문제는, 그세 금을 낸 순간 복리로 불릴 자본이 줄어 든다는데 있다. 현재의 세금 납부로 인 한 복리 손실이 미래의 세금 면제 효과 보다 크다면 결국 전체 자산가치는 줄 어드는 것이다.

다음은은퇴후세율이대부분더낮 다. 많은 사람이 나중에 세율이 오를 테니 지금 미리 내자고 생각하지만, 대 부분의 중산층은 은퇴 후 소득이 줄어 들면서 세율 또한 12~15% 구간으로 내 려간다. 현재 24% 세율로 세금을 선납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세금을 더 비싸 게 내는 행위다.

그리고 보너스형 상품의 복리 손실 이 여기에 이중으로 작용하게 된다. 세 금을 낸 후 남은 자산이 낮은 캡의 어 뉴이티로 들어가면 수익률 하락이 누 적되어 결과적으로 자산 고갈 시점이 훨씬 앞당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Roth 컨버전이 유리한 경우는 물론 컨버전이 모든 상황에서 부정 적인 것은 아니다. Roth 컨버전은 다음 과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 활용 가치가 있다. ▶향후 세율 상승이 확실한 고소 득자, ▶상속·유산세 절세 목적의 자산 가, ▶현재 소득이 일시적으로 낮아 전 환시 낮은 세율 적용이 가능한 해, ▶ 후손에게 비과세 자산을 남기고자 하 는 장기 플랜의 경우에는 컨버전이 의 미 있을 수 있지만, 그조차도 정밀한 세 금·현금흐름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결국 Roth 컨버전은 계산 문제다. 실 제 세후 현금흐름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보너스형 어뉴이티는 세금 상 쇄 수단이 아니다. 보너스는 일시적이 며, 낮은 수익률로 복리 손실이 누적될

모든 컨버전은 되돌릴 수 없다. 한 번 전환하면 '언두(undo)'가 불가능하므 로, 반드시 전문가의 정밀 시뮬레이션 을거쳐야한다. 끝으로세율 구간·연금 소득·의료비 공제 등 변수를 함께 고려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산층의 경우은 퇴후세율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다만 모든 보너스형 어뉴이티가 비 효율적인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살펴 본 컨버전과 보너스 어뉴이티 활용의 한계는 자산증식 모델만을 상정한 것 이다. 만약 고객의 목표가 자산의 복리 성장이 아니라 평생 보장소득(lifetime guaranteed income) 확보에 있다면, 인컴라이더가 부착된 보너스형 어뉴이 티는 오히려 세후 인컴 안정성을 극대 화할수있는 구조가 될수 있다.

특히 Roth 계좌 내에서 운용될 경 우, 이 인컴은 전액 비과세로 지급되어 세금 측면에서도 매우 효율적인 은퇴 소득수단이 될 수 있다. 결국 컨버전이 든 어뉴이티 활용이든 각자의 상황과 목적을 명확히 한 후 그에 맞는 선택을 할수있어야할 것이다.

켄 최 아피스 자산관리 대표

### 연금에 묶여 … 현금 없는 부자들 증가

#### 백만장자 6년간 50% 급증 자산 적을수록 현금 비중↓ 높은 주택 가격·금리 영향

"휴가용 별장, 개인 제트기와 요트, 오 트 쿠튀르(고급 의상) 쇼핑 같은 고전 적인 백만장자 라이프스타일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블룸버그는 최근 보도에서 "현금 에 쪼들리는 백만장자(cash-strapped

같이 현상을 전했다. 자산은 주택이 50%나급증했다. 나 연금에 묶여 있고, 물가 상승과 금 리 부담이 겹치며 실제 느끼는 부유 감이 떨어지고 있다. 상당수는 현금성 자산이 부족한 '종이 백만장자(paper millionaire·문서상 백만장자)'라는 것

블룸버그가 정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국내 전체 가구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약 2400만 가구가 순자산 기

millionaires)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 준 백만장자로 분류된다. 최근 6년간 비중이 17%에 불과했다.

하지만 2023년 기준 순 자산이 100 만~200만 달러인 가구들은 가진 돈의 때 자동으로 부유함을 의미했지만, 이 66%를 주택이나은퇴 후쓸 수 있는 연 금(401(k), IRA)에 묶어두고 있었다. 2017년보다 8%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500만 달러 이상 자산가의 경우 현금 화가 쉬운 은행이나 증권계좌 예치가 24%에 달하지만, 100만 달러 언저리 자 산가의 경우는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마리너 웰스 어드바이저스의 애쉬 튼로렌스는 "백만장자라는 단어는 한 제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더는 충분하 지않다"고 짚었다.

높은 대출 금리도 '백만장자'의 통념 을 바꾸는 데 한몫했다. 자산을 현금으 로 바꾸는 것을 어렵게 해서다. 국내 평 균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7.89%로 2022 년의 두 배 수준이다. 증권사의 증거

금 대출 금리는 10~11%에서 시작한다. "자산의 가치와 상관없이 이자율이 높 으면 자신이 덜 부유하다고 느낀다"(재 정설계사 니콜 고포이안 위릭)는 분석 박유미 기자



#### 🔽 최근에 마켓에 올리지 않고 슡ℝ 추천이 꼬리를 무는 부동신 주인 \*세입자 바로 연결한 집 (렌트 구하는 분도 환영함, 갖고 있는 집도 많음) 방 3, 화2+2, Main Level 품질 좋은 마루. 1~2층 데크, Cul-de-Sac 으로 어린이들이 놀기에 안전,데크 뒤로 숲 View, 그 숲 안에 산책로 있음, 10/11/2025, 1:00 ~ 4:00 PM 오픈하우스, 10/9 마켓에 올라올 예정 세입자 올 겨울/내년 봄에 파견 나올 주재원 30여명 있음 10월 ~ 내년 1월 입주 예정 \$2,000 ~ \$5,500 가격대 렌트 렌트 놓을 집 갖고 있는 집 주인 환영 복수 오퍼 받아 제일 좋은 조건의 오퍼로 결정, \$1.3M McLean, VA 마켓에 올린 후 4일 안에 계약 완료, 10/24 세틀먼트 예정 7608 Lee Landing Dr, Falls Church, VA \$2,600 자격 넘치는 세입자 연결 6501 Divine St, SALE Focal Point Homes 빌더가 지은 4년 된 집, 주인의 사랑과 잘 관리된 집, \$2.85M 주재원, 지난 6년간 세입자도 로리 손님, 이번에도 마켓에 내 놓지 않고 바로 연결 + 렌트 완료 2901 Gettysburg Sq, Vienna, VA 16309 Sandy Ridge Ct Woodbridge, VA Woodbridge 의 Powells Landing 단지내 court 에 있는 잘 생긴 싱글홈 \$970,000 8220 Crestwood Heights Dr, McLean, VA 주재원, 공항에서 바로 입주 RENTED 렌트 8220 Crestwo 마켓에 올라오자 마자 3일 안에 계약 완료, 로리는 파는 것도 잘 함. \$1,225,000 위 1477 Hampton Hill 셀러가 소개, 10/14일 세틀예정 주재원, 공항에서 바로 입주 8380 Greensboro Dr, McLean, VA 오픈하우스 때 온 손님을 바이어로 만듬, 셀러/바이어 So Happy, 계약 후 2 주 안에 세틀먼트 완료, 9/30 세틀먼트 완료 2726 Gallows Rd Vienna, VA SOLD \$279,900 1년 주재원, 공항에서 바로 입주, 1년 렌트는 잘 안 주는데, NEW 1645 International Dr, McLean, VA 주인측 에이전트를 잘 아는 사람이라 받아줌. 11828 Dinwiddie Dr, Rockville, MD RENTED DC 내 위치 좋은 장사 잘 되는 곳이나 은퇴 예정 \$150K 델리샵(DC) 주재원, 이전 세입자 4년 살고, 하루의 공실 없이 3년 렌트 이어감 사업운영하면서 투자용 집, 두 자녀 집 살 때 다운 페이먼트 지원할 정도로 안정된 수입 14010 Tanners House Way, Centreville, VA 일 년에 80~100여 주재원 렌트 구해 줌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82 (타이슨스 DMV 옆, 한미과학재단 1층) 로리 정 갤럭시부동산 대표 에이전트 사무실 (703) 622-0312 직통 (703) 625-9909



# 교황과 가톨릭 보수진영, 허니문 끝나나

미국강경이민정책비판발언등에 보수 블로그서 "차라리 침묵" 반발 생명존중 교리 사회 전반 확장 해석

전임 교황 프란치스코가 멀리했던 전 통을 존중하고 논쟁적인 사회적 쟁점 에 거리를 두면서 보수 가톨릭 신자들 로부터 환영을 받았던 교황 레오 14세 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이민 정책을 비판하면서 가톨릭 내 보 수진영과 허니문이 예상보다 일찍 막 을 내리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레오 교황은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나 "낙태에는 반대하지만 미국에서 이민자들에 대한 비인간적 대우에 동 의한다는 사람을 과연 '(생명을 우선 하는) 낙태반대자(pro-life)'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레오 교황은 직접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들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JD밴스부통령을겨냥한발 언으로 해석된다. 두 사람은 스스로를 '프로라이프'라 칭하면서도 사형제와 강경 이민 정책을 지지해왔기 때문이

피트 헤그세스 장관이 군 수뇌부 회 의에서 "방어가 아닌 전쟁을 준비하라 "고말해 데 대해서도 레오 교황은 "매 번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국방부 장관에 서 전쟁부 장관으로 직함을 바꾼 것 역



교황 레오 14세가 최근 미국의 이민 정책에 비판적인 발언을 하면서 가톨릭 내 보수진영과 우호적인 분위기가 깨지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시 단순한 수사이길 바란다"고 말한 것 으로 알려졌다.

교황은 또 최근 시카고 대교구장 블 레이즈 수피치 추기경이 가톨릭 신자 인 민주당 딕 더빈 상원의원에게 평생 공로상을 수여하려다 낙태 합법화를 지지해 온 점 때문에 보수층의 반발을 산 사건도 언급했다. 교황은 "구체적인 사안은 잘 모르지만 40년간 상원의원 으로 봉직한 전체 업적을 봐야 한다" 고 밝혔다.

교황의 발언은 즉각 파장을 불렀다. 미국 보수 가톨릭 진영의 상징적인 인물로 프란치스코 교황을 비판했던

조셉 스트릭랜드 전 텍사스 주교는 소 셜미디어에서 "생명의 신성과 교회의 도덕적 명료성에 혼란을 초래한다"고 레오교황을 비판했다. 보수가톨릭진 영의 블로그인 '로라테 카엘리'에도 " 교황의 인터뷰에 지쳤다. 차라리 침묵 을지키라"는 불만이 올라왔다.

트럼프 행정부 측도 반발했다. 캐롤 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교황의 '비 인간적 대우'라는 표현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바티칸 측근들은 레오 교황이 이민 자 처우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왔 으며 비판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전 세계 가톨릭교회를 하 나로 묶겠다는 교황의 사명에는 걸림 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레오 교황 전기 저자인 엘리세 앨런 은 "레오 교황이 언젠가는 미국 보수 세력을 불편하게 만들 것이라는 점은 당연하다"며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카엘 체르니 추기경은 "레 오교황은 바오로 사도의 가르침대로 ' 때를 가리지 않고 말씀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따르고 있다"며 각 지역 교회와 신자들이 복음을 살아내도록 격려하 고 있다고 강조했다.

레오 교황은 선출 전까지 페루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며 이민자와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데 헌신했다. 앨런은 " 교황은 낙태 문제의 중요성을 잘 알지 만 이민 문제를 그보다 덜 중요하게 여 기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레오 교황은 즉위 이후 전임자와 다 른 모습을 보여 보수층의 기대를 키웠 다. 즉위 첫 공개석상에서 프란치스코 가 입지 않았던 붉은색 교황 예복인 모 체타를 착용했고 프란치스코 시절 바 티칸 내 자리에서 밀려난 보수 성향의 레이먼드 버크 추기경과 로베르 사라 추기경을 잇따라 접견했다. 버크 추기 경은 이번 달 말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라틴어 미사를 집전할 예정이다. 프란 치스코 교황은 버크 추기경의 미사 집 전을 거부했다.

하지만 레오 교황은 지난달 LGBT 가톨릭 신자를 돌보는 미국 성직자에 게 고위급 면담을 허용해 보수층 일각 의 비판을 받았다. 포덤대학 '종교와 문화 센터'의 데이비드 깁슨 소장은 " 보수 가톨릭 신자들이 레오 교황의 통 합 시도를 자신들의 전체 의제에 대한 지지로 착각한 측면이 있다"며 "레오 교황은 결코 그길을 가지 않을 것"이 라고 말했다. 그는 "두 교황은 다른 인 물이지만 모두 전통을 존중하는 동시 에 중심을 지향한다"고 평가했다. 레 오 교황은 보수층의 전폭적 대변자가 되지 않겠지만 자신만의 가치관에 따 라 교회의 중심을 지키며 사회적 쟁점 에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해석이다.

안유회 객원기자

### 철학으로 신앙에 이성적 근거 부여



이상보다 자연 세계 우선한 아리스토텔레스 사상 도입 가톨릭 교리 만들려고 노력

토마스 아퀴나스의 가톨릭교회가 신 우구스티누스는 신앙만을 주장했다 하는 결론을 이끌었다. 는 차이점이 있다. 아퀴나스가 이성

립된 지적연구를 했고, 이것을 스콜 라 철학의 체계 속에 융화시킨다. 즉 , 스콜라 철학의 목표는 중세 사람들 이 진리라고 믿었던 가톨릭 교리나 기독교 신앙에 '철학'을 이용하여 이 성적인 근거를 부여하고자 했다. 그 들은 앞선 사상가의 저술과 논거를 바로 활용하기보다 이전 사상을 비교 앙과 이성의 조화를 주구했다면, 아 고찰해서 비판적으로 검증한 후에 원

스콜라 철학 시대의 큰 성과이자 다. 을 절충한 것은, 보편논쟁이 제기되 핵심은 '보편논쟁'이라 일컬어지는 면서 믿음만을 강조해서는 안 되고 보편개념의 의미와 실제 존재 여부에 , 이성적 판단으로 성경 내용을 찾는 대한 격렬한 사상 논쟁이었다는 것이 것이 중요하다는 시대적 요구에 따른 다. 즉, 보편을 주장한 플라톤의 이데 것이다. 그는 종래 신학으로부터 독 아 사상과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에

이름을 붙인 '유명론'의 대립이었다 . 인간이라는 보편이 우선이냐? 홍길 동이라는 개별 즉, 보편이란 허구성 의 이름(유명)이 아닌 개별이라는 실 제적인 이름이 우선이냐? 전자는 관 념론으로 흘렀고, 후자는 경험론으 로 흘렀다. 전자는 플라톤으로 대표 되며 종교론자들이 옹호했다. 그들 에게는 이데아라는 개념과 하나님이 나 예수 같은 보편적인 개념이 필요했

요했다. 플라톤의 이데아는 영혼 불 플라톤 철학을 기반으로 그리스도교

의 신학을 만들었지만,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도입하여 가톨릭 교리를 만들려고 했다. 문제 는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 세계를 중 시해서 이상과 본질보다 자연 세계가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신의 섭리와 기적을 부인하는 것처 럼 보였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은 파리대학에서 그의 논리학을 제외 하고, 모두 강의를 금지당하게 된다. 당시에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 의 박식한 지식에 매료되어 있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은 세상은 무 (無)가 아니라, 이미 새로운 재료가 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인간의 '지 있는 세계였으며, 흙이나 물·불·공기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믿음뿐만 아 로 질료와 형상을 만든다고 했으니, 니라, 이성으로 이해시킬 수단이 필 무(無)에서 세상을 신이 창조했다는 기독교사상과는 거리가 있었다. 즉, 멸의 세계로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연법칙의 필연성이 하느님보다 우 위에 놓일 위험이 발생했기에 그리스 지성'과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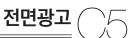
도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경 계하고 금지시킨 것이었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질 료형상론의 자연철학을 따르면서 인 간 혼은 개성을 가진 영체로서 육신 의 체형 또는 형상이 된다고 정의하 였다. 영혼은 죽은 뒤에도 육신과 떨 어져서 단독으로 존재하나 살아있는 동안은 육신과 합하여 완전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했다.

가톨릭에서는 인간의 영혼은 죽 음 이후에도 의식 있는 개별적 존재 성'은 신체의 특별한 기관에 제한되 지 않으므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 더라도 '지성'은 다른 곳에 존재할 수 있음을 암시했다. 아랍의 학자들은 인간의 지성 작용은 절대적인 '우주



#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 악착같은 부동산 베키리

# 셀러의 희소식 ~

집 팔려니 고민되시니요?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 안 쓰시게 하여 제대로 팔아 드립니다. 집 수리 이쁘게 해서 빨리 팔아 드립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약속 드립니다.

# 바이어 희소식 ~

이자가 6%대로 많이 내렸습니다. 이자가 더 내리면 집 값이 더 올라갑니다. 집사실 바이어들은 때를 잘 잡아야 미리 계획을 세우세요. 투자용 주택을 장만해 노후 은퇴 자금으로 활용 하실 분들은 연락주세요. 절대!!! 실패하지 않는 투자 상담 해드립니다.

# 임대 주택 관리

매릴랜드, 디씨 집 관리 힘드시죠. 임대면허증, 카운티 인스팩션, 래드 인스팩션 다 관리해드립니다. 세입자와의 분쟁 해결해드립니다. 임대주택관리 17년 경력의 노하우!

#### **RENT**

**싱글 홈, 스프링필드** (애난데일 부근) 방3, 화2, 즉시 입주

*\$3,600* 

**아파트, 디씨 NW** 하워드 대학부근 아파트 방1,화1 \$1600

\$1,600

#### 급배

급매 페어팩스에서 가장싼 타운하우스 방2+화 1+아담한 뒷마당 챈틸리 as Is 급매

**\$300,000** (임대 \$1,800)

힘든 세입자나, 밀린 랜트비로 고민중이시면 연락주세요.

부동산 매매, 임대주택 리스팅, 임대주택 관리

# 비키리 부동산

전화 703-231-5572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프로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에 앰플러스부동산/탑프라퍼티임대관리회사 DC, 메릴랜드/301-399-0140 H지니아/703-863-0321

#### 부동산 이야기



뉴스타부동산 발렌시아 명예부회장

바이어 마켓에서 집 팔기

### 간단한 리모델링과 스테이징 큰 효과

인스펙션으로 가전기기 교체도 도움

다. 전과 달리 바이어들이 가격을 내려 오퍼 를 할 뿐만 아니라 에스크로 중에도 이것저 것 고쳐 달라고 하면서 가격을 깎아달라 요

부동산 구매 시장에 바이어들의 관심이 시들 해져 셀러들의 마음을 졸이고 있다. Realtor. com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작년 대비 매물이 24.8% 늘었고 팔리는 기간도 6~7일이 늘었 다고 한다. 그럼에도 가격 하락 속에서 바이 어들의 구매욕을 올려 성공적으로 집을 파 는 사례들이 많다. 바이어 마켓에서 집을 잘 팔수있는 팁은 없을까?

첫째, 새집 건축 회사들의 판매 전략들을 벤치 마킹한다. 잘 분양이 되지 않아 완공된 매물이 많아지자, 바이어들에게 소위 'Quick Move-in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 다. 높은 이자율을 낮추기 위해 Buy-down 을 위한 클로징 비용을 수만불 지원한다. HOA를 1년이나 2년 미리 갚아주던가 솔라 패널을 무료로 끼어 넣는 등 대폭 인센티브 를 주고 있다. 이 새집 건축 회사와 경쟁을 하 기 위해서 마케팅 전략으로서 바이 다운 같 은 클로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을 알려 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다. 가령 갈색 캐비닛이 오래되어 바래졌다

2022년 최고점을 찍은 집값이 조정 국면으로 면 요즘 유행하는 흰색으로 페인트를 칠한 들어가면서 작년과 올해 바이어 마켓이 되었 다. 오래된 손잡이를 메탈 손잡이로 바꾸기 만 해도 부엌을 돋보이게 할 수 있다. 또한 카 운터 탑이 오래되어 금이 갔다면 쿼츠 스톤 으로 교체하고 오븐 뒤를 백스플래쉬로 마감 한다면 더 좋은 가격으로 팔 수 있다. 화장실 특히 높은 이자율이 상당 기간 지속되자 의 경우, 코킹을 새로 하거나 시커먼 그라웃 을 벗겨낸 후 새 그라웃으로 바른다. 만약욕 조가 오래되어 색깔이 바랬다면 교체하기보 다는 글레이징을 해서 화장실을 마치 새로 리노베이션한 것처럼 꾸밀 수 있다.

> 셋째, 리스팅을 내놓기 전에 에이전트나 인스펙터로부터 Pre-inspection을 받는다. 프리 인스펙션에서 에어컨이나 지붕 같은 큰 문제가 나온다면 미리 고친다. 집을 보여줄 때 바이어에게 큰 문제들을 고쳤다는 것을 어필해서 잘 관리된 매물임을 상기시킨다.

> 넷째, 집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스테이징을 한다. 바이어가 유리한 지금 시장에서는 스 테이징의 효과가 크다. 만약 스테이징 예산 이 없다면 당장 필요 없는 물건들을 거라지 로 옮긴다. 왜냐하면 스테이징의 기본이 공 간을 우선 넓게 보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 다. 그런 후 각 방마다 컨셉을 갖고 가구 배치 를하면된다.

다섯째, 전문 사진사를 고용하여 다양한 미디어를 만든다. 드론과 포토샵을 이용해서 둘째, 부엌이나 화장실 리노베이션을 한 만든 사진들은 기본이고 3D나 동영상을 만 들어 마케팅을 한다.

#### 부동산 이야기



에스크로 오픈 후 주의 사항

#### 디파짓 입금전 담당자와 '전화 통화' 필요 인스펙션은 반드시 현장에게 함께 진행을

주택매매를 여러 번 해봤다 하더라도 전체적 인 흐름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특히 첫집 구매하시는 분들이라면 알아 두어야 하 는 사항들이다. 에스크로가 오픈 되면 3일 이 내에 EMD(Earnest Money Deposit)라고계 약금을 에스크로에 입금해야 한다. 반드시 에스크로 회사에 직접 송금해야 하는데, 은 행에 가서 송금 전에 꼭 에스크로 담당자하고 전화통화하여 계좌번호를 확인할 것을 추천 한다. 그리고 에스크로는 온라인 계좌이체로 보낸 계약금은 받지 않고 돌려보내기 때문에 은행에 가서 송금해야 한다.

현금구매를 하는 바이어는 해당사항이 없 지만, 은행 대출을 받는 바이어는 대출 승인 전까지는 절대 새로운 크레딧을 만들거나 큰 지출을 만들면 안된다. (안되는 예: 새 차리 스/구매, 가구/가전제품 구매, 크래딧카드 한 도 초과 금지) 이유는 은행의 대출 심사는 에 스크로 클로징 직전까지 재확인하기 때문에 는지 확인해야 한다. 위의 사항들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은행 계좌에 2달이상 입금이 되어 있 지 않은 돈은 진행중인 에스크로 집 구매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출처가 정확하지 않은 돈이나, 현금 디파짓은 하지 않아야 대출받 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집 계약서를 보면 CONTINGENCY 라는 조항들이 있는데, 한 마디로 설명하자면, '바이어를 위한 안전장 치'라고 생각하면 된다.

컨틴젠시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대 으로 오면, 세금 납부해야 한다.

표적인 것으로 INSPECTION(집 상태를 확 인하고 수리요청 가능), APPRAISAL(감정 가), LOAN(대출 승인 문제 발생 시 계약 해지 가능) 등이 있는데, 이 3가지 요소를 바이어 가 셀러에게 모두 REMOVE 해주게 되면, 그 이후에 에스크로를 캔슬 시에, 처음 디파짓한 EMD(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렵다.

집 INSPECTION은 리포트를 이 메일로 받지만 말고, 가능하면 현장에 함께 참여해서 문제를 직접보고 설명을 듣고 질문을 하는 것 이 좋다. 인스펙션 후에 발견된 문제는 셀러에 게 수리요청을 요구할 수 있지만, AS-IS 조건 일 경우 수리 요청이 제한될 수 있다.

셀러는 바이어에게 DISCLOSURE (집에 대한 문서들)를 전달해 주는데, 이중에는 셀 러가 파는 집에 대해서 거주하는 동안 생긴 사고나 문제들이 있다면 최대한 아는 데로 작 성한 서류들에 주목해서 리스트가 숨겨져 있

에스크로가 클로징되면 유틸리티(전기, 수 도, 가스, 인터넷, 쓰레기 수거)등의 명의 변 경을 하는데, 바로 이사해서 들어갈 계획이라 면, 에스크로 클로징 전에 이전신청하면, 이 사 후에 바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우 체국/DMV등에 주소변경도 필수이다. 에스 크로 종료 후에 GRANT DEED(소유권 이 전서류)가 카운티에 등록이 되고, 2~3개월후 에 PROPERTY TAX BILL(재산세)이 우편

인공지능(AI)의 1강 미국과 2강 중국의 로보택시 가 질주하고 있다. 지난해 자율주행 택시 시장 규 모는 미국 80억 달러, 중국 120억 달러에 달했다. 올해는 미국이 다섯 배, 중국이 두 배 성장할 것

은 '0원'이다. 미국은 구글의 웨이모, GM의 크루즈 등이 이 끄는 민간 중심 시장이다. 웨이모는 올해 상반기

캘리포니아에서 운행 220만 건 이상을 기독했다. 중국은 로보택시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선허용, 후규제' 원칙에 따라 바이두의 아폴로고 파는' 제조업에서 '스스로 뛰

으로 예측된다. 'AI 3강'을 자처하는 한국의 시장

를 16개 도시에 투입했다.

웨이모와 재보험사 스위스 리의 공동 연구에 폼으로 전환을 상징한다. 그 따르면, 로보택시는 인간 운전자보다 주행 거리 파급력은 일자리 감소의 충 당 재산 피해 보상 청구 건수가 88%, 부상 관련 격을 상쇄하고도 남는다. 24 의 음주운전도 모른다. 진짜 장벽은 일자리 감소 당긴다. 샌프라시스코에서는 이미 자동차보험료.

#### 이수화의 **마켓 나우**

#### 경쟁국들 로보택시는 질주, 한국은 멈칫

스러운 전환을 감수하고 미래 산업을 잡을 것인 요금이 더 저렴하다. 교통량 감소 효과는 파리의

가, 아니면 미루다가 모두 잃

로보택시는 '말을 만들어 며돈버는말'의서비스플랫

청구 건수는 92% 적었다. 로봇은 졸음운전·부주 시간 운행 로보택시는 자가용 소유의 종말을 앞

다. 하지만 일자리 지키기는 선택지에 없다. 고통 세금·수리비·주차비를 합친 비용보다 로보택시

급진적 도심 차량 억제 정책 보다 크다. 줄어든 주차 공간 한 사회적 비용이다. 은 공원으로 바뀌고, 노인과 자유를 얻는다.

제한 운행으로는 핵심 데이터를 확보할 수 없다. 남은 길은 하나다. 조건부 조기 도입을 통한 신속 한 국산화다. 글로벌 기업의 로보택시를 서울 도 심에 투입하되, 국내 부품·소프트웨어 사용과 데 이터 공유를 의무화해야 한다.

물론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가 할 일은 혁 신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혁신이 연착륙할 활주로를 닦는 것이다. 택시 면허 매입, 감차, 운전 자 재교육과 전직 지원은 로보택시 도입을 막는 협상 카드가 아니라, 미래에 승선하기 위해 필요

'점진적 도입'이라는 뭉툭한 타협안으로 주저 교통약자도 완전한 이동의 하는 사이 한국은 글로벌 플랫폼 산업의 데이터 실험장, 하청기지로 전락할 것이다. 말들이 뛰어 한국은 여전히 '온실속테 다니게 해야 한다. 지금 당장. 로봇말이 달릴 운동 스트베드'에 머물고 있다. 심 장을 여는 결단, 그것이 'AI 3강'이라는 허울이 아 야와 외곽에서만 허용하는 닌 진정한 AI 강국의 증거가 될 것이다.

> 서울대 빅데이터혁신융합대학 연구교수 법무법인 디엘지 AI센터장

# DC건물 | NNN | 창고 | 샤핑센 리스팅 하실 건물주분들 최상의 조건으로 팔아드립니다!

#### Why US?

- 1 미국 3대 상업용 부동산 회사 Marcus & Millichap 의 업무경험을 통해 차별화된 마케팅전략들이 있습니다.
- •30.000+바이어 / 브러커 Data Base 보유
- Offering Memorandum, YouTube 제작 •CoStar, LoopNet Premium 리스팅 광고
- 건물주의 이익과 직결되는 NATIONAL 테넌트를 2 <sup>신골구</sup> 찾아드립니다

- 상업용 부동산 리스팅 전문업체 CoStar가 선정한 TOP POWER BROKER. 팀 플레이를 통해 비교할 수 없는 능력으로 최상의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 DC건물 테넌트와 TOPA (Tenant Opportunity to Purchase Act) 거래 전문, ┸ 개발업자와의 연계로 최상의조건으로 팔아드립니다.
- 🧲 현재 리타이어를 준비하시는 사장님들! 프렌차이즈, 도매, 호텔, 카와시, 🤰 코인런드리.리커 비지니스 / 건물 매매 케빈신과 은퇴를 설계하세요.
- FULL SERVICE FOR REDUCED FEES! 브로커에게 주는 커미션에 대한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 20년 경력의 남보다 2배 더 뛰는 케빈신!

- •CoStar 선정 TOP POWER BROKER
- Broker Licensed DC, VA, MD
- Marcus & Millichap 근무경력 / NNN Investment
- •Shopping Center 투자 / Property Management 경력
- ICSC Member Internationa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703-395-3123





MARYLAND • VIRGINIA • TIDEWATER • RICHMOND

# 2026 메디케어 등록안내

메디케어 플랜 변경기간 2025년10월 15일 ~ 12월 7일

2026년에는 가지고 계신 메디케어 어드벤티지(Part C)와 약보험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꼭 비교해 보세요!

상담 예약 703-973-5900

#### 애난데일 지점

7003 Evergreen Ct., Annandale, VA 22003

#### 센터빌 지점

14631 Route 29, #214, Centreville, VA 20121

#### 엘리콧시티 지점

3277 Pine Orchard Ln., #2 Ellicott City, MD 21042







오향제 703-973-5900



Jenny Oh 703-642-0305



Elizabeth Kim 703-642-7578



Jennifer Chung 800-232-5014



Michelle Kim 703-337-0910



Melissa Kang 410-216-1553

매주 토요일 무료상담합니다 (예약에 한함)

엘리콧시티 롯데플라자 내 만남의 장소 매주 토요일 9AM~4PM 8801 Baltimore National Pike, Ellicott City, MD 210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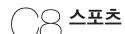
27년의 경험과 실력

7003 Evergreen Ct., Annandale, VA 22003

**Fairfax** 

Fairfax Richmond Ellicott City Tidewater/Newport (703) 642-0305 (804) 767-3714 (410) 216-1553 (757) 941-7216

Tidewater/Newport News



## 올해 월드시리즈는 괴물들 대결

#### 오타니, 다저스 투타의 핵심 게레로, 블루제이스 공격 주도 '2연패' vs '32년만에 우승' 관심

메이저리그(MLB)의 왕중왕을 가리는 월드시리즈(WS·7전4승제) 대진표가 마침내 완성됐다. 조지 스프링어(36)의 극적인 역전 3점홈런을 앞세워 32년 만 의 WS 진출을 확정한 토론토 블루제 이스와 지난해 WS 우승팀 LA 다저스 가 최후의 맞대결을 벌인다.

토론토는 20일 캐나다 토론토의 로 저스센터에서 열린 아메리칸리그 챔피 언십시리즈(ALCS·7전4승제) 7차전에 서 시애틀 매리너스를 4-3으로 물리쳤 다. 경기 후반까지 1-3으로 뒤졌지만, 7 회말 스프링어가 좌월 3점포를 터뜨려 역전승을 일궜다. 이로써 토론토는 이 번 시리즈를 4승 3패로 장식하고 WS 행 티켓을 끊었다.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 (NLCS·7전4승제)를 4전 전승으로 돌 파한 다저스가 기다리는 WS 1차전은 24일 로저스센터에서 열린다. 토론토 의 올 시즌 승률은 0.580으로 다저스 의 0.574보다 높아 토론토가 안방에서 1·2·6·7차전을 치른다. 토론토와 다저스 의 WS 격돌은 이번이 처음이다.

1977년 창단한 토론토는 1992년과 1993년 WS 2연패를 달성하며 전성기 를 달렸다. 미국 본토 연고는 아니지만, 블라디미르 게레로와 로이 할러데이, 버논 웰스 등의 정상급 선수들을 배출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MVP 트로피를 들고 있는 쇼헤이 오타니. [Jayne Kamin-Oncea-Imagn Images·로이터]

하며 높은 인기를 끌었다.

다저스는 MLB를 대표하는 전통의 명문 구단이다. 1884년 브루클린 다저 스라는 이름으로 창단해 1955년 WS 우승을 처음 차지했고, 1958년 LA로 안방을 옮긴 뒤로는 7차례나 더 우승 했다. 재키 로빈슨과 샌디 쿠팩스, 오렐 허샤이저 등 전설적인 스타들도 많다.

토론토와 다저스는 한인 야구팬들 에게도 친숙한 구단이다. 과거 토론토 에선 오승환과 류현진이 활약했다. 한

인 사회가 뿌리 깊은 LA 연고의 다저 스는 박찬호를 비롯해 최희섭, 서재응, 류현진이 거쳐 갔다. 올해부터는 김혜 성이 KBO리그에서 이적해 백업 내야 수로 뛰고 있다.

대진표가 확정된 올해 WS는 괴물 들의 맞대결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토 론토의 핵심 타자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와 다저스의 투수 겸 타자 오타 니 쇼헤이다. 오타니가 LA 에인절스에 서 뛰던 2021년 아메리칸리그 최우수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MVP를 받은 블라디미르 케레로 주니어. [John E. Sokolowski-Imagn Images·로이터]

선수(MVP)를 놓고 다퉜던 둘은 WS 우승 트로피를 놓고 격돌한다.

토론토의 전설적인 타자 게레로의 아들인 게레로 주니어는 이번 포스트 시즌에서 아무도 말리지 못하는 맹타 를 휘두르고 있다. 11경기 성적은 타 율 0.442(43타수 19안타) 6홈런 12타 점 11득점. 특히 ALCS에서 7경기 타 율 0.385(26타수 10안타) 3홈런 3타점 6득점을 기록해 MVP까지 수상했다. ALCS 우승 직후 뜨거운 눈물을 흘린

게레로 주니어는 "이제 4승이 남았다" 며 우승의지를 불태웠다.

21세기 최초의 WS 2연패를 노리는 다저스에는 오타니가 있다. 지난 18일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NLCS 4차전에 서 선발투수로 6이닝 2피안타 3볼넷 10 탈삼진 무실점으로 역투했다. 또, 1번 타자로서 3타수 3안타(3홈런) 3타점 3 득점으로 맹활약하며 야구 역사를 새 로썼다.

고봉준 기자

### 한국 여자골프 국가 대항전 우승 도전

#### 한화 크라운 23일 개막

한국 여자골프가 안방에서 국가대항 전 한화 라이프플러스 인터내셔널 크 라운(총상금 200만달러) 정상 탈환 도 개 나라가 출전했으나 올해는 한국과 전에 나선다.

올해 인터내셔널 크라운은 23일부 터 26일까지 경기도 고양의 뉴코리아 컨트리클럽(파72·6542야드)에서 개최 된다.

2014년 창설돼 올해가 5회째인 인터 내셔널 크라운은 선수 4명씩으로 구성 된 8개 팀이 출전해 여자골프 최강국 을가리는 대회다.

2014년 스페인이 초대 챔피언에 올 랐고, 2016년 미국, 2018년 한국, 2023년 태국이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인터내셔널 크라운에는 이전까지 8 미국, 일본, 호주, 태국, 스웨덴, 중국 7 개 나라에 '월드팀'이 참가해 경쟁을 펼

한국은 김효주와 유해란, 고진영, 최 혜진으로 대표팀을 꾸렸다.

이번 시즌 LPGA 투어에서 유일하 게 2승을 거두며 세계랭킹 1위를 달리 는 지노 티띠꾼은 2연패를 노리는 태

위 넬리 코르다가 부상으로 기권한 미 국의 선수로는 에인절 인, 로런 코글린, 릴리아부, 노예림이 나선다.

최근 LPGA 투어에서 강세를 보이 는 일본에서는 야마시타 미유, 다케다 리오, 사이고 마오, 후루에 아야카가

호주 팀에는 이민지와 그레이스 김 이 포함됐다. 월드팀은 리디아 고(뉴질 랜드), 찰리 헐(잉글랜드), 브룩 헨더슨 (캐나다), 슈웨이링(대만)으로 구성됐 다.

한국은 일본, 스웨덴, 월드팀과 B조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MVP 트로피를 들고 있는 쇼헤이 오타니. [Jayne Kamin-Oncea-Imagn Images·로이터]

일 월드팀, 조별리그 마지막 날인 25일 주, 태국, 중국이 포함됐다. 국을 이끌고 대회에 참가한다. 세계 2 에 편성돼 대회 첫날인 23일 스웨덴, 24 엔 일본과 격돌한다. A조엔 미국과 호

우승팀에는 상금 50만달러를 준다.















렌트 매니지먼트 해 드립니다. >>>>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On occasion; 가끔식

(Teresa and her Mom are at the animal rescue shelter ···) (터리서와 엄마가 동물구조보호소에서 …)

Teresa: Mom look at those cute puppies. 터리서: 엄마 저기 귀여운 강아지들 좀 보세요. Mom: They are adorable.

엄마: 정말 예쁘구나.

Teresa: Could I get one for my birthday? 터리서: 생일 선물로 한 마리 데려가도 되요?

Mom: It's a big responsibility. Do you think you can

엄마: 개키우는 건 큰 책임이 따르는 거야. 잘 키 Mom: On occasion but I'm very busy every day.

울수있을것같아?

Teresa: I'll take good care of it I promise. 터리서: 잘키울게요. 약속해요.

Mom: If you don't then we'll have to give it away. 엄마: 그렇게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밖에 없

Teresa: You mean you won't help me? 터리서: 저 안 도와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잖니.

Teresa: Which one should I take? 터리서: 어떤 것으로 데려갈까요?

Mom: You decide. It's your puppy. 엄마: 네가 결정해라. 네 강아지니까.

#### 기억할만한 표현

▶ handle it (or something): 처리하다 다루다.

엄마: 가끔은 도와주겠지만 나도 매일 너무 바쁘 "He handled the children's problem in a few minutes."

(그는 아이들 문제를 금새 처리했어요.)

▶ take (good) care of (someone or something): (잘) 보살피다 관리하다.

"She isn't taking care of her car very well." (그녀는 차를 그렇게 잘 관리하지 못해요.)

▶ give (something or it) away: 버리다 내주다. (혹 은 give away something)

#### 낱말퀴즈

1			2		3		4	
		5			6			
7	8			П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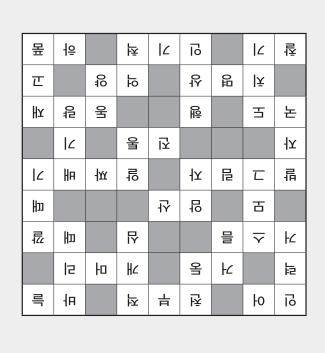
#### 가로열쇠

(1)상반신은 사람과 같고 하반신은 물고기와 같 죠 (2)태어날 때부터 지닌 것. 그 사람은 음악에 ~ 재능을 지녔다 (4)이것 가는 데 실 가고, 이것 도둑이 소도둑 되죠 (5)임금의 나들이. 모처럼 능참봉을 하니까 한 달에 ~이 스물이홉 번 (6)총 의 아랫부분 (7)거슬러 주거나 받는 돈 (9)눈에 선뜻 드러나 비치는 맵시나 빛깔. 먹고 죽은 귀 신이 ~도 곱다 (11) 머릿속으로 계산함 (12)찾아 가거나 찾아오는 일. 싸우고 난 뒤에 우리 가게 에 ~도 비치지 않는다. ㅁㅁ림ㅁ (13)여럿 가운 데 가장 중요하거나 훌륭한 물건. 그렇게 ~만 골 라 가시면 어떻게 해요?. ㅁ짜ㅁㅁ (15)해산할 때에 반복되는 배의 통증 (16)나라에서 직접 관 리하는 도로 (19)기둥과 들보로 쓸 만한 재목. 집안이나 나라를 떠받치는 중대한 일을 맡을 만 한 인재 (21)목숨이 위험할 정도의 큰 상처 (22) 말의 높낮이. 그의 발음에는 평안도 쪽 ~이 섞여 있었다 (23)음식 따위의 끈기 있는 성질. 밥이 ~ 가 있고 윤기가 난다 (24)사람이 있음을 알 수 있 게 하는 소리나 기색 (25) 졸리거나 배부를 때 입 을 크게 벌리고 하죠

#### 세로열쇠

(1)사람을 태우고 사람이 끄는, 바퀴가 두 개 달 린 수레 (2)우르르 쾅 소리가 들리고 하늘에 번 쩍 번개가 치죠 (3)적에 대하여 느끼는 분노와 증오 (4)절에서 쓰는 승려의 공양 그릇. 나무나 놋쇠 따위로 대접처럼 만들어 안팎에 칠을 한다 (5)식물이 잘 자라도록 땅에 주죠. 두엄 (8)대기 속의 오염물질이 안개 모양의 기체가 된 것. 영 어의 smoke(연기)와 fog(안개)의 합성어이죠 (10)병에 액체를 붓는 데 쓰는 나팔 모양의 기구 (11)큰 절에 딸린 작은 절 (12)발로 밟은 자리에 남은 모양 (13)근육이 단단하게 불룩 나온 부분. 그는 셔츠를 걷어붙이고 왼쪽 팔의 ~을 자랑스 레 보여 주었다 (14)실린더 안의 피스톤이 한 번 의 운동으로 밀어 내는 기체의 부피. ~ 6000cc 최고속도 300km/h 최신형 순찰차 (17)인색하고 인정이 없는 사람 (18)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물건 을 파는 사람 (19)아시아의 동부 및 남부. 한국, 중국, 일본, 인도, 미얀마, 타이, 인도네시아 등 이 있다. ↔서양 (20)팔다가 남아서 창고에 쌓아 놓은 물건 (22)몹시 모질고 끈덕진 사람. 그녀는 ~으로 돈을 모았다

#### 스도쿠



		5	7				6	
2						7		1
					6			2
4	6	9		1				
	3	7		6				
				3			4	6
3				8	9			4
			6	7	1		5	
6						9	7	

c	a		J
	Г	г	٦
	þ	ì	d

자료제공=올드독 (www.gobook2.com)

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 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아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 어 넣어야 합니다.

80	L	6	2	Þ	3	ŀ	S	9
3	S	2	L	L	9	Þ	8	6
7	L	9	6	8	S	2	L	3
9	Þ	ı	L	3	6	8	S	S
S	6	8	Þ	9	2	L	3	L
L	2	3	S	ı	8	6	9	r
7	8	S	9	6	L	3	Þ	L
L	3	L	8	S	Þ	9	6	2
6	9	Þ	3	7	L	S	L	8

###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 ① 위싱틴 중앙일보

### 1년 정기 구독료 \$150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가 \$150(선납)으로 2024년 7월 1일 부터 조정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월 \$2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Ŗ.		Unice of the Con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Home						
i	(Phone #)	Cell						
i	<b>주독료</b>	지불방법 Check Bill Credit Card 1년 선납 \$150						
	(Subscription Fee)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Card Info	카드종류 VISA Master Amex Discovery <sub>카드륏먼 3자리</sub> 카드 번호 EXP. DATE: / CVS: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į	20 년	월 일 서명(sign):						
т.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SPECIALS FROM JEONBUK STATE JIF STANDED TO BE DE LE CONTROL DE LE CONTRO



# 트 별자치도 트 프 **JEONBUK STATE**

맛의 본고장 전북특별자치도의 다양한 상품을 H Mart에서 만나보세요! Save on flavors from the "Foodie Capital", Jeonbuk State,

Only at H Mart. **OCT. 24th - NOV. 6th, 2025** 



**Namwon Chueotang** 남원 추어탕 17,63 OZ

\$9.99



###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WART

#### **VIRGINIA**

FAIRFAX ANNANDALE CENTREVILLE FALLS CHURCH MANASSAS BURKE **HERNDON** 

1120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7885 HERITAGE DRIVE, ANNANDALE, VA 22003 13818 BRADDOCK ROAD, CENTREVILLE, VA 20121 8103 LEE HIGHWAY, FALLS CHURCH, VA 22042 8819 CENTREVILLE ROAD, MANASSAS, VA 20110 9550 BURKE ROAD, BURKE, VA 22015 1228 ELDEN ST., HERNDON, VA 20170

#### **MARYLAND**

CATONSVILLE GAITHERSBURG WHEATON FREDERICK **ELLICOTT CITY** 

800 NORTH ROLLING RD., CATONSVILLE, MD 21228 9639 LOST KNIFE RD., GAITHERSBURG, MD 20877 12015 GEORGIA AVE., WHEATON, MD 20902 1063 W. PATRICK ST., FREDERICK, MD 21702 3301 NORTH RIDGE RD., ELLICOTT CITY, MD 21043 www.hyebanmd.com

KOREAN BBO

# HYEBAN



한국식BBQ구이전통한식

# 런치 스페셜 뷔퍼

(월 ~ 일: 11AM ~ 3PM)

\*Last Seating: 2PM 까지

# 칼국수 신메뉴 출시!



시원한 국물, 쫄깃한 면발을 뷔페에서 무제한으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記している

정통 한식 구이의 불맛과 신선함이 만나는 곳, 엘리콧시티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소, "혜반(HYEBAN)"에서 완벽한 점심을 즐기세요!

> 월, 화, 목, 일 수요일

> > 금, 토

오전 11시 ~ 오후 10시 정기 휴무 / CLOSED 오전 11시 ~ 오후 11시







**443.420.3096** 

HyeBan23@gmail.com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7, Ellicott City, MD 21042

구 인 홀 서버 (Hall Server)



사업의 성공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① 위성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T. 703-281-9660** 

열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지원 모집



- ▶ 풀타임 & 파트타임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이중언어 우대
- ▶무경험자 환영
- ◆ 이력서 보내실 곳: carefreeland@gmail.com

구

<u>인</u>

광

ı

파리바게뜨베데스타 Paris Baguette Bethesda

경험있는 제빵사, 케이크 데코분들 모십니다

301,312,2328

Ackfandb@gmail.com

###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 구인

Home Improvement 에서 함께 일하실

원도우·도어 경력자 구함 합법 신분자



703.944.8433

#### **WWBS**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즈I우I 디즈**I

WBS Processing과 tech support 부서에서 함께 일하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모바일 앱과 POS 영업에 관심있는 직원도 모집합니다. 업계 최고대우 보장

관련 업무 경험자 우대하며, 체계적인 교육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 703-225-5500 hr@worldbankcard.net

### SD Mechanical 테크니션 직원 모집

대형 슈퍼마켓 냉장 · 냉동

서비스 & 설치 전문 회사

서비스 지역

VA - MD - DC

유경험자 또는 관심 있으신 분

703,447,4683

sdmechanical.office@gmail.com

왕 제일 부동산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sup>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sup> 상가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 🗓

571-239-6054

# 72

뷰티케어 브랜드 회사

마케팅 세일즈 직원 모집

- 영어/한국어 가능
- 출장 업무 필수
- 운전 경력 풍부하신 분
- 취업에 결격 사유 없으신 분
- 근무지: Rockville, MD / 타주 가능

이력서: RnRniacct@gmail.com

301.468.8949

www.onnaturalusa.com

급아

Korean BBQ & Hot Pot 게이더스버그, MD

최적의 위치 140석 이상, 3,000sf 규모 저렴한 렌트 매매가격 Only \$280.000

최근에 새로 지어서 리모델링 비용절감

240-988-6868

### 확실한 순익보장 델리

DC SW 매매가 32만불 (cash only)

- 연간 수익 15만불이상 (주매상 만불)
- 수월한 운영 (키오스크 시스템) ■ 저렴하 레트비 (\$2700/원)
- 저렴한 렌트비 (\$2700/월)
- 오랜 경험의 믿을만한 직원 2명
- ●주 5일 (6am ~ 3pm)
- ●공실위험 없는 건물

703\_300\_7207(텍스트) 관심있는 분만 연락주세요

정문기 · 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브리지원 보험 (BridgeOne Insurance)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

리셉션리스트 구함

© Chantilly, VA 지역

◎ 이중언어 필수

◎ 근무시간 조정 가능 (풀타임)

◎ 인터뷰 후 급여 조정 가능

703\_622\_7737 accounting@lbuniversa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위싱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택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703-281-9660

구인 / 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경우이메일주시기 바랍니다.)

### 메릴랜드지역

#### 구인/사무/직원모집

뷰티케어 브랜드 회사 직원 모집 마케팅세일즈분야, 영어/한국어가능 출장업무필수,운전경력풍부하신분 취업에 결격 사유 없으신분 근무지: Rockville, MD / 타주 가능 이력서: RnRniacct@gmail.com 문의: 301-468-8949

콜롬비아복지센터에서 함께일하실직원을 모집합니다.

RN 간호사, 운전 기사(옴니 거주 환영) 주방보조

**►**443-691-7968

BridgeOne Insurance MD 보험에이젼트구함,사무실제공,유/무경 험자가능

▶703-598-3316, 703-862-5395

H-Mart 메릴랜드직원모집 모집부서:인사,자산,영업,물류 근무지: Upper Marlboro MD 베네핏: 401K, 유급병가/휴가, 보험등 자격요권:합법적근무조건소유자 지원방법: https://www.hmart.com/ about-us/careers/job-openings ▶문의전화: 201-554-6047

실버스프링에 위치한 종합보험 에이젼트에 서함께일하실이중언어(영어또는스패니 쉬)가능한유,무경험자구합니다. albert@wk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메릴랜드주로크빌에 있는 병원에서 리셉셔 니스트와직원을 구합니다. 영주권스폰가능/월요일-금요일정규직 & 파트타임/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해 야합니다. 이력서를 LaurenKim@gmail. com으로보내거나

▶301-275-2357로 전화하세요.

락빌 롯데플라자 마켓에서 함께 일하실 전산 아이템코디네이터를구합니다.

▶301-417-8678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주방보조(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 P: 301-942-5071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 / 간호사(RN)

-건강보험 -좋은조건의연봉과베네핏

-유급휴일과유급병가 ▶443-828-7777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 지사약간명, 리셉셔니스트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 세탁소/이미용/기타

PG 카운티 리쿼스토어 라러리스탁하실분 2-9pm 일하실분구함(금,토포함) 301-336-2500

메릴랜드 라이센스 소지하신 마사지 세라피 스트구합니다.

240-232-5989

홈 인프루브먼트 회사에서 함께 일하실 윈도 우,도어경력자구합니다. 합법적 신분자에 한함 703-944-8433

토요핸디맨구합니다.(전기,목수,타일,배 관, 창문, 마루, 페인트) 443-994-3415 (문자 요망)

엘리콧시티 혜반 한국 식당에서 홀서버 하실 분구합니다.

▶443-420-3096

영어가능한델리매니저구합니다. DCSW(월-금,6am-3pm) 703-300-7207 (문자)

19개월 남자 아기 돌봐주실분 구합니다. 입주가능 또는 출퇴근(풀& 파타임) 410-961-3012

파리바게뜨 베데스다에서 경험있는 제빵사 나케익데코분들모십니다. 301-312-2328

Ackfandb@gmail.com

비숙련 영주권 프로그램 변호사가운영. 널싱홈. 나이, 학력, 경력, 성 별무관,직계가족도영주권혜택 웹사이트:useb3.com

문의 이메일:admin@eb3recruit.com 전화: 571-546-8683

SD MECHANICAL 테크니션모집 대형슈퍼마켓 냉장냉동서비스와 설치전문 회사로 냉장냉동쪽에 경험 있으신분이나관 심있으신분지원부탁드립니다 서비스지역 VA, MD, DC

메일: Sdmechanical.office@gmail.com 전화: 703-447-4683

엘리곳시티 세탁소 바느질 유경험자 구함 풀&파타임, 배깅만하실분도구합니다.

파사데나지역비빔밥캐리아웃같이일 하실분구합니다. 남녀모두 환영 443-991-9331

410-926-3200

### 싱글/타운방렌트

메릴랜드뉴그랜드마트근처싱글홈 2층욕실딸린큰방,주방,가구,인터넷완비 301-533-1438

메릴랜드 저먼타운 타운하우스 전체 렌트 방3,화3.5,10월1일부터입주가능 301-219-6030 (문자요망)

메릴랜드 하워드 카운티 반지하 전체 렌트 방2,부엌,욕실,세탁실,출입문별도,롯데에 서 15분 거리 443-797-7293

실버스프링 루트 200, 95, 495 근처, 싱글홈 방하나 렌트 합니다.

301-962-0728 / 240-997-3168

메릴랜드 그린벨트 지역, 조용하고 교통편리 타운하운스 방하나 렌트, 즉시 입주 가능, 방세저렴

301-379-9660

495와95번이만나는첫번째EXIT.메릴랜 드대학가까운싱글홈이층방렌트,즉시입 주가능

301-385-3535 (문자 요망)

메릴랜드실버스프링싱글홈 1층 전체 렌트, 방 2, 화장실 1, 주방, 세탁기, 건조기, 출입문 별도, 교통 편리, 즉시 입주 가능 301-646-3127

메릴랜드 한오버이층방&베이스먼트 방렌 트합니다. 여자분 환영 410-917-1262

#### 사업체 매매

확실한순익보장델리매매 DCSW 매매가 32만불(cash only) 연간수익15만불이상(주매상만불) 수월한운영(키오스크시스템),저렴한렌트 비, 오랜경험의 믿을 만한 직원, 공실 위험 없 는건물,주5일(6am-3pm) 꼭관심 있는 분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703-300-7207(문자)

Korean BBQ & Hot Pot 급매 \$280,000 메릴랜드게이더스버그, 최적의 위치, 140석 이상, 3000 sqft, 저렴한 렌트비, 최근 새로 지은곳으로 리모 델링비 절감할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분

연락주세요. 240-988-6868

### 버지니아 지역

#### 구인/사무/직원모집

애난데일 회계 사무실 직원 모집 매니져/시니어 어카운턴트 회계사자격증소지자 문의: 571-389-4415 이력서: hr@yicompany.com

간호사모집RN,LPN(풀타임,파트타임) 재택근무, 처우는 별도 협의

▶703-507-2492 (Mr. Bae)

ANNANDALE, VA 공인회계사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모십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우대, 무 경험자도

Benefit (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등)

있으며, 영주권스펀서 가능 Email: wjkim0111@gmail.com

BridgeOne Insurance 보험에이젼트구함 사무실제공,유/무경험자가능,VA&MD ▶703-598-3316, 703-862-5395

WBS Processing과 Tech support 부서에

서 함께 일하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관련업무경험자우대하며,체 계적인교육과안정적인근무환경을제공합 니다. 모바일 앱과 POS 영업에 관심있는 직원도

모집합니다. 업계 최고 대우보장 문의:703-225-5500 이메일지원:hr@worldbankcard.net 많은 지원 바랍니다.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어카운트보실분구함.유경험자우대 703-507-2020

애난데일에 있는 변호사사무실에서 사무보 조원을 구합니다. Full / Part time 가능, 기본적인 영어와 사무

실에서 일한 경력 환영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sjshin.esq@gmail.com

리셉셔니스트(이중언어필수)를모십니다 장소: Chantilly, VA 20151 시간:조정가능(풀타임) 급여:인터뷰후조정가능 전화문의:703-622-7737

Email: accounting@lbuniversal.com

하이트론스(Hitrons) 버지니아센터빌지점 Full time & Part time 세일 담당모집 가전제품 및 마사지체어, 매트리스 전문 매 장에서 함께 일하실분을 급구합니다 ▶201-417-5350

애난데일위치,이민법사무실,I-140파일, 패러리걸(법률보조원) 구합니다. 이력서: Heajinjung@eb3recruit.com

러브핸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모집분야: Accounting, 간호사 (RN, LPN), Case Coordinator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 능, 자격증소지자

-근무혜택: 건강보험/IRA 혜택제공, 유급휴가제공/경력자우대함 -지원및문의: HR 담당

▶703-657-0944 / E-mail: admin1@ lovehandhomehealth.com

센터빌지역 덴탈랩 CAD/CAM, ZIRCONIA 원스텝 기술자 구합니다. 571-229-0387

홈케어(센터빌)업무팀직원구함 유경험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hr@firsthco.com ▶571-549-6789

김서규 공인 회계사무실에서 회계업무 전공 자나 경력있으신분 구합니다.

▶Resume: skim@skimcpa.com

보험회사사무직 Annandale/Ellicott city 지역근무시간8시-5시(월-금) 401(K), 치과보험, 유급휴가 \$25.00/hr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CUSTOMER SERVICE 직원구합니다.

-경력자우대

-오후근무가능하신분

이력서 보내주세요.

▶연락처 703-712-7089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타임/파트타임/일요일 판매 경험자우대 ▶문의: 571-348-3723

Fairfax 풀/파타임이중언어 사무직유경험40k-50k베네핏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탑 여행사 버스투어 가이드 구함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할곳:ceo@toptravelusa.com ▶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홈케어 에이전시 구인 애난데일사무 및 리셉션 직원구함 홈케어 또는 보험등 유경험자 우대 이력서: hr@firsthco.com

전화: 571-549-6789

센터빌,챈틀리지역물리치료병원에서 한국어/영어가능한 Receiptionist 구함 이력서: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트 월/화/목/금, 영어가능자 Entery-Level Welcome

▶ Resume to:naturadent@gmail.com

급구,센터빌/챈틀리지역 임플란트전문치과풀/파타임 유경력 어씨/리셉션 환영 이력서첨부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스톤/타이슨스) 경험자우대, Dentrix Plus Full/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 식당/식품

영어가능한델리매니저구합니다. DCSW(월-금,6am-3pm) 703-300-7207 (문자)

Hashi Sushi 일식당에서 서버, 어시스턴트 매니져구합니다. 영어필수,경험자페이우대 703-628-9168 (문자)

파리바게뜨 베데스다에서 경험있는 제빵사 나케익 데코분들 모십니다. 301-312-2328

Ackfandb@gmail.com

프레데릭스버그 일식당에서 일하실 히바찌 쉐프구합니다. 703-258-4356

에난데일일본라면가게에서 파타임홀직원 구함.유/무경험자환영 703-338-3037

에난데일치맥에서 Server구합니다. 학생 환영 571-352-4938(문자) 또는

Chimc.va@gmail.com 엘리콧시티 혜반 한국 식당에서 하기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식주방,쿡(숙소제공가능) ▶443-420-3096

애난데일에 새로 오픈하는 분식점에서 주방

703-401-9997 Dumfries 컨비니언스토어RT 1 & 234 야간근무가능하신분(11PM-7AM)

헬퍼해주실분, 파타임 카운터 케쉬어 구함

H-Mart Herndon 직원 모집

703-291-7174/703-774-7443

나이불문, 남자분 환영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척추신경전문의

교통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lounge.com

#### 진료 과목

•임플란트 •신경치료

•충치치료 •전체/부분 틀니

•교정 ●발치 •일반치과 •미용치과

•잇몸치료 •크라운 •임플란트 틀니 •응급환자

진료 시간 월 ~ 금: 8 AM ~ 5 PM 수요일: CLOSED

571-339-3628 571-339-3682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 JJ Watch & Jewelry www.jjwatchusa.com **페어옥스 몰 안**에 있는

JJ Watch & Jewelry Shop에서 **파트 타임**으로 일하실 분을 모십니다. **캐시어** 하시면서 기술 배우실 분 환영합니다.



703.691.1993

#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bigcirc 14$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료광고내용보내실곳:kdclass2018@gmail.com(게재중지를원하실경우이메일주시기바랍니다.)

2025년 10월 23일 목요일 **중앙일보**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우대 매니저: 임희상이사

**▶**571-839-1647

H -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우대 매니저: 조성수 점장

▶703-573-6300

롯데프라자 스털링점 구인 푸드코트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연락처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점보인터내셔널수퍼마켓 정육부매니저1명, 그로서리매니저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주세요. 풀타임, 파트타임 ▶571-991-4172

#### 이미용

매나사스파크 바버샵에서 함께 일하실 바버를 모십니다 일주일에 3,4일 일하실분 703-473-9771

#### 세탁/얼터레이션

알렉산드리아테일러샵에서 바느질하실분 모십니다. 3일파타임가능하신분 703-328-3064

비엔나지역세탁소에서 파타임으로 일하실 분을 모십니다.

-카운터캐시어, 유틸리티워커 (영어가능자)

7am-3:30pm(월, 화, 목, 금) 4pm-7:00pm(월-토) 유경험자우대, 무경험자트레이닝 703-499-7050

세탁소 픽업스토어에서 카운터 보실분 경험자우대, DC 전철역옆 240-644-4190

#### 자동차 /정비/바디샵

폴스쳐치 지역자동차정비소에서 메케닉 유경험자구합니다. 첫째/셋째토요일휴무 571-332-6110

엘리곳시티자동차정비소에서 메케닉 기술 자 구함

410-446-9981

#### 기타구인

홈 인프루브먼트 회사에서 함께 일하실 윈도우, 도어 경력자구합니다. 합법적신분자에 한함 703-944-8433

토요핸디맨구합니다.(전기,목수,타일,배관,창문,마루,페인트) 443-994-3415 (문자 요망) 19개월남자아기돌봐주실분구합니다. 입주가능또는출퇴근(풀&파타임) 410-961-3012

No.1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센터빌) ▶571-591-4455

### 싱글/타운홈 렌트

GMU 대학체육관 뒤 조용한 싱글홈 전체 렌 트합니다. (웃슨 하이스쿨 학군) 방4, 화2.5, 차고2 703-350-2278

스프링필드싱글홈(애난데일부근) 방3,화2,즉시입주가능\$3,600 ▶703-231-5572

우드브릿지 3 Levels Townhouse렌트 \$2,400, 방3, 화장실3.5, 업그레이된지붕, 창문, HVAC, 탁트인넓은 부엌, 2 Master Suit Bedroom(윗층), 펜스 있는 뒷마당, 감 나무가 있는 앞마당, 교통편리, 밝은 타운하 우스,즉시 입주가능 703-477-3114

페어팩스타운하우스 \$3,000 로빈슨하이스쿨근처1,496sqft 전체렌트 방3,화3.5,11/5일부터입주가능 703-470-1736 / 703-470-7066

애난데일에서 5분거리 싱글홈 윗층(아랫층 과완전분리)렌트합니다. 방3,풀화장실,리빙룸,큰덱,큰창고,차고2 개,넓은 뒷마당,395/495/95 3분거리 703-508-5405 (Julia Jin)

애쉬번타운하우스렌트 \$3,300 전체마루,차고2,덱,267/607 Briar Woods 하이스쿨학군

**▶**571-239-6054

페어팩스비엔나역타운하우스렌트 2100 sqft, 방4, 화3.5, 워크아웃베이스먼 트\$3,200

470-485-1875

1. 페어팩스 타운홈 \$3,300 방3,화2.5,차고1,End Unit, 편리한로케이 션, 잘관리된집

2.센터빌타운홈\$3,000 방3,화2.5,차고1,EndUnit,업그레이드많 이함,굿로케이션

3. 스프링필드 타운홈 \$3,000 방2, 화2.5, 2 assigned 주차, 밝고 환한집, 업그레이드 많이 함, 교통 편리

**▶**703-919-0472

패어팩스Costco뒤타운하우스렌트 \$3,900방3/화3/차고2,최고학군, 29/50/66/286최고로케이션

▶571-239-6054

1.센터빌Fair Crest 타운홈렌트 \$3,500 방3,화3.5,2car garage, 긴드라이브 웨이, 주차다수, 콜린파웰초, route 50/66/28/29 2.Lorton 타운홈 \$3,300

2. Lorton 타운홈 \$3,300 방3,화3.5,2car,전부마루,주차다수 SouthCounty 하이,RT95/395/286/123 ▶571-239-6054

콘도렌트

센터빌롯데 근처 콘도전체 렌트합니다.

방2,화2.5,교통편리,즉시입주가능 \$2,180

301-466-1646

애난데일콘도\$1,500

방1,화장실1,고급스런 나무마루,탁트인 넓은콘도,업데이트된부엌,계단없는 1층 나무가보이는 넓은 발코니,즉시 입주가능 703-477-3114

알렉산드리아콘도 \$2,600 방2,화장실1,1,105 SF 넓은콘도, 13층으로 탁트인조망,엘리베이터, \$100,000 가량수리하고업데이트한모델 하우스같은콘도,넓은새 창문,최고급스런 부엌,넓은리빙룸,리모델한화장실,새페인 트,즉시입주가능 703-477-3114

매나사스콘도 \$1,700 방1,화장실1,엔드 유닛 880 sf, 넓고 밝은 콘도,세탁기,건조기,새 화장실,나무 마루 거실,새 페인트, 넓은 발코니,코스트코에서 1분거리,즉시 입주가능 703-477-3114

애난데일 H 마트 근처 콘도 전체 렌트 방1,화1,주차 2,완전 리모델링,모든 가전 제품 새것,즉시 입주 가능 703-268-8669 (문자요망)

헌돈 새 콘도렌트\$3,000 방2,화2.5,차고1,이노베이션메트로역도 보,Village Center at Dulles shopping mall,자이언트, 1,600sf,RT267/28, 최 고교통요지

▶571-239-6054

1.옥톤싱글\$3,600,방5,화2.5,차고 2,2.5acre 숲속,아름답고조용한 게이트있는집

2. 센터빌stonegate, 콘도렌트\$2,100 방2,화2,2층1100sqft, security gate

► 571-239-6054

#### 방렌트

버크 단독주택룸메이트구합니다. 조지메이슨,노바대학15분거리,출입문별 도,금연,여자분환영\$850 703-939-2737

애난데일 원룸스타일 방렌트합니다. 방안에 샤워실, 키친, 냉장고, 침대, 책상다 갖추어져 있고 깨끗합니다. 571-232-6052

애난데일H마트옆밝고조용한콘도방하나 렌트, 남자분환영 571-326-5605 / 301-266-1858

애난데일 큰 싱글홈 밝고 큰 화장실 딸린방 렌트합니다. 교통 편리 롯데1분 한강식당 1 분 거리, 입구 별도, 주차 넉넉 703-395-4380 / 703-965-2343

로튼(스프링필드) 조용한주택가 1층같은 워크 아웃 베이스먼트전체 렌트 방 3개, 주방, 냉장고, 세탁기, 인터넷, 유틸 리티 포함, 출입분 별도, 2500 sqft 703-478-4523

스프링필드지역조용한싱글홈방렌트, 간단한취사,가구완비,인터넷,학생또는직 장인여성환영 571-286-2439

스프링필드(Backlick & Braddock이 만나는곳) 조용한싱글홈베이스먼트 방렌트워크아웃, 간단취사가능, 교통편리, 주차넉넉, 남자분환영703-750-2795

GMU 근처조용한동네 싱글하우스 욕실딸 린큰방하나 렌트합니다. 남자분 환영, 즉시 입주 가능 240-271-1879 (문자요망)

애난데일예촌앞타운하우스 방렌트합니다. 가구완비, 취사가능, 직장인, 학생환영 703-622-2033

애난데일타운하우스밝고조용한 윗층방렌 트, 나무 마루, 유포, 교통편리, 여성분 환영 고양이 괜찮으신분만문의 바랍니다. 571-345-8879 (문자요망)

애난데일메시아장로교회뒤타운홈 2층 방하나렌트, 남자분환영 703-887-5173

애난데일에서 5분거리싱글홈 윗층(아랫층 과완전분리)렌트합니다. 방3,풀화장실,리빙룸,큰덱,큰창고,차고2 개,넓은 뒷마당,395/495/95 3분 거리 703-508-5405 (Julia Jin)

센터빌CVS근처깨끗한싱글홈 2층 방하나 렌트, 가구/취사/세탁/인터넷 완비, 여자분 환영, 즉시 입주가능 571-758-7117

페어팩스 방렌트 또는 하숙하실분구합니다 GMU, 노바에서 5분거리, 방/화장실/부엌/ 세탁기모두 별도, 편리한 파킹 703-388-8518

페어팩스 웃슨 하이스쿨 건너편 타운 하우스 베이스먼트 전체 렌트 방1,키친,욕실,워크 아웃 571-643-8008

애난데일H마트근처싱글홈1층렌트 방1,화1,주방,여자분환영\$1,200 즉시입주가능 571-318-1119

애난데일순복음교회앞주택지하렌트 방2,화장실,큰거실,부엌,방하나쓰실분 또는전체쓰실분 703-244-3453

애난데일싱글홈반지하방렌트놓습니다. 출입문별도,취사가능,여자분환영 571-213-9080

센터빌롯데근처타운홈이층욕실딸린큰 방하나렌트합니다.

571-970-8048

센터빌CVS근처타운하우스마스터베드 룸/개인욕실/워크인클로젯/여성분환영 571-243-7027 (문자요망)

#### 사무실/점포렌트

애난데일오피스전체렌트 나무마루, Newer Windows, 계단없는 1층 위치, 새로단장한화장실, 넓은주차장, 교통 편리\$2,000즉시입주

▶703-477-3114

애난데일(자이언트근처)오피스렌트 룸 4개, 화장실, 주차 다수 301-741-6567

센터빌 던킨뒤 환한 오피스콘도 렌트 \$1,900,1,200sqft, 룸3개,화1,오픈스페이스,파킹다수,

RT29/66/28/286 ▶571-239-6054

애난데일지역오피스렌트 오피스전체4Room\$1,6001사무실 \$500(전기, Wiff포함) 703-209-5150(문자요)



#### 부동산 매매

챈틸리급매타운하우스\$300,000 방2,화1,아담한뒷마당

▶703-231-5572

센터빌벽돌타운하우스\$589,000 방3,화2.5,차고1HMART근처 29/28/66 Braddock

**▶**571-239-6054

우드 브릿지 타운홈 \$410,000 방3,화31/2,잘관리된 밝고환한집,펜스 가있는 뒷마당, 3층구조, 업그레이드된지 붕과창문,히팅&에어컨시스템 ▶703-813-8949

도미니언밸리컨트리클럽, 헤이마켓럭셔 리싱글\$1,699,000 1에이커숲속,6700 sqft, 방5, 화5.5, 3차

선룸, 고급조명, 트레이 천장, 스파욕실, 드레스롬, 인로우스위트, 미디어룸, 게임룸, 바포함, 최신 HVAC, 정수시스템 Wolf/Sub Zero 주방, 커스텀 벽난로, 하드우드 바닥

\$460K 업그레이드(야외주방, 벽난로, 연 못, 분소, 덱, 음향시스템등) 골프장, 클럽하 우스, 수영장, 테니스, 산책로, 최고 학군 ▶571-239-6054

1. 메릴랜드 베데스다싱글홈\$1,295,000 방4,화2.5

고, 야외 리조트 스타일,

2. Gwynn Oak 메릴랜드싱글홈 \$419,000 방4, 화 3

▶301-318-4242

1. 워싱턴 디씨 듀플렉스 \$950,000 방4, 화장실 4+1, 차고1, 새집, 편리한 교통, 모던하고 예쁜 집 2. 워싱턴 디씨 SE 타운 \$649,000

방5,화장실 3+1,새타운하우스,모던하게 지은예쁜집

▶410-417-7080

1.메릴랜드포토맥싱글홈 \$1,075,000 방4,화장실 2+1,차고 2포토맥에 위치한 잘꾸며진집,좋은 가격 2. Nottingham 타운홈 \$349,900

방 4, 화장실 3, 최근에 전부 새로 고쳤으며, HOA가 없는 집 3. Elkridge 타운홈 \$625,000

방3,화장실2+2,차고2,아주넓고이쁜집, 마루바닥,1층에안방

4. 실버스프링 타운홈 \$750,000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중앙생활안내 BOX 광고 가격표

(한달기준/흑백)

1 BOX	\$100
2 BOX	\$200
3 BOX	\$300
4 BOX	\$400
5 BOX	\$500

문의: 703-281-9660 / kdclass2018@gmail.com





# 중앙생활안내광고 Classified

**중앙일보** 2025년 10월 23일 목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료광고내용보내실곳:kdclass2018@gmail.com(게재중지를원하실경우이메일주시기바랍니다.)

=

방3,화장실 3+1,차고 2 13년된벽돌로지어진고급타운홈, 5.엘리컷시티싱글홈\$820,000 방5,화장실 3+1,차고 2, 밝고 이쁘게 잘꾸며 진집, 넓은 뒷뜰 ▶410-417-7080

1. 패어팩스싱글홈\$999,000 방 5,화장실 4+1,차고 2, 넓은구조와잘가 꾸어진집, 벽돌, 마루바닥

2.패어팩스싱글홈\$1,050,000 방4,화장실 3+1,차고 2,우슨학군,편리한 교통,최근에업데이트

3. 비엔나싱글홈\$1,875,000 방6,화장실6,차고2,새집같이아주멋지고 고급스러운집,편리한교통 4. 페어팩스타운홈\$850,000

방 4, 화장실 3+1, 차고 2, 앤드유닛, 아주 밝고 이쁘게 잘꾸며진 집

**▶**703-899-8999

1. 던로링 메트로 앞콘도 \$460,000 방1,화1,1/2층오픈 LOFT 835 sqft, 전부리모델링,나무마루 2. 맥클린콘도 \$409,000 방2,화2,1,050 sqft Mclean High, RT495, 66/26/7

Metro, Tysons Gelleria옆 ▶571-239-6054

Alexandria 콘도 \$365,000 방2,화2, Top Floor 엔드유닛, 업데이트되고 잘관리된콘도, 리모델링한 부엌과화장실, 나무 마루, SS Apliance, Granite Countertops, Deck, 세탁기, 건조기 ▶703-813-8949

1. 센터빌싱글홈\$770,000 방3,화3.5,차고2,업그레이드부엌,마루, 넓은 뒷뜰

2. 패어팩스 싱글홈 \$1,005,000 방5, 화3.5, 차고2, 최근에 전체적으로 업그 레이드한집, 넓고고급스러운집 ▶703-899-8999

1. Ashburn 타운하우스 2012년 방3.5, 최고 학군, Dulles Airport

RT267/50/28/607 2. Woodbridge 싱글하우스 \$639,000 방3, 화2.5 차고1, 좋은 동네, 좋은 학군, 전부 업그레이드, RT 1/95/234

3. South Riding 타운하우스 2014년 \$645,000, 방3, 화2.5, 차고2, RT50/606 Dulles Airport, RT28

►571-239-6054

1. 패어팩스새 빌더홈 우슨 학군 싱글홈 \$1,900,000

2. 페어팩스씨티 타운하우스새 빌더홈 \$930,000 방3, 화장실3, 차고2 3. 챈틸리새 빌더홈 콘도(2025년 완공 예정)

\$670,000 방3, 화장실2.5 4. 페어팩스 중심가 타운하우스(2025년 완 고.에저) 방2 한자신2

공예정) 방3, 화장실3 \$1,000,000

5. 챈틀리콘도새 빌더홈(2025년 완공 예정) \$530,000 방2, 화장실2 ▶703-231-5572

1. 알렉산드리아 단독주택 \$619,000 방3.화2 단층집으로 넓은 백야드 0.3 에이커

프랜코니아지역으로교통, 생활시설편리,시니어거주하기에편리한단 충구조,지붕,에어컨등최근교체,계단없슴. 2.매나서스콘도\$330,000 방2,화2 주차공간 편리한콘도,

고로서리,병원,레스토랑,도서관등좋은생활 여견

▶703-483-0505

#### 사업체 매매

확실한순익보장델리 매매 DC SW 매매가 32만불(cash only) 연간수익15만불이상(주매상 만불) 수월한운영(키오스크시스템), 저렴한렌트 비, 오랜경험의 믿을 만한직원, 공실 위험 없 는건물, 주 5일(6 am - 3pm) 703-300-7207(문자) 꼭 관심있는분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Korean BBQ & Hot Pot 급매 \$280,000 메릴랜드 게이더스버그, 최적의 위치, 140석 이상, 3000 sqft, 저렴한렌트비, 최근새로 지은곳으로 리모델 링비 절감효과.

링비절감효과. 관심있으신분연락주세요. 240-988-6868 델리샵(DC)\$150K DC내위치,장사잘되는곳이나은퇴예정, 안정된수입,투자용

▶703-625-9909

-\$100,000

헤어, 네일&스파살롱사업체 매매 (레스톤/헌돈지역)

-현지경험을 두루갖춘 잘 정비된사업체로 수익좋고 지속성장가능 -월임대료&수도세 없음\*\* -6개헤어부스+2페디큐어부스+2네일 테이블+1마사지룸+1왁싱룸

꼭관심있는분만연락 바랍니다. 571-315-3533 (영어 가능하신분)

#### 중고매매/기타

비숙련영주권프로그램 변호사가운영. 널싱홈. 나이, 학력, 경력, 성별 무관, 직계가족도 영주권혜택 웹사이트: useb3.com 문의 이메일: admin@eb3recruit.com 전화: 571-546-8683

상태좋은남/여중고골프세트싼가격에팝 니다.

703-966-9072 (Mr.Kim)

부동산학교(5주속성반)
2025년9월16일(화)개강
한국식쪽집게수업,온라인수업병행,기본 컴퓨터교육,합격후10주실전교육,자체제 작한글교재와문제풀이 수업료\$350(교재비\$100)
703-899-8999/410-417-7080

색소폰, 클라리넷, 호른, 트럼펫, 트럼본, 플루 트-악기별개인 맞춤 레슨 757-338-8496

애난데일H마트근처텃밭공유하실분 1평, 2평, 3평 517-318-1119

무빙세일 (센터빌) 다이닝테이블,쇼케이스그림,유로피안장식 품,골동품,청동으로된인어공주,자수정수 집품,강아지케리어등등

1년된InokimOXScooter 공원에서서너번만사용해상태좋음,필요하 신분께저렴하게드립니다.

전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 요점정리·예상문제/한국·타주면허/ Real ID 신청/차량구입등록/기타교통국업무 ▶571-294-0057 (Jim Dong)

#### 건축/페인트/마루

▶구인-리모델링건축회사에서 같이 일하실 기술자, 헬퍼직원들구합니다.

703-499-4494

808-223-4825

703-945-2991

▶리모델링부엌, 화장실, 에디션, 덱, 팬스, 지 붕제너럴컨트랙터 MR. 박 703-434-2810

JGL건설회사 하청없이 25년 이상 숙련된본사 전문인들이 직접시공합니다

►571-213-8678

JJL CONTRATOR INC. 지붕고민/돈걱정그만하세요 ▶703-835-0945

형제건축&지붕 가정용,상업용,부엌,화장실,지하실 믿고맡기시면최상의결과를드립니다.

▶703-928-6255

TOP 건축 콜롬비아 MD - 집수리전문 / 각종 집수리일체 / 지하실, 주방, 욕실 / 전기설비, 타일 마루 / 루핑, 카펫, 페인트 / 각종 목수일일체

▶443-980-1167

JL 건축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고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레드문페인트

하우스페인팅(In,Out),덱메인터넌스와 클리 닝,샌딩,파워워시,핸디맨서비스 ▶문의:Mr.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일체 자체 라이센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타일,부엌,화장실,덱,그외모든공사,주 정부라이센스보유,책임보험가입, 카톡아이디:wani6811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240-687-5155

#### 보험

정문기 메디케어 보험 65세 되시는 1960년생신규 가입신청 도와 드립니다.

**▶**703-598-3316

옴니화재사업체, 자동차, 집, 의료, 생명보험 ▶1-866-915-6664

정선화 브릿지원메디케어/메디케이드보험 ▶703-862-5395

조은혜종합보험 메디케어&오바마케어신청접수/자동차/주

택/사업체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 융자

로리문맞춤형연금&재정관리

▶703-895-7648

제인최융자25년경력매입/재융자/특수 ▶703-244-3453

마이클 장융자 주택/상업융자/재정상담 ▶410-370-4229

유나이티드모기지네이션 -낮은이자/Cashout/명의변경/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Mr.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가스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가스는 집에서 발견되 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 냉동/히팅

SD MECHANICAL 테크니션 모집 대형슈퍼마켓 냉장냉동 서비스와 설치 전문 회사로 냉장냉동쪽에 경험 있으신분이나 관 심있으신분 지원 부탁드립니다 서비스 지역 VA, MD,DC

Email:Sdmechanical.office@gmail.com 전화: 703-447-4683

KWK 냉난방 BALTIMORE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 프리저 수리 전문

우디신문 443-540-6922 / 410-292-0001

L&B UNIVERSAL 히팅,에어컨가정용/산업용전문 제일큰규모의 냉난방회사,덕트클리닝

▶703-678-1749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힛펌프,Carrier, Trane딜러, 덕트, 드라이어벤트크린,가정용/상업용

▶ 문의:703-380-2282

JD 냉난방(Mr.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 ELECTRIC CONTROLS SPECIALIST / 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케리아 웃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펌프, 정수장치 \*연중무휴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죠이텍 냉난방

에어컨,히팅,냉동,냉장,워킹쿨러,워터히터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상업용)(Mr. Chung) 에어컨,히팅,냉동,냉장,전기,플러밍, 워킹쿨러,아이스머신, 덕트설치&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

#### 보석

▶JJ VA 시계, 보석 수리 기술 배우면서 일하실분 / 영어 필수 우대 703-691-1993

골든벨라보석(센터빌, VA) K24,K18,K14,K10,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 블라인드/카펫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 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 의 서비스, 합리적 가격

►571-229-4633

TOTAL BLACKOUT LLC 한국산 블라인드 전문, 버지니아 동부 지사 오픈, AS 전단팀 보유,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 격, 모든 샘풀 가지고 방문

▶703-600-9031

토탈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 우드 / 타일, 주거용 / 상업용 한번시공은 끝까 지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카펫

카펫 및에어 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럭파워스 팀샴푸,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제거, 브러쉬, 파워 풀청소.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플로워 왁스

►703-967-4155

####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키친 리모델링,온수,히터 디쉬워

셔,Disposals,상하수도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플러밍 수도꼭지,변기,하수도뚫음, 상하수도수리교 체, 배수 펌프, 온수, 히터교체,GAS공사,히팅,

에어컨,냉동,집안밖물새는것 ▶703-499-5984

#### 이삿짐

Movers LLC (GOOD HAND) - 이사/배송서비스전문 - 쓰레기/폐기물처리 571-982-9871/202-802-2858

▶ sales@moversdmv.com

MI이사짐(24/7) 빠른/책임/값이싼/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Email: mimovingllc@gmail.com

정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지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 /사업체에 안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 처 리해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해운 정확한선택, 확실한만족,귀국이삿짐 포장이 사,타주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 자체창고보관서비스한국 회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통운 세계 어느

조양 운송

세계 어느곳,어디든지가능 ICC 인가업체,100%자체보험확실한세관처리 및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703-550-2424

신속,안전,신용,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포 장이사,타주,시내이사,자체창고 보관 ▶703-550-5550

#### 리모델링/핸디맨/전기

Mechanical, LLC

전기/플러밍/개스/히팅/에어콘/역류장치/ MD fire 스프링클러/주방화재방지/복구작 업(수해,화재,가구,곰팡이) 보험 처리 가능/용 접(철,스텐,알미늄)/제작및설치(키친후드, 닥트)

301-222-3277

▶▶HBS Energy Inc에서 VA 지역 LED 프로 그램세일즈 및 전기 헬퍼 하실분 구합니다. 담당자: 301-704-2482 회사:443-864-5193 Email: hbsenergysolution@gmail.com

▶▶리모델링/부엌/화장실/실내/실외 30년 경력/정직/확실한시공과마감! 파인애플홈 Mr. 박 703-434-2810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 571-239-8525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의문제를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서비스 집밖-창문,사이딩,거터,루핑,데크등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LLC 핸드레일,계단,계단손잡이전문 703-340-5858 (VA) 443-980-5858 (MD)

전기기술자, 영어소통필수 973-997-5805 (엘렌)

▶▶미국회사 Electric Co.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센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전기공사, 페인트리모델링 각종전기,카메라, DATA 24시간출장가능,

▶703-582-7757

MD/VA/DC지역

▶703-346-5962

▶703-929-9601

JK유리 &Window/상점,가정용유리,거울 Frameless샤워도어Aluminum,Door설치,

유리

사워도어, 자동문, 식탁유리, 거울장식, 특수 유리교체 및 특별 주문제작

▶703-894-7200

Alliance Land Management 토지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깍기 /울타리 라인/

임업/멀칭

산책로 및 목초지 관리 ▶540-905-2849

- 피니셔(페인트,스테인)

HD Plus Construction 밀웍샵에서 함께 일할 경험자를 찾습니다.

-카펜터(캐비넷,코리안카운터탑제작) -프로젝메니져(이중언어) 높은페이와근무시간보장

(571)420-5492 / (703)256-5486

생활안내 줄광고 게재요청 703-281-9660 (text) kdclass2018@gmail.com

2025년 10월 23일 목요일 중앙일보

### 메디케어 신청 및 보험가입 61년생 무료상담!

서플리먼트·C 플랜·약보험·치과·안경·OTC

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내려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703-591-0009 / 703-537-9899** 



#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잦은 고장이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셜이 최고의

####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 Lennox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 페인트

# *Since* 1988

- <mark>▶ 건축ㆍ시공 및 건물ㆍ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mark> <mark>▶상가 및 빌딩 신축ㆍ리모델링</mark>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mark>▶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mark> · 관리 대행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703-504-6116 / Cell: 703-675-7401

Repair Doctor 페인트,마루,타일,부엌,화장실,덱,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Call 24시간 가능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교려통운

www.HDmovingusa.com

귀국,해외 이사

타주,시내 이사

귀국,타주 차량운송

- 욕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페인트 전문
- ₹ 목수, 타일, 마루, 덱, 캐비넷 샌딩 보수
- ♥ 핸디맨, 플로밍,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 .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VA·DC 지역. 신속시공

571.623.0255

**Annandale** 

### **업 범망애운** 귀국이삿짐/차량운송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무료겨전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Door to Door Service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범양해운 USA Tel.703-298-191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USA(SAN DIEGO) USA(NEW JERSEY)

• VA/DC/MD↔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USA(ATLANTA)

타주이사 해외이사

귀국이삿짐

시내이사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ICC인가업체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 ◆ 100%자체보험으로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703-550-2424** Fax.**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 ▶귀국 이사 전문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 JJL Contractor Inc. 야곱의 사닥다리 🦠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 MD 업소 안내

### 냉난방



###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박을구

### 보 석



###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 다이아몬드
- 백금(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남양 진주 각종 보석 취급 각종 보석 감정 수리 상담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돌 반지 팔지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플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 집수리 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 **United Mortgage Nation**

소중한 주택 융자는 신뢰 받는 파트너, United Mortgage Nation과 함께 하세요!

(NMLS #: 2425871)

703-204-0022 703-268-3954 WWW.UMNLOAN.COM

**중앙일보** 2025년 10월 23일 목요일

에어컨&히팅 / 핸디맨 / 건축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 웨딩 / 부동산 / 데이케어

- ●웨딩 플래너
- ●웨딩드레스 & 턱시도 대여
- ●웨딩플라워 데코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하고 편안한 집을

소개해 드립니다.

내 집 마련의 꿈!

**현대부동산**이

함께 합니다.

Huundai

●결혼식 장소 및 비용예산 선정

9502-A Lee Hwy., Fairfax VA 22031

\*상담 환영 (집 파실 분, 사실 분, 경매)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703-657-0944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 데이센터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 에어컨 / 히터 / 힛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hvac.com

03.380.228



상업용

JGL Construction Inc. "하청없이 저희 25년 이상 숙련된 자랑스러운 시공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8001 Forbes Place, Suite 207 Springfield, VA 22151

30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Office: 571-213-8678



703-813-8949

703-813-8150~5

두번째 20% 할인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Lee

joytechhvac.com

ok., #310, Annandale, VA 22003 **T. 703-281-9660** 

24 hours

'A-MD-D.C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한국산 Smart Curtain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EVERSHINE** Construction KITCHEN & BATH BASEMENT REMODELING













●15년 이상의 경험 ●보험가입

VA Class A License / DC / MHIC evershine-construction.com info@evershine-construction.com

Patio / Fence / Deck / 기타 각종 집수리

HOME REMODELING

703,994,2943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www.bbgblinds.com / bbgblinds@gmail.com

####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사이딩,거터,루핑,데크 등 일체

" 일단 전화 주세요! "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센스 보유 \*라이어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 상업용

믿고 맡기시면 최상의 결과를드립니다. 지하실

14516 Flag Staff Ct, Centreville, VA 20121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냉동
- •집 안밖 물새는것

**24Hr** 703.499.59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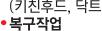
### 플러맹

- ◆ 수도꼭지 교체
- ◆ 씽크 / 디스포져
- ◆ 워러히터 / 물새는것
- ◆ 하수막힘 / 변기교체
- ◆ 썹펌프 교체

VA A 라이센스/보험 13908 Green Trails Ct, Centreville, VA 20121

### 우주 Mechanical, LLC

- 전기/플러밍/개스/히팅/에어콘
- 역류장치(Backflow)
- MD Fire 스프링클러
- 주방 화재 방지
- 용접(철, 스텐, 알미늄)
- •제작 및 설치 (키친후드, 닥트)



(수해, 화재, 가구, 곰팡이) 보험처리가능

DC, MD, WV 라이센스 소지 301-222-3277

블라인드 하나로 여러분의 집이 확 바뀝니다.

한국 명품 블라인드 드디어 미국 상륙!

LA 지역 10,000 스퀘어피트 자체 공장과 쇼룸 보유 메릴랜드, 워싱턴DC, 필라델피아, 노스캐롤라이나 전 지역

버지니아 동부지사 오픈!!





**Total Blackout LLC** 

Young Lee



한국산 지브라쉐이드, 전동블라인드, 롤스크린, 허니콤, 스마트커튼 최상의 품질, 다채로운 색상과 디자인 및 A/S Team 보유

회고급 공기정화, 항균 원단, 방염 기능 가정/상업/교회용 등 다양한 맞춤 제작

<sup>무료 방문</sup> **703.600.9031** 



jglconstruction.com



8,000sf의 완벽한 휴식처, 각종행사, 가족, 교회 단체 모임 센터빌에서 40분 전화예약 703-485-5483 (138 Wooded Lane, Front Royal, VA)



# JGL 건설회사

JGL 건설회사는 VA/MD/DC 컨트렉터 클래스 A 라이센스 및 시공 보험에 가입된 전문 건설회사입니다.

"하청없이 저희 25년 이상 숙련된 자랑스러운 시공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실내공사 INTERIOR 실**외공사** EXTERIOR ★ 마루 ★ LVP, Hardwood 스페셜 프로모션 1,000sq 이상 \$500 할인 ★ 창문 ★스페셜 프로모션창문 20개 이상\$500 할인

3개월 할부 무이자



마루시공 Hardwood, Carpets



**주방 리모델링** Cabinet, Sink, Faucets



**욕실 리모델링** Bathroom, Tile



**덱 / 사이딩** Deck / Siding



**창문** Windows



**지붕** 싱글, 플랫

# 강풍 / 우박 피해 지붕 보험 상담 환영

믿을 수 있는 자재 시공과 건설능력으로 당당하게 제공할 수 있는 보증기간!

Exterior 문의: 703.628.5216 / 703.474.3112

Interior 문의: 703,559,4213

8001 Forbes Place Suite 207 Springfield, VA 22151 Office: 571–213–8678



# **디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애틀랜타

구인

Electrical Engineer:

Analyze data and provide

electrical budget estimates

for projects. Must have a

Bachelor's deg. in Electrical

Engineering, Mechanical

Engineering, or related field.

Mail resume to

Kumho Tire Georgia Inc.

광고문의 213-368-2525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 LIBERTY UNIVERSITY & MIT

(Meridian Institute of Technology University)

#### 세계 최초 카드 프로세싱 · Fintech · IT 창업 전문대학

#### ① 카드 프로세싱 전문가 과정 (Fintech & IT Training)

- 전문 과정 수강료: \$5,000
- 카드 단말기·POS·온라인 결제 교육 교육 후 공인 카드 프로세싱 전문가 자격 취득
- 실습 과정 + 현장 배치 지원
- 안정적 수입

#### ② 소액 창업자 & 투자자빈

- 카드 프로세싱 회사 운영 기회 제공
- 창업 투자자금 약 \$50,000부터 가능 본사 지원으로 독립 지점 개설 가능
- 세계적인 결제 시스템 기업 제품 판매 및 서비스 기회 결제 시스템 + 마케팅·운영·고객 관리 교육 제공

#### ③ **비자 연계 창업 프로그램** (E-2, EB-5 Visa)

- E-2 비자: \$150,000~\$300,000 투자
- → 투자비자 교육 프로그램 + 독립 지점 창업 지원 EB-5 비자: Million Dollar 투자 프로그램 (영주권 연계) → EB-5 프로그램 교육 과정 포함
- 글로발 투자 이민 건설팅 회사와 투자 이민 전문 변호사 협력 지원가능 합법적 미국 체류 + 글로벌 비즈니스 확장 기회 제공
- ♥ 교육 + 창업 + 투자이민 원스톱 솔루션 제공
- ♥ Liberty Bankcard(MPS) & Liberty University 전문 지원 🤝 세계 1위 회사 (Worldpay.com) 서비스 제공하면서 안정된 고소득 창출하세요.

#### 문의 (424)332-3779 미전지역가능

입학 설명회 및 ZOOM 미팅 예약번호: (424) 332-3779

라이센스를 받으시고 고소득을 평생 올리세요' 학교 웹사이트 interpacU.com 에 들러서 한국어 Sample 강의를

들어보시고 법무사반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213)674-7000 (213)505-77



학장:사라 류 박사

https://wikitia.com/wiki/Dr\_Sarah\_Sun\_Liew 30년 프로세싱 경력, 경영학 박사 (전자상거래 & 금융), 영업학, 교육학, 설교학 박사 하버드 경영·교육·정치 대학원 Alumni MIT, Wharton, Chicago Booth 경영대학원 수학 하버드, 아브라함(J.D.), 퍼시픽(J.S.D.) 법대원 수학

at 3051 Kumho Pkwy, Macon, GA 31216 ; Attn: Mr. Kim 부학장 : 아브라함 이

#### IT Programmer:

Record and document computer program development and subsequent revisions. Must have a Bachelor's deg. in Computer Science, Mathematics, or related field. Mail resume to Kumho Tire Georgia Inc. at 3051 Kumho Pkwy, Macon, GA 31216; Attn: Mr. Kim

# 햇산삼 · 30년 1파운드 \$750 ⇒\$550 · 40년 1파운드 \$1,500 ⇒\$950 · 50년 1파운드 \$2,350 ⇒\$1,500

Kim's Acupuncture Clnic (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I #201 LA, CA 90006 (213)800-3662 (213)407-4524

#### **치질 - 치루** 수술 안하고 0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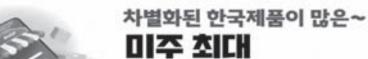
미라클터치로 발기 능력 쑥쑥 항문풀림-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항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터치로 뼛속 독소 제거 불면증 이명 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OC (213)255-1410



Hotdeal.Koreadaily.com

한인 온라인 쇼핑돌



#### Leisure World Seal Beach, CA

주택 구매자 조건

-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경우 한분만도 가능)
-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성민 산삼 한방 병원 서영수 한의학 박사와 중풍 증상이 크게 호전된 델휘노 고메즈 씨

중풍으로 마비됐던 고메즈(51) 씨는 LA 한인타운 성민 산삼 한방병원에서 두 달간 치료를 받고 놀랍게 회복했다. 2022년 12월 중풍 발병 이후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던 그는, 침과 뜸, 약물 등으로 이루어진 6단계 한방 치료 덕분에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서영수 한의학 박사는 "중풍은 불치병이 아니다. 기혈 순환과 혈전 제거가 핵심이며, 심혈관 치료에 좋은 금옥단과 위장 강화에 효과적인 도인벽사단을 병행 처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손발 저림, 어지러움 등 초기 증상이 있다면 철저한 건강 관리가 필수"라고 당부했다.

▶문의: (213) 503-3304 ▶주소: 809 S. Hobart Blvd, LA \*\* 잠 못 이룰 정도로 저긋지긋한 모든통증 **/ /**\*\*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중풍·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니다!

치료전 10여일 만에 뼈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Tel. 213.**385.3304** Cell. 213.**503**.



1249 Blalock Rd #201, Houston, TX

(832)605-4890 - (281)501-2623

예방이 최고입니다."

무료 초인종 카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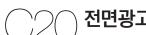


Since 1874

877.373.0265

소중한 집, 자산, 가족의 안전 보호는 ADT 가최고 입니다.

한인담당 매니저 제임스 정을 찾아주세요. Dir. (714)873-8724 무료상담 "Authorized Dealer"



### Exquisite All-Brick Colonial in Prestigious Kensington Square



















Perfectly suited on a coveted corner lot in the prestigious Kensington Square community, this Renaissance-built "Jane Austen" model all-brick Colonial offers nearly 4,000 sq. ft. of refined living across three beautifully finished levels. A grand two-story foyer and soaring 10' ceilings set the tone, complemented by rich hardwood floors, exquisite custom millwork, and plantation-style wood shutters throughout. The main level features a high-end powder room and a well-appointed laundry room.

gas cooking, brand new ovens, and a sunny breakfast nook. The kitchen flows seamlessly into both formal and casual entertaining spaces, anchored by a charming brick accent gas fireplace.

Upstairs, the luxurious primary suite boasts a tray ceiling, recessed lighting, a sitting area, and dual walk-in closets. The spa-inspired bath offers a soaking tub, jetted shower, and dual vanities. A loft with built-in desk and wall units provides the perfect home office or study space. Two additional spacious bedrooms share a Jack & Jill bath.

The fully finished lower level is an entertainer's haven, complete with a wet bar, expansive recreation room with gas fireplace, and a private guest suite. Exterior highlights include a side-entry two-car garage, iron-fenced backyard, patio, and Trex-style deck. The HOA covers landscaping, snow removal, and community amenities for a low-maintenance lifestyle.

Beyond its elegance and luxury, this home offers something truly special: a sense of peace and comfort the moment you walk through the door. Here, the stresses of the day melt away, replaced by warmth and tranquility. Whether enjoying a morning coffee bathed in sunlight or unwinding by the fireplace in the evening, this home creates an atmosphere where every day feels like a retreat.

All this, just minutes from Fair Oaks Mall, Fairfax Corner, Wegmans, Whole Foods, Reston and Fair Oaks Hospitals, and top-rated Fairfax County schools. with convenient access to Routes 50, 28, 29, Fairfax County Parkway, and I-66.

This is more than a home it's a lifestyle of comfort, elegance, and joy!

Fairfax \$1,199,900



대표 정희수 703.477.3114

#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시실 분·경매)



Principal 세리 리 703.244.6526

